

2019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1

모음



모음

모두가 바쁜 시대에 자음만으로 의사소통을 하기도합니다.
홀로 있는 자음을 보면 어딘가에서 서성이고 있을 모음을 떠올려 봅니다.

모음 없이 자음은 불완전한 형태를 갖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모여 비로소 하나의 문자가 되고,
문장이 되어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통합결과자료집 <모음>은
자음과 모음의 관계처럼 센터와 지원사업 단체가 마을을 모아 서로 의지하며
문화예술교육을 향한 하나의 완성된 의미를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센터의 자음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의 모음이 될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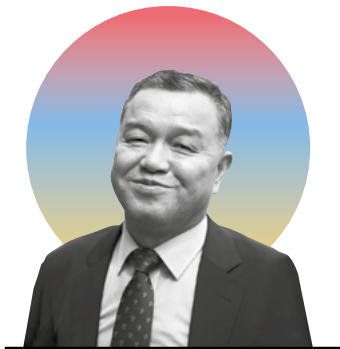


목차

04	열다	발간사
06	소개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0	자체기획사업	창의예술학교 운영사업 창의예술교육연구소 - 생애전환, 교과연계, 서로배움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 경자씨와 재봉틀, 청장년인생설계학교, 지영씨의 인생부록 거점예술배움터조성 예술교육살롱 문화예술교육축제 - 아트날라리, 어린이목수축제 통신원제 및 허브사이트 운영 문화예술교육 ODA 프로젝트
72	기반강화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동네예술배움터 광주Re 토요문화학교 주말예술배움터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174	정책기반사업	문화예술교육 기관협의회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전문가 TF운영
184	닫다	맺음말 센터직원들 소감
188	마무리	프로그램 일정표 *부록 한눈에 보는 참여자 만족도 인포그래픽



시민중심 광주형문화예술교육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윤기

광주문화재단은 문화로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고 예술로 스스로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시민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1년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이에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 맞춤형 문화 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미래 문화시민 육성**이라는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창의예술학교는 2012년부터 8년 동안의 문화예술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광주만의 특색있는 문화예술교육콘텐츠를 창·제작하여 광주의 문화예술교육기반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경자씨와 재봉틀”, “청년인생설계학교”, “지영씨의 인생부록” 같이 세대별 생애전환시점에 맞는 기획사업을 통해 문화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높였으며,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를 위한 창의예술연구소는 교사대상, 기획자나 문화예술교육 강사를 위한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활성화와 환경 조성을 위한 “서로배움”을 기획·운영하였습니다.

지역의 문화시설·단체와의 협업 사업인 주말 아동·청소년과 가족 여가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과 시민 누구나 즐겁게 참여하는 동네문화 예술교육을 통해 삶의 질 개선과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기획한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사업 그리고 지역 아마추어 동아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술동아리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신규로 5~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들의 현장경험과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광주의 문화예술교육이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광주형 문화예술교육플랫폼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확장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020년 광주시민이 문화예술교육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9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모음

광주형 문화예술교육



여기는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입니다.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기반 강화를 위해 광역센터로 지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을 따름

네트워크 구축을 토대로 지역특화형 문화예술교육콘텐츠를 구축하고
지원의 효과적 방식과 내용 발전 방향을 모색합니다.
이를 위해 연간 사업 총액은 19억여 원으로, 센터운영 및
기획사업과 보조금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빛고을시민문화관 내 사무실 및 아트스페이스에
대강당과 교육 자료실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WANGJU CULTURAL FOUNDATION

광주문화재단

비전

광주 문화를 바꾸는 협력 플랫폼

미션

문화로 풍요로운 광주,
예술로 아름다운 시민

광주문화예술교육센터

비전

광주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핵심 가치

지역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하모니 타워



전략목표

지원의 효과적 방식과 내용 발전방향 모색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확대





팀목표

우리 ‘들’ 이 행복해지는 배움, 광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광주형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구축추진

거점문화예술배움터조성사업
창의예술학교
문화예술교육정책기반사업

문화예술교육 인적·물적 연계 및
역할 모색 추진

창의예술학교
창의예술교육연구소
문화예술교육축제
광주문화예술교육정보구축 및 제공활성화

문화예술교육환경조성
지원 추진

토요문화학교운영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예술동아리교육지원
유아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지원
문화예술작은도서관

문화예술교육센터
역할강화 추진

문화예술교육기관 협의회
문화예술교육 ODA사업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광주문화예술교육센터 연혁

2008.12

광주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정

2009-2014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남구 사동)

2014

빛고을시민문화관 및
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 교육자료실)

2019 주요업무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 구축사업

예술동아리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 지원사업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 작은도서관



자체 기획사업

창의예술학교 운영사업

창의예술교육연구소

· 교과연계/ 생애전환/ 서로배움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 경자씨와 재봉틀/ 청장년인생설계학교/ 지영씨의 인생부록

거점예술배움터조성 예술교육살롱

문화예술교육축제

· 아트날라리/ 어린이복수축제

통신원제 및 허브사이트 운영

문화예술교육 ODA 프로젝트

2019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모음



창의 예술학교

삶 속의 다양한 문화예술과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문화자원과의 관계를 통해 창조적 지성을 발견하고 실천으로 풀어가는 ‘삶의 경험학교’

창의예술학교는 2012년 시작하여 올해 8년째 진행 중에 있는 광주형 문화예술교육의 모델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다각적이고 특화된 성격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공교육의 경계를 뛰어넘는 역동성 있고 현장성 있는 경험 중심의 학교 밖 문화예술학교입니다.

창의예술학교가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뉴거버넌스 구축

지역의 문화예술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의 특화콘텐츠 개발운영으로 광주시민들의 창조역량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나아가 지역민의 생애주기형 문화예술교육 모델 발굴과 최근 정책에 발맞춘 생애전환형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첫째, 각 생애주기별 대상층을 고려한 창의예술학교 선정을 통한 콘텐츠개발 및 운영

둘째, 창의예술학교 운영단체 간 네트워크와 역량 강화를 위한 독립된 창의예술학교 운영 사무국 지정 및 운영

셋째, 창의예술학교 자체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명	2019 창의예술학교 운영사업
사업기간	2019년 1-12월
사업비	103,000,000원
지원대상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 · 기관 · 시설
교육대상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연령층의 광주 시민



추진일정

02-03	04-10	04-11	08-11	11
공모 및 심사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정기운영회의 - 단체운영상황공유 및 네트워크 모임	현장 모니터링 - 담당자 인터뷰 및 수업 진행 모니터링	현장 평가용역 -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	네트워크 포럼 - 창의예술학교 향후 방향 모색

공모선정

창의예술학교운영사업은 ‘학교’라는 단발적이며 1년 단위 지원사업의 성격을 넘어 지역의 문화 예술교육의 종합과정형태의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기획역량을 갖춘 운영단체

공모 및 선정

컨소시엄 운영 : 각 자치구별 3~5개의 단체들이 모여 하나의 컨소시엄 협력 형태로 운영

※ 2년(2018-2019) 연속지원사업으로 2018년 운영 결과에 따른 보완으로 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 모니터링

전문가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단체의 현장 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화예술교육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 고민함

워크숍 · 정기운영회의 · 공동행사

- 사전워크숍 | 운영지침 안내, 담당 전문가 컨설팅위원 소개
- 정기운영회의 | 단체들의 운영 상황 공유 및 단체 간 네트워킹
- 공동행사 | 봄소풍, 가을운동회, 졸업식, 교차수업, 네트워크 포럼 등 공동협력 행사

사업운영

04-11 사업기간	광주시민 사업대상	광주광역시 내 문화기반 시설 사업장소	80,000천원 사업예산	3 운영단체
1명 컨설팅전문가	총 6회 현장모니터링	총 6회 정기회의	1회 네트워크포럼	5회 공동행사

운영단체

분류	운영단체	프로그램	장르	대상	지역
컨소시엄	북구문화의집	바퀴달린학교 : 주말건축, 땅과예술, 초딩수공업	노작, 건축	초등학생	북구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학교 : 생활디자인프로젝트, 공원프로젝트	디자인, 예술	초·중·고	서구
	문화점방	달할매와 달줌마	마을탐방, 예술	65세 이상 할머니	남구

북구문화의집

바퀴달린학교

교육장소	북구문화의집 착한목공소, 옥상, 근린공원, 담양 수북 예술가 작업실 등
교육대상	초등학생(1학년~6학년)
교육장르	디자인, 건축, 메이커, 통합장르
문의	T 062-268-1420 E okjoy@hanmail.net

단체소개
북구문화의집은 근린생활공간이자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 소비하는 생활 속의 소규모 복합문화공간.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심터를 제공하고 지역의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거점역할을 한다.

프로그램소개
노작을 통해 경험을 배우는 어린이 예술학교 바퀴달린 학교는 다양한 삶의 경험(예술경험)을 신체활동을 통해 체화하는 노작학교이다. 바퀴달린학교는 농촌의 산과 들, 논두렁을 다니면서 자연과 사계를 통해 배우는 대지미술학교, 물성을 이해하고 점과 선, 면으로 공간을 만들고 건축재료에 대한 새로운 실험, 옥탑건축학교,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통합적인 예술교육을 통해 상상력을 실현시키는 놀이감 발명학교다.



주말 건축

흙과 돌, 나무, 자연에서 건축원리를 배우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생태건축교육

왜 생태건축인가. 생태건축이란 인간의 삶에 자연환경을 조화하여 상호 적응할 수 있는 구조를 디자인하고, 자연 생태계의 일부가 되어 건설하는 예술건축이다. 집을 짓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라는 단순한 1차원적 접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 모습을 담아내는 그릇이자 꿈을 꾸는 공간이다. 주말건축은 자연과 어울리는 건강한 삶이 깃드는 건축의 대한 의미를 알고 스스로 또는 더불어 지으며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적 건축을 지향한다.

땅과 예술

사계절을 통해 이뤄지는 농사를 예술과 접목시켜 땅의 소중함을 예술로 승화시켜내는 현대회화 대지 인문예술교육

땅과 예술 학습은 밀폐된 곳에서 벗어나 자연과 삶의 터전에서 아이들이 소통하는 미술 수업이다. 그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어떻게 교감하고 타협하는지를 미술적 장치를 통해 알아가는 현장체험학습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작지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논과 밭, 강과 하천 수로 마을과 공터 등 마을 곳곳이 그 무대가 된다. 땅과예술은 크게 두가지 축을 이룬다. 모내기과 작은 밭 꾸미기가 서로 구분되고 노작을 통한 현장 미술과 농촌마을에 특색 있는 공간을 찾아 그리는 주변부 미술활동이 그것이다.

초딩수공업

어린이가 직접 메이커(maker)가 되어 과학, 공학,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통합적 예술교육을 통해 상상력을 실현시키는 적정기술 교육

교실이 아닌 곳, 어느 곳이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다. 내 머릿속에 가득한 상상을 펼쳐서 마음껏 만들고 수없이 시도한다. 이처럼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메이커다. 장난감공장은 어린이 적정기술 교육을 시도하고 기존의 놀이 환경을 새롭게 바꿈으로써 이동하는 아지트 캠핑카라는 흥미로운 미션을 제시한다.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친구와의 협력을 통해 창의적인 생각으로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도출한다. 이를테면 설계, 디자인부터 미적 감각, 견고성, 실용성까지 고민하게 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 공유와 협력, 그리고 창작활동이 메이커로서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친구와의 협력을 통해 창의적인 생각으로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도출 ”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센터

시소학교



교육장소	시소센터, 장수어린이공원, 마을 등
교육대상	초등3학년 이상 청소년
교육장르	조형예술, 환경, 건축
문의	T 062-372-1318 E seoguyouth@hanmail.net

단체소개
시소는 혼자서는 탈 수 없는 놀이기구입니다. 함께여서 즐거운 청소년들의 마을 놀이터 시소센터는 청소년이 자연, 친구, 이웃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삶과 삶 사이의 기분 좋은 플랫폼입니다.

프로그램소개
시소학교는 버려진 물건(고물)을 수집 · 재평가하여 예술 작품을 만드는 생활디자인프로젝트 영똥보물상과 다빈치브릿지와 밧줄을 이용해 청소년들이 직접 놀이터를 만드는 공원프로젝트 상상놀이터로 구성되었다.

생활디자인프로젝트 <영똥보물상>

여기저기를 누볐을 바퀴 하나 잃은 여행용 가방, 한상가득 차려져 누군가의 배를 부르게 했을 다리 한쪽이 고정되지 않는 밥상, 무더운 여름을 책임졌을 돌아가지 않는 선풍기, 누군가의 뺏살을 없애줬을 한때 유행한 다이어트용 홀라후프,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까지.

새것에 밀려 헌 것이 된 물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버려진 물건, 그것들을 우리는 고물이라 부른다. 새것을 사는 것은 간편하고 익숙하다. 하지만 우리는 버려진 고물에 영똥한 상상력을 더해 새로운 쓸모를 주고 싶었다. 아니, 사실은 쓸모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 고물로 작품 한 번 만들어보자 했더니 모여든 아이들. 영똥고물상이 되어 고물들을 수집하겠다고 했더니 우리가 손대면 더 이상 고물이 아닌 보물이 될 수 있다며 영똥 ‘보물’상으로 이름을 바꾸잔다. 아주 좋다. 고물을 보물로 바꿀 영똥보물상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아파트 단지를 돌며 고물 수집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먼저 수레부터 만들었다. 나무를 이용해 영성하지만 수레를 만들고, 철물점에 가서 직접 바퀴를 골라 달고 손잡이까지 만들어 끌고 나간다. 덜컹덜컹 소리도 참 크다. 무슨 일인지 궁금한 동네주민들은 아이들의 설명에 빙그레 소리없는 웃음을 짓는다. 분리수거장을 돌며 괜찮은 물건들을 수레가득 싣고 와 재료밭을 만들었다. 이제 상상력이 필요하다. 재료밭에 널린 고물들을 보면서 어떤 작품을 만들지 고민하여 디자인하고 톱과 망치, 드릴과 나사 등 익숙하지 않은 도구들을 사용해 고물을 해체하고 재조립한 후 페인트와 물감을 사용해 멋스러움을 더한다. 생수통으로 만든 코끼리, 밥상으로 만든 수레, 도마로 만든 얼굴, 뭘지 모르겠는 물건으로 만든 뭘지 모르겠는 작품, 페인트 통을 쌓아 올린 토템폴까지. 고물들은 각자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가 되었다. 누군가 버린 물건을 줍는 것은 축스럽기도 했다. 더러운 고물을 걸레로 닦으며 내 손을 더럽히는 것도 어색하다. 이 축스럽고 어색한 경험들은 쉽게 버리고 새로 사는 소비적 행동에 익숙한 우리가 버려진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재평가하여 새로운 쓸모를 주는 생산적 경험되었기를 바란다.

공원프로젝트 <상상놀이터>

“배고파요, 선생님!”
토요일 오전 시소학교 친구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다. 상상놀이터 친구들의 작업은 덩치가 크다. 방부목을 어깨에 얹어 옮기고 톱질을 하고 드릴로 피스를 박고 체중을 실어 밧줄을 당기고 뽕뽕 묶는다.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절로 배가 고파 올 정도다. 학교에도 아파트 단지에도 공원에도 놀이터는 많다. 똑같은 그네, 똑같은 시소, 똑같은 미끄럼틀 말고 우리는 직접 놀이터를 만들었다. 우리의 놀이터는 다빈치브릿지와 밧줄을 이용한 놀이터이다. 다빈치브릿지는 상호지지구조의 다리인데 알파벳 ‘H’

모양의 기본 구조를 여러 개 만들어 각 나무들이 서로 지지하도록 조합한다. 신기하게도 못이나 나사를 박지 않아도 혼자 서 있다. 처음엔 4개 정도를 조합해서 놀아보고, 나중엔 7개까지도 조합했다. 7개 정도면 우리키보다 높은 구조물이 된다. 처음엔 올라가는 것조차 무서웠지만, 몇 번 오르내려보니 재미있다. 놀이터는 만드는 시간 보다 놀 때 더 신난다.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다빈치브릿지에 그네도 달아주고 메이커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직접 만든 그네를 타고 느끼는 바람은 괜히 더 시원하다. 다빈치브릿지로 만족할 수 없다. 이번엔 밧줄놀이터다. 밧줄을 튼튼하게 묶기 위해서는 아이들 여럿이 체중을 실어 잡아당겨야 한다. 나무와 줄다리를 하는 모양새다. 한참을 씨름하더니 두 줄타기 놀이터가 완성이다. 힘들다며 투덜대던 아이도 줄 위에 올라서서 신나게 논다. 꽤나 긴 시간을 공들여 3-4개의 나무를 쪽 이어 묶으니 두 줄타기, 세 줄타기, 직접 짠 해먹에 거미줄까지 만들어졌다. 줄 하나를 묶을 때마다 주어지는 테스트 시간이 제일 신나 보인다. 평일 시소센터에 놀러온 시소학교 아이들 몇몇이 밧줄놀이터를 힐끔 쳐다본다. “선생님, 다른 애들도 저기서 놀아요!”라며 뿌듯해한다. 아이들의 고된 즐거움이 묻어난 상상놀이터가 시소센터 뒤편 장수어린이공원에 만들어졌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바람이 그들의 상상력으로 실현되고, 그들의 손을 통해 확장해나가는 청소년의 놀이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청소년들의 바람이 그들의 상상력으로 실현되는 청소년의 놀이터가 되었으면 ”

문화점방

달할매 + 달줍마학교



교육장소	순돌이네 작은도서관, 친구네집 외 광주일대
교육대상	월산동 30대이상 여성
교육장르	복합문화예술교육
문의	T 062-376-1328 E hwj3761328@hanmail.net

단체소개
스스럼없이 드나들어 구경하고 선택하는 가게처럼
문화와 예술도 편하게 만나는 일상을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을과 사람을 만나고 있는 중

프로그램소개
월산동의 청장년층여성과 65세이상의 여성이 일상을
공유하며 자신을 보는 복합문화예술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달할매+달줍마학교〉는 2019 월산동에서 아줌마와 할머니로 불리는 30대부터 80대 여성들이 참여하여 한 공간에서 다른 경험치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의 일상에 작은 썸터이며 놀이터, 학교, 사랑방, 공부방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리며 일상의 한 자락으로 자리 잡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고 이야기하는 사이.

몇 십년을 함께 지낸 이들.

“그날이 그날이지 뭐”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그냥” 하는 날.

삶의 낙(樂)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일상.

특별할 것 없는 그 일상을 그림과 사진으로 만나 이야기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자신의 삶을 마주하며 오는 새로움. 〈달할매와 달줍마〉로 다른 세대와 만나 지혜와 활력을 주고받으며 특별한 시간으로 의미화해나간다.

그냥 만나는 그냥 일상에서 엄마로 할머니로 마음속 깊이 가뒤퍼린 자신을 찾는 시간을 살짝 살짝 접한다.

“그냥 오늘”이 아니라 “오늘이 그날^^”이라며 삶을 다시 사는 그들로 만난다.

자신의 삶을 항상 누군가의 뒤에서 받쳐주고 기다려주는 존재로 살아왔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하는 시간에 온전히 당신으로만 바라보기에 당신도 자기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을 갖는 이 시간을 의미화해간다.

자신도 알게 모르게 나를 나로 보는 시간.

달할매와 달줍마는 일상의 나를 깨워주는 설렘으로 이뤄진다.

“
자신도 알게 모르게
나를 나로 보는 시간
”



창의예술 교육연구소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및 콘텐츠
개발·확산을 위한 연구모임 지원



01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인생라운드

생애전환기를 맞은 사춘기 아동·청소년, 새로운 자유와
선택의 청년, 인생의 후반기를 맞는 50+ 신중년 세대의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전문가 특강워크숍 및 실제적인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소통네트워킹을 진행합니다.

- 인생,
인생전환기에 문화예술과 왜 만나야하고 어떤 형태로 만나야하는지,
라운드,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들과 지역의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주체들이 만나 방법론에 대해 소통하며,
#, 현 시점의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위치를 반음 올리는 변화의 시작

사업명	2019 창의예술교육연구소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인생라운드 #'
교육기간	2019년 5-7월
교육장소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
교육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단체 기획자 및 강사진, 관심있는 누구나
교육방법	이론특강, 라운드테이블

프로그램 내용

일정	시간	프로그램 내용	강사
6월 5일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인생라운드 #' · 특강1.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배움은 가능한가? · 특강2. 생애전환기의 문화예술교육에 앞선 단상 · 함께하는 소통네트워킹 '라운드샵 원'	정경운(전남대문화전문대학원) 김월식(무늬만커뮤니티)
6월 11일	13:30 - 18:30	동네형이 필요해!_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 특강3. 칭찬이 뭐길래? · 특강4.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 함께하는 소통네트워킹 '라운드샵 투'	양재혁(컬처커뮤니티동네) 김혜일(문화공동체 아우름)
6월 18일		너 요즘 어때?_ 청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 특강5. 일상의 변화를 위한 상상력 · 특강6. 괜찮아마을 청년들의 기획 털어내기 · 함께하는 소통네트워킹 '라운드샵 쓰리'	박도빈(문화예술커뮤니티 동네형들) 홍동우(공작공장)
6월 25일		눈이 부시게_ 중장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 특강7. 생애전환기 예술교육 검진과 처방 받으세요! · 특강8. 자기의 민족지를 구성하는 '노년예술' · 함께하는 소통네트워킹 '라운드샵 포'	정민룡(북구문화의집) 고영직(문학평론가)



프로그램 진행 모습

01 차시 |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인생라운드#



▶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중요성의 인식을 통해 설정 가능한 현장방법론 소통

02 차시 |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동네형이 필요해!



▶ 정체성 혼란이 오는 사춘기 고민을 가진 아동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설정방안 소통

03 차시 |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너 요즘 어때?



▶ 무력감에 빠질 수 있는 청년들이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경험과 이를 삶과 매개하는 문화예술교육 방법론 공유

04 차시 |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눈이 부시게



▶ 은퇴 이후 신중년(50+)의 전환기를 해석하고 긍정적 세대 메시지를 생산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방법론 공유

2019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사업 창의예술교육연구소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인생라운드#>
참여자 만족도 조사

성별

연령대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직업

초등교사

중등교사

고등교사

예술강사

프리랜서

교육청/ 장학사

기타

본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셨습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과연계통합예술교육'에 대해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나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커리큘럼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본 프로그램의 교육시간과 기간은 적절하였습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본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합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를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1

2

3

1차시 |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정경운, 김월식

2차시 | <동네형이 필요해!> 양재혁, 김혜일

3차시 | <북한문화 누에> <팔복예술공장> 임승한, 황순우

4차시 | <눈이 부시게> 정민룡, 고영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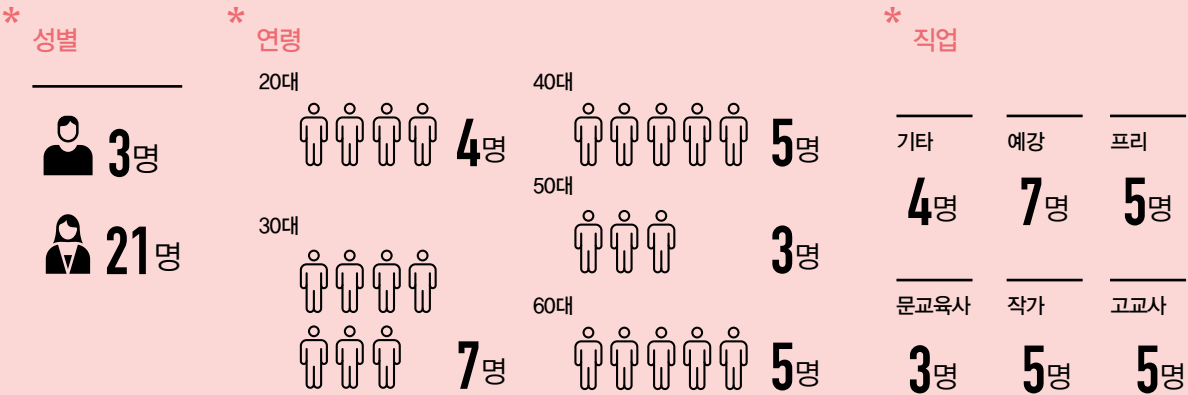
함께하는 라운드토크!

프로그램의 개선사항을 적어주세요

프로그램을 마친 소감이나 느낌을 적어주세요.

THANK YOU ♥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인생라운드#>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도조사 전체 결과표
성별/ 연령/ 직업/ 만족도 / 이해도/ 운영&과정/ 시간&기간/ 지속성/ 유익한강좌(순서대로)

여/40대/프리랜서	4 · 4 · 4 · 4 · 4 · 4,5,2
여/30대/기타	5 · 5 · 5 · 4 · 5 · 5,3,4
여/50대/프리랜서	3 · 4 · 3 · 4 · 5 · 4
여/40대/예술강사	4 · 4 · 4 · 4 · 4 · 4,1
남/40대/기타	5 · 4 · 5 · 5 · 5 · 4,2,3
남/60대/기타	4 · 4 · 4 · 4 · 5 ·
여/60대/프리랜서	3 · 4 · 3 · 4 · 4 · 3,2,1
여/20대/예술강사	4 · 4 · 4 · 4 · 4 · 4,3,1
여/20대/문화예술교육사	4 · 4 · 4 · 3 · 4 · 2,4,1
여/40대/기타	5 · 4 · 4 · 4 · 5 · 2,3,1
여/30대/기타	5 · 5 · 5 · 5 · 5 · 3,2,1
여/50대/예술강사	5 · 5 · 5 · 5 · 5 · 3,4,1

여/30대/문화예술교육사	4 · 3 · 4 · 4 · 5 · 2,1,3
여/40대/예술강사	3 · 3 · 4 · 4 · 3 · 3,2,5
여/30대/기타	4 · 4 · 4 · 4 · 4 · 3,4,2
여/20대/기타	5 · 5 · 5 · 5 · 5 · 3,4,2
여/60대/기타	5 · 4 · 4 · 4 · 5 · 1,3,2
여/30대/예술강사	5 · 5 · 5 · 3 · 4 · 3,4,1
여/60대/고등교사	4 · 4 · 4 · 3 · 5 · 2,1,3
여/20대/기타	4 · 4 · 4 · 4 · 4 ·
남/50대/프리랜서	4 · 3 · 4 · 4 · 5 · 1,3,2
여/30대/기타	5 · 5 · 5 · 5 · 5 · 4,3,1
여/30대/기타	4 · 4 · 4 · 5 · 5 · 3,4,1
여/60대/작가	5 · 5 · 5 · 5 · 4 · 2

창의예술 교육연구소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및 콘텐츠
개발·확산을 위한 연구모임 지원



02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 아이 엠 쌤

특강교육과 더불어 지역 문화공간 답사, 체험워크숍,
라운드테이블 등 현장밀착형 실무연수를 통해 통합예술교육
수업모델 및 자유학기제 ‘주제수업’을 연구 기획·
개발하고자하는 초·중등교사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론특강
· 학교현장 내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사례 및 방법론 논의
현장답사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공간 방문 및 워크숍 체험
· 지역문화자원(공간)을 활용한 통합예술장르와의 교과연계 활용법 특강
체험워크숍
학교에서 예술과 소통하고 관계하는 법 등을 통한 교과연계 통합예술체험
라운드테이블
조별활동 대표자와 지역 문화예술전문가가 함께하는 ‘라운드테이블 썰-戰’

사업개요

사업명	2019 창의예술교육연구소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 ‘아이 엠 쌤’
교육기간	2019년 8월
교육장소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 광산구 야호센터, 복합문화지구 누에(완주), 팔복예술공장(전주)
교육대상	초·중등교사
교육방법	이론특강, 체험워크숍, 현장답사, 라운드테이블



프로그램 내용

일정	시간	프로그램내용	강사
8월 6일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의 필요성 · 특강. 삶을 가꾸는 문화예술교육, 그냥 시작해요 · 특강&체험워크숍. 달과 그림자: 교과내용을 활용한 통합예술교육 사례발표와 실제	최윤철 (상복초) 유홍영 (극단사다리)
8월 7일	10:00 - 18:00	통합예술장르와 교과연계 · 지역문화예술교육 운영 공간답사 및 특강	김천웅 (야호센터) 이호동 (야호센터) 신희홍 (이움직임교육연구소)
8월 8일		지역문화자원(공간)과 학교교육의 연계 · 현장답사. ‘복합문화지구 누에’ · 현장답사&특강. ‘팔복예술공장’의 탄생과 철학	임승한 (복합문화지구 누에) 황순우 (팔복예술공장)
8월 9일		체험워크숍 및 라운드테이블 ‘썰-展’ · 체험워크숍. 나와 당신의 지형도 · 라운드테이블 ‘썰-展’	김현주 (A.C.클리나넨) 조광희 (A.C.클리나넨) 신희홍 (이움직임교육연구소)

프로그램 진행 모습

01 차시 |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의 필요성



▶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의 다양한 사례를 살피고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논의

02 차시 | 통합예술장르와 교과연계



▶ 통합예술장르(인문, 미술, 움직임 등) 워크숍을 경험하여 다각도로 창의예술수업의 방법론 연구

03 차시 | 지역문화자원(공간)과 학교교육의 연계



▶ 무력감에 빠질 수 있는 청년들이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경험과 이를 삶과 매개하는 문화예술교육 방법론 공유

04 차시 | 체험워크숍 및 라운드테이블 ‘썰-展’





▶ 은퇴 이후 신중년(50+)의 전환기를 해석하고 긍정적 세대 메시지를 생산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방법론 공유

2019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사업 창의예술교육연구소

교과연계통합예술교육 워크숍 <아이엠쌤>
참여자 만족도 조사

성별

☐  ☐ 

연령대

☐ 30대 이하 ☐ 40대 ☐ 50대 ☐ 60대

직업

☐ 초등교사 ☐ 중등교사 ☐ 고등교사

본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셨습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교과연계통합예술교육'에 관해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나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커리큘럼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본 프로그램의 교육시간과 기간은
적절하였습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본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합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를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1

2

3

1차시 | <삶을가꾸는문화예술교육> 최윤철, 유홍영
2차시 | <광산구 야호센터> 이호동, 김전흥, 신희홍
3차시 | <북함문화 누에> <팔복예술공장> 임승한, 황순우
4차시 | <나와 당신의 지형도> 김현주, 조광희, 신희홍

프로그램의 개선사항을 적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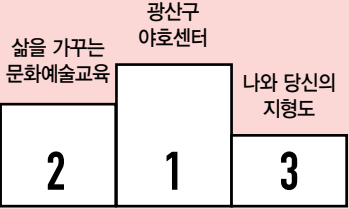
프로그램을 마친 소감이나 느낌을 적어주세요.

THANK YOU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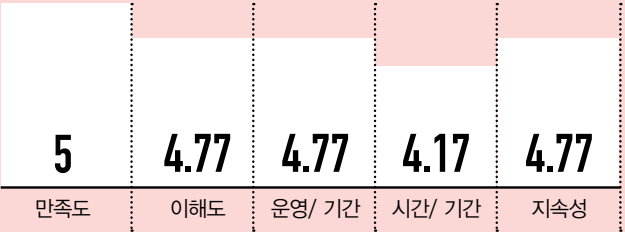
교과연계통합예술교육 워크숍 <아이엠쌤>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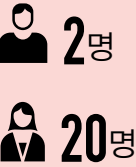
* 기억에 남는 강의
총점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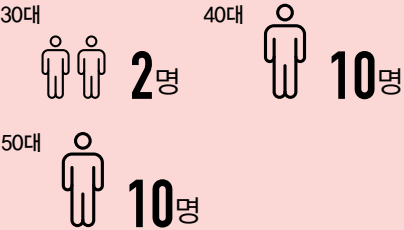
* 만족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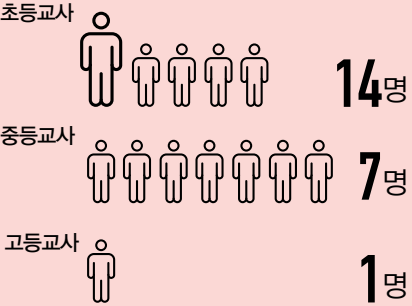
* 성별



* 연령



* 직업



* 만족도조사 전체 결과표

성별/ 연령/ 직업/ 만족도 / 이해도/ 운영&과정/ 시간&기간/ 지속성/ 유익한강좌(순서대로)

여/40대/초등교사	5 · 5 · 5 · 5 · 5 · 1,2,3,4
여/50대/중등교사	5 · 4 · 4 · 3 · 4 · 3,4,1
여/50대/중등교사	5 · 4 · 4 · 4 · 4 · 4,3,1
여/40대/중등교사	5 · 5 · 5 · 5 · 5 · 3,2,4
여/40대/중등교사	5 · 4 · 5 · 5 · 5 · 2,4
남/50대/고등교사	5 · 5 · 5 · 5 · 5 · 4,1,2
여/50대/초등교사	5 · 5 · 5 · 5 · 5 · 3,2,4
여/40대/초등교사	5 · 5 · 5 · 4 · 4 · 2,4,3
여/40대/초등교사	5 · 4 · 4 · 3 · 4 · 2,1,4
여/30대/초등교사	5 · 5 · 5 · 5 · 5 · 2,4,1
여/40대/초등교사	5 · 5 · 5 · 5 · 5 · 1,2,3,4

여/30대/초등교사	5 · 5 · 4 · 4 · 5 · 4,2,1,3
여/50대/초등교사	5 · 5 · 5 · 5 · 5 · 2,1,4
남/50대/초등교사	5 · 4 · 4 · 5 · 5 · 2,3,1
여/50대/중등교사	5 · 5 · 5 · 5 · 5 · 3,1,2
여/50대/중등교사	5 · 5 · 5 · 5 · 5 · 2,4,1
여/40대/초등교사	5 · 5 · 5 · 5 · 5 · 4,2,3
여/40대/초등교사	5 · 5 · 5 · 5 · 5 · 1,4,2
여/40대/초등교사	5 · 5 · 5 · 5 · 5 · 2,3,1
여/40대/초등교사	5 · 5 · 5 · 5 · 5 · 1,2,3
여/50대/초등교사	5 · 5 · 5 · 5 · 5 · 1,2,3,4
여/50대/초등교사	5 · 5 · 5 · 4 · 4 · 2,1,4

창의예술 교육연구소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및 콘텐츠
개발확산을 위한 연구모임 지원



03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연구모임 서로 배움

특강교육과 더불어 지역 문화공간 답사, 체험워크숍,
라운드테이블 등 현장밀착형 실무연수를 통해 통합예술교육
수업모델 및 자유학기제 ‘주제수업’을 연구 기획·
개발하고자하는 초·중등교사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지혜력을 서로 가르치고 배운다

: 학교교사와 예술강사 협업구조로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활용될
수 있는 연구 · 콘텐츠 개발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를 꿈꾸다

: 생애전환시기의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연구 · 콘텐츠 개발

이슈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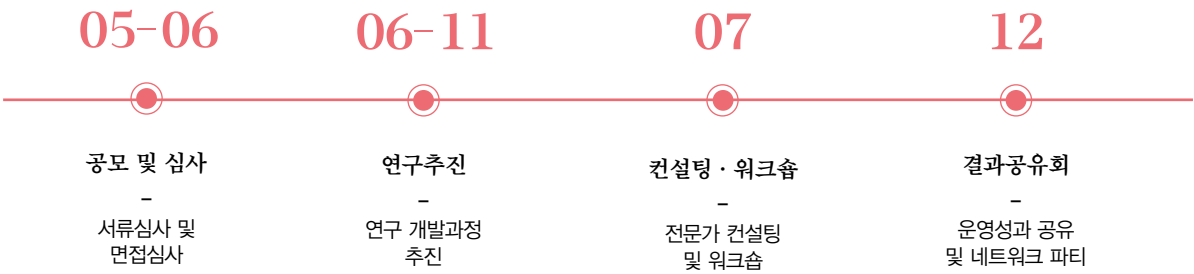
세상의 모든 것과 만나 소통한다

: 광주 문화예술교육의 고민이나 현장, 사회이슈 등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연구 · 콘텐츠 개발

사업개요

사업명	2019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연구모임 ‘서로 배움’
사업기간	2019년 5-11월
사업비	30,750,000원
지원대상	연구과정 추진가능한 문화예술교육단체 및 교사·예술가
사업내용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연구비 및 컨설팅 지원

추진일정



공모선정

공모 및 선정

광주 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및 연구가 가능한 1개 이상의
컨소시엄 형태의 단체 및 3~5인 내외의 개인으로 그룹을 구성하여
실제 연구과정을 추진할 수 있는 모임 선정

컨설팅 · 워크숍

전문가와 연구모임 구성원들이 모여 실현가능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과정을 위해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추후
연구방향을 논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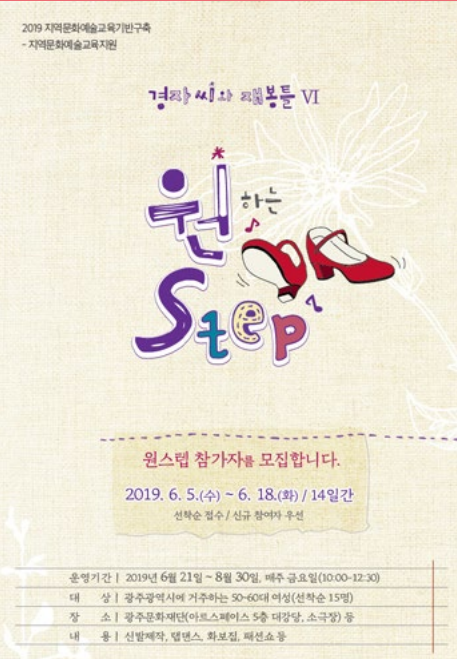
성과공유회

연구모임의 최종 진행과정을 회고하는 자리와 더불어 성과공유를
통해 내년도 사업방향성을 논의함

운영모임

유형분류	개인/모임명	연구명
이슈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청뜰	눔: 놀이제작 연구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허니펀치	광주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한 미디어교육 〈내 손안의 광주〉프로그램 개발연구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유수영	우리가 삶의 주인!!
이슈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박하나	잠백담백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양지애	바느질로 엮는 책;한복과 책의 만남을 통한 생애전환교육 프로그램 연구
이슈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예륜협동조합	유리표현기법‘글라스페인팅’연구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	봉운덕	마을이 학교? - 지역연계 학교문화예술프로그램 연구
이슈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김태희	더 깊은 문화예술적 사유를 위한 라이프 노트 개발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01

경자씨와 재봉틀VI 경자씨의 원(하는)스텝

경자씨와 재봉틀은 센터의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한 사람을 위한’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으로, 지난해 시즌 〈청춘콜렉션〉에 이어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경자씨의 원스텝〉은 신발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내가 신고 싶은, 내가 꿈꾸는 신발을 디자인하면서 다가올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좋은 신발이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후반기의 출발점에서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이름으로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을 그녀들을 위하여 원-스텝

강사진

기획: 추현경 강사: 김지현, 김자이

특강강사

발 테라피: 백지은, 소금 테라피: 박지요, 미디어아트: 김자이
인문학: 김천웅, 드로잉: 김희련, 투어: 김향순, 탭댄스: 김호준

신발제작: 노틀담(임중찬)

사업명	2019 경자씨와 재봉틀VI '경자씨의 원스텝'
사업기간	2019년 5-8월
사업비	18,600,000원
참여대상	50~60대 여성

프로그램 내용

일자	제목	내용	장소
6월 21일(금)	나는 경자씨입니다.	· 오리엔테이션&몸 활동 · 시 낭송: 발에 대한 묵상(정호승) · 발 테라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6월 28일(금)	경자씨는 도로시?	·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겁많은 사자 이야기 · 경자씨의 지혜, 열정, 용기를 북돋기 위한 소금 테라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7월 5일(금)	경자씨를 알고 싶다면	· 몸놀이(리본으로 그리기) 후 암실에서 '나의 길' 빛으로 그리기 · 책 '하늘을 나는 사자', '고래가 보고 싶다면' 함께 읽고 경자씨의 인생 이야기 나눔	빛고을아트스페이스
7월 12일(금)	영화감상&신발 속 인문학	신발 관련 영화 '코블러', '킨키부츠' 보고 이야기 나누기 신발+인문학, 인문학적으로 바라본 신발의 의미, 타인의 인생 살펴보기	빛고을아트스페이스
7월 19일(금)	경자씨의 빨간구두 I	· 내 발 드로잉 · 내가 신고 싶은 신발 디자인하기 · 디자인한 신발 설명하기	빛고을아트스페이스
7월 26일(금)	경자씨의 빨간구두 II	· 경자씨의 미래를 함께 할 신발 만들기 · 치수재기, 디자인 소재 정하기 · 신발공장 탐방	동구 충장로 '노틀담'
8월 2일(금)	경자씨와 양림산책	양림동 서서평길투어 ※조선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글과 기술을 가르쳐 세상에 홀로 설 수 있게 한 서서평의 삶을 통해, 오늘의 여성은 '나'로 사는 방식을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남구 양림동 일대
8월 8일(목)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I / II	· 도로시를 집으로 데려다 준 건 도로시가 신은 빨간 구두, 빨간 구두로 세 번 탁! 탁! 탁! · 탭댄스 배우기	동구 충장로 '커먼타임'
8월 16일(금)	경자씨의 화보촬영	완성된 구두를 신고 화보촬영	남구 양림동 우일선 선교사 사택
8월 23일(금)	경자씨의 원스텝	· '눈이 부시게' 전시 · 내 삶의 주인공, 경자씨의 패션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기획의도

2019년도에는
경자씨가 원하는 스텝으로...

기획자 추현경

‘한 사람을 위한 문화예술교육-경자씨와 재봉틀’ 프로그램이 2019년 올해 6년차가 되었습니다. 10여년 전과 후, 50대 중년을 비교해 보면 50대의 여성들의 삶도 많은 변화가 있는 듯 합니다. 지금의 50대는 ‘신중년’이라 하여 사회활동 욕구가 넘치고 자신을 드러내며 새롭게 시작하는 또 다른 출발선에 있는 거 같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온 삶에서 경자씨 ‘나’라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출발선에 서 있는 경자씨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새롭게 ‘나’의 길을 걷는 경자씨들과 ‘신발’이라는 매개체로 경자씨들의 ‘나’의 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자씨는 도로시?’

집을 가는 방법을 묻기 위해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는 도로시는 황금길을 걸으며 ‘겁 많은 사자’, ‘심장을 원하는 양철 나뭇꾼’, ‘지혜를 갖고 싶은 허수아비’를 만납니다. 경자씨들도 자신의 삶을 걸어오며 때로는 자식이나 남편을 위해 뜨거운 심장을 양보해야 했고, 하고 싶은 꿈이 있었으나 용기가 나지 않아 도전하지 못했고, 자신을 위해 배우고 싶었으나 삶의 우선순위에 밀려 시도해보지 못하기도 했을 겁니다.

도로시는 자신의 집을 찾아가는 방법을 드려 알아냈죠! 자신이 이미 신고 있던 빨간 구두를 ‘탁!~ 탁!~ 탁!~’ 세 번 내려치는 것이었습니다.

‘탁!~ 탁!~ 탁!~’

경자씨도 자기 걸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면 이미 경자씨 마음속에 있는 빨간구두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탁!~ 탁!~ 탁!~ 소리를 내보세요.

‘경자씨와 재봉틀’의 6회차는 여기까지 걸어온 애 쓴 내 발에 감사하며 마음속에 있는 빨간 구두를 꺼내어 나의 길을 걷기 위한 ‘경자씨의 윈스텝’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한 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경자씨들은 환하게 피기 전 반짝이는 꽃봉오리 같았습니다. 반짝이는 것을 자세히 보았더니 그 동안 숨차게 걸어온 땀 같기도 하였고 앞으로 피어날 꽃에게 주는 이슬 같기도 하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흘렸던 소중한 귀한 땀방울!

나로 피어나기 위해 힘껏 힘을 주는 꽃봉오리에게 주는 이슬!

그 반짝이는 경자씨들의 걸음에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과 지지해주는 흙과 같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경자씨와 재봉틀을 마무리하며
느낀 일상의 변화들



남은 일생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의 자세에 즐거움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힘을 얻었습니다.

유익했어요!

나 자신이 주인공
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삶의 활력소가 되어 일상이
행복해졌고 나의 즐거움이
주변에 행복으로 변지는
느낌도 좋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던 60~50대
주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주부들이
너무 행복해보이고 저 또한
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발과
나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생기 있어지고,
금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준비된 교육내용에 만족해서
삶 속에서도 크나큰 활력소가
되어 행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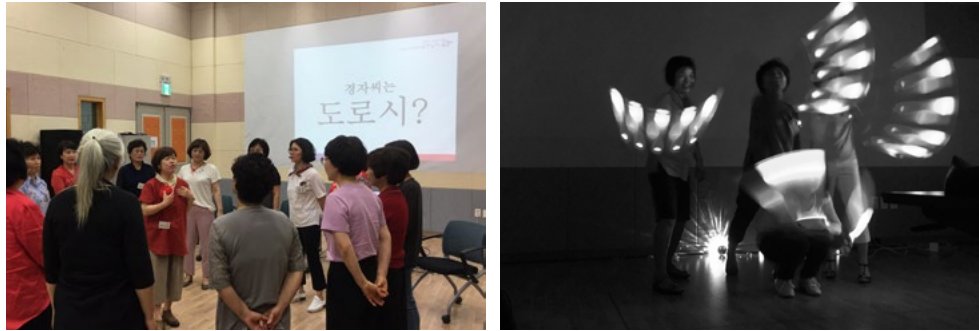


프로그램 진행 모습

01 차시



02 차시
- 03 차시



05 차시
- 06 차시



07 차시

- 08 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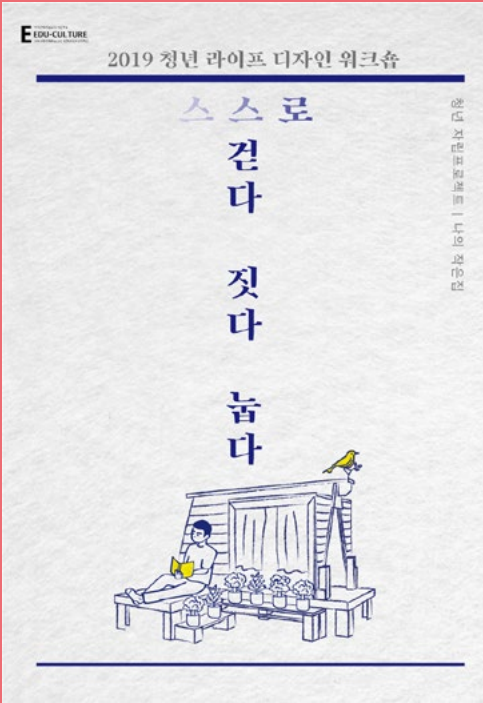


09 차시

- 11 차시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02

청장년인생설계학교 청년라이프디자인워크숍

청년라이프디자인워크숍 청년자립프로젝트는 산업사회 이후 일과 의식과 삶의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부분적, 파편적 삶으로 전락해버린 청년의 삶을 인문적 사유를 통해 의식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창조적 감각을 깨우며,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일상 속에서 통합적 삶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강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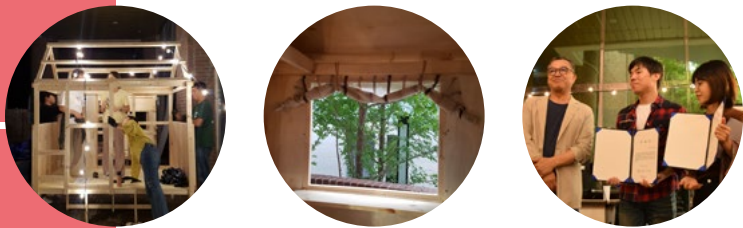
기획자: 김천웅 청년기획자: 김태희, 남인우, 윤혁, 임지성
특강강사: 박활민, 신희홍

사업개요

사업명	2019 청년라이프디자인워크숍 청년자립프로젝트
사업기간	2019년 7월 - 9월
사업비	28,000,000원
참여대상	청년 20인 내외

프로그램 내용

일자	제목	내용	담당/장소
7.23(화)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 오리엔테이션 - 특강 김천웅	빛고을아트스페이스
7.27(토) ~ 7.28(일)	라이프 디자인워크숍 Level.1 _걷다&앉다	- 1박 2일 워크숍: 연남동 잇다 갤러리, 라이프디자인연구소 및 안산, 봉제산 일대 • ‘Dear Mountain ; 도대체 이토록 작고 시시한 고독은 왜 자꾸 오는가’ 전시관람 • 특강: 라이프 디자인이란 무엇인가?_ 박활민 • 활동 1) 통합 의식 디자인1-걷다: 산책, 숲 경험 등 2) 통합 의식 디자인2-앉다: 의자제작 3) 통합 의식 디자인3-다시 걷다: 산책 및 명상	서울, 안산
8.5(월)	삶의 전환을 이야기하다1	• 도서: 작은 집을 권하다(다카무라 토모야) • 내 삶에 관한 이야기 나눔 • 강독 및 토론	빛고을아트스페이스
8.12(월)	삶의 전환을 이야기하다2	• 활동: 조별프로젝트 시작 - 집 디자인 및 제작 앉고, 눕고, 거할 의자, 집, 거주 공간 구상하고 디자인 하기 • 활동: 텃밭 디자인	빛고을아트스페이스
8.24(토) ~ 25(일)	라이프 디자인워크숍 Level.2_눕다	- 1박 2일 워크숍 • 특강 및 활동: 통합 의식 디자인4-눕다 자립프로젝트: ‘집 만들기’ (나무를 재료로 작은 집을 디자인하고 제작)_ 박활민 • 특강: 내 몸 알아차리기 - 신희홍	문화예술작은 도서관 앞
9.2(월)	자립 프로젝트1	• 집 디자인 보완 및 보고서(Zine)작성 • 활동: 텃밭 제작 및 관리	문화예술작은 도서관 앞
9.9(월)	자립 프로젝트2	• 집 디자인 완성 및 보고서(Zine)완성 • 특강: 청년공동체 및 청년문화기획 사례 • 활동: 텃밭 관리	문화예술작은 도서관 앞
9.28(토)	결과 공유회	• 프로젝트 결과물(또는 과정물) Zine(의식기록노트)으로 제작(북바인딩 포함) • 프로젝트 결과물 발표 및 전시	문화예술작은 도서관 앞



기획의도

광주문화재단 ‘청년라이프디자인’을 진행한 후

총괄 기획자 김 천웅

기획 - 미리(Pro), 던져보고(ject), 계획(plan)하고, 그려(design)보는 놀라운 일

기획이란 ‘미리 투사해보는 일’이다. 인간이 가진 능력이운데 놀라운 힘이다. 아직 드러나고,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영역에 있는 일을 미리 그려보고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신은 인간에게만 주었다.

그렇기에 ‘기획’은 쉽지 않지만 설레이고 기대되는 일이다.

먼저 함께 할 사람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선생(先生)이어야 했다. 먼저 본 자, 먼저 걸어가 본 자, 먼저 몸으로 살아본 자, 그가 선생이며 스승이다. 나에게는 단 한 사람만이 떠올랐다. 박활민 선생님, 자신의 만든 언어로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며 사는 사람, 그를 만나기 위해 바빠 짐을 꾸려 서울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활’은 작다. 몸이 작다. 그는 작아야만 했을 것이다. 허虛하지 않고, 실失하게 담아내기 위해서 그는 작아야만 했을 것이다.

‘활’은 깊었다. 그의 눈과 몸은 천천히 그리고 진중하게 움직였고 에너지가 차 있었다. 무엇보다 내가 접한 그의 공간은 그의 삶과 일치를 이루고 있었다. 그가 머무는 공간은 작고 고요했으며 그럼에도, 변화와 실험이 진행중이었다.

‘활’의 움직임은 고요했다.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도 그는 자주 지긋이 눈을 감았으며, 낮고 느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홀로 오래 머문자가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분위기였다.

나는 그가 본 세계의 이야기에 귀기울였고, 그 또한 나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활’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말하는 귀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말이 어디서 왔고, 무슨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을 내뱉는가를 알기에 ‘활’의 말은 귀하다. ‘활’은 먼 곳을 자주 응시했다.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지만 나아갈 자리와 다가올 세상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 세상은 혼자를 넘어서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세상이라. 활은 건강하지만 아픔을 안고 있었다.

자신이 건강한 자라야만 타자의 아픔을 돌볼 수 있다.

이야기는 새벽이 깊도록 이어졌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시 이야기는 이어졌다.

- 2019년 6월 24일, 박활 선생님을 만나고 와서

‘청년인생자립프로젝트’ 아니, ‘통합의식전환프로젝트’를 미리 상상하고, 그려보고, 던져보는, 기획이 시작되었다.

진행>> - 열매가 열리려면 뜨거운 ‘열음’의 태양빛이 필요해.

scene # 1.

태풍의 끝자락이 아직 한반도에 머물러 있는 7월의 마지막 주말. 첫 번째 1박 2일 워크샵이 시작되었다. 서울의 태양은 뜨겁고 대지는 습했다. 대도시 서울에서도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는 강서구, 비탈진 길을 한 무리의 청년들이 걷고 있다.

줄줄 흘러내리는 땀이 불쾌지수를 높이고 있었다. 10여분을 걸어서 도착한 봉제산의 초입길. 거짓말처럼 도심 한가운데에 우거진 초록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었다. 산에 오르기를 다시 10여분. 땀은 계속 흘러내렸다. 곧이어 평평한 산중턱이 나타나고 가져온 돗자리를 깔고 앉고, 눕고, 눈을 감았다.

선선한 바람에 기분 좋게 땀이 식어가자 온 몸이 점점 편안해졌다. 시선을 들자 나무들 사이로 쏟아지는 햇볕이 찬란했다. 이곳 숲에서 지내는 새들의 지저귀음이 들려왔다. 다른 세상이었다. 맨 처음 인간이 왔던 곳은 저 아래 도시가 아닌 바로 이곳임이 느껴졌다. 번잡한 일상에서 소진된 기운을 북돋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몸으로 배웠다.

내 눈을 내가 감아서 나의 허락도 없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이미지와 이야기를 차단하는 방법을 배웠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잡한 도시의 한 중심에서.

scene # 2.

4번째의 만남이 이어지던 월요일 저녁. 문화재단 5층 소강당. 청년들은 손가락을 바빠 꼬물거리며, 약간은 주저하며 사뭇 부끄러워하며 먹을거리를 꺼내어 테이블위에 놓는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몸을 움직여 손수 만들어진 간식거리들이다. 자립은 내 몸을 움직여 내 삶의 시간을 채워가면서부터 시작된다. 가슴에 갇든 시간만이 삶의 시간이 된다. 자신의 작품을 앞에 놓고 수줍게 창작스토리도 주섬주섬 꺼내어본다. 20여명이 가져온 1인분씩은 모두가 눈으로, 귀로, 가슴으로 맛있고도 배불리 먹기에 충분했다.

scene # 3.

본격적인 작은집 짓기가 시작되었다. 전동드릴을 뺀 나머지 도구는 내 온 몸을 움직여서 작업을 해야 할 알날로그 도구들이다. 난생 처음 목재의 치수를 재고 줄을 긋는다. 생애 처음으로 톱질을 해 본다. 정성들여 각도를 재고, 정성들여 재단을 하지 않으면 다른 목재와 아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각자 자신의 작업에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전체의 합이 틀어진다는 걸 알아간다. 무엇보다 내 집을 짓기 위해 몸을 움직여 노동을 한다는 게 낯설면서도 즐겁다. 이제껏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과 감정이 오래전부터 내 안에 있었음을 알아차린다.

scene # 4.

작은집 3채가 완성되어 바깥 마당에 자리를 잡았다. 바라보면 볼 수 록 신기하고 애정이 생긴다.

여행이 끝나고 >> - 나는 건축가로서 건물을 다 지음으로서 건축가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건축의 완성은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자신의 삶을 살아냄으로서 가능하다.

20여명의 청년들이 ‘라이프디자인’이라는 기차를 타고, 볼 것 가득한 봄의 역에서 출발해 마음과 의식을 열어젖히던 열음을 지나 가을의 종착역에 내렸다. 10주간의 여행이 끝났다. 모든 여행이 그러하듯 결국, 여행의 끝은 자신이 머물던 집, 자신의 발자국이 가장 많이 찍힌 일상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바라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흔쾌히 어깨에 지고서 살아가다가 지치거든 숲으로 산책을 떠나고, 번잡하게 하루를 사느라 힘이 들때면 혼자만의 공간으로 물러앉아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서 마음의 날씨를 묻고 확인하고 자신의 의식을 들여다보리라 믿는다. 가끔은 소비를 멈추고 내가 만든 음식과 내가 만든 그 무언가를 친구와 가족과 이웃들과 나누며 한껏 웃어젖히는 청년의 얼굴을 상상해본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떠난 여행도 돌아와보면 몇 가지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그 아쉬움을 반추해보는 일도 여행을 떠났었기에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이 틀림없다.

이번 여행에서 아쉬운 점은 두 가지이다.

먼저는 여행을 떠나기 전 시간여유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다. 그랬더라면 조금 더 행장을 탄실하게 꾸렸으리라. 또 한 가지는 여행기간의 짧음이다. 3번 정도의 만남만 더 있었으면 시간에 덜 쫓기고 사유의 시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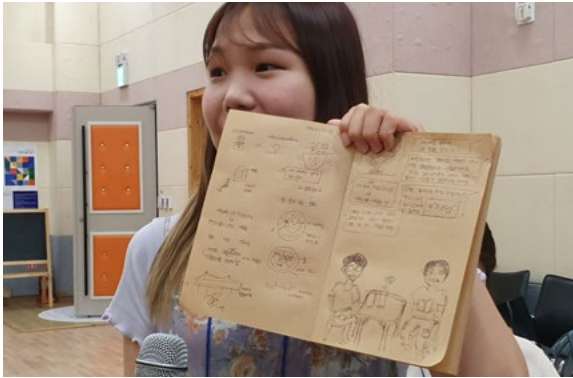
함께 한 사람들 - 멋지게 탕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하지!

이 지면을 빌어서 고마운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하고 싶은 이들이 있다. 시민들의 메말라 가던 삶이 문화예술교육의 단비에 젖어 촉촉해지는 기쁨을 창출해내는 사람들이다. 문화예술교육팀의 사령탑이며 오랫동안 지역사회의 보배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정혜영 팀장님.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의 제반 준비를 도맡아 해주고, 무엇보다 청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준 (본인들도 청신한 청년이기에 ^^) 정윤정 선생님, 김 원 선생님.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들려서 살펴주고 응원해주고, 바쁠 때는 즐거이 손을 보태주던 팀원분들. 아무리 좋은 요리라도 담겨질 그릇(어울리게)이 없으면 그 가치는 빛을 발하기 힘들다. 변변찮은 요리를 내놓은 기획자의 메뉴를 담아낼 그릇을 아름답게 빚어내준 이 분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멋진 탕고를 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바람에 다소 무리한 스텝을 밟았음에도 최대한 유연하게 수용해주고 조율해주며 탕고의 스텝을 맞추고 헤아려준 그 마음은 오래 기억될 것이다.

※이 내용은 ‘청년라이프디자인워크숍’ 결과자료집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임

프로그램 진행 모습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03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지영씨의 인생부록

지영씨의 인생부록은 출산과 육아로 생애변곡점을 맞은 30~40대 여성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본지에서 모두 담아내지 못한 이야기들을 엮은 별책부록처럼 삶 속에서 다 풀어내지 못한 지영씨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인생의 부록을 엮고자 시작되었습니다

강사진

연구원: 천윤희 보조연구원: 최고운
특강강사1, 5차시 진행: 임아영 3차시 진행: 김희진

사업개요

사업명	2019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지영씨의 인생부록'
사업기간	2019년 10월 - 11월
사업비	16,786,000원
참여대상	30~40대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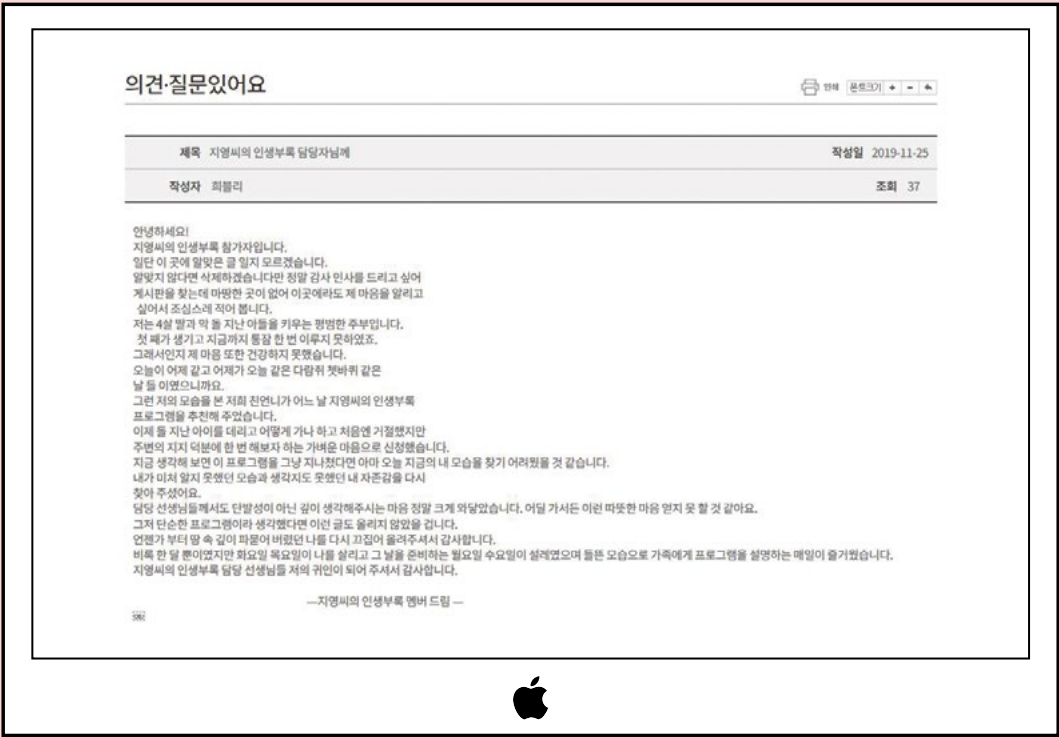


프로그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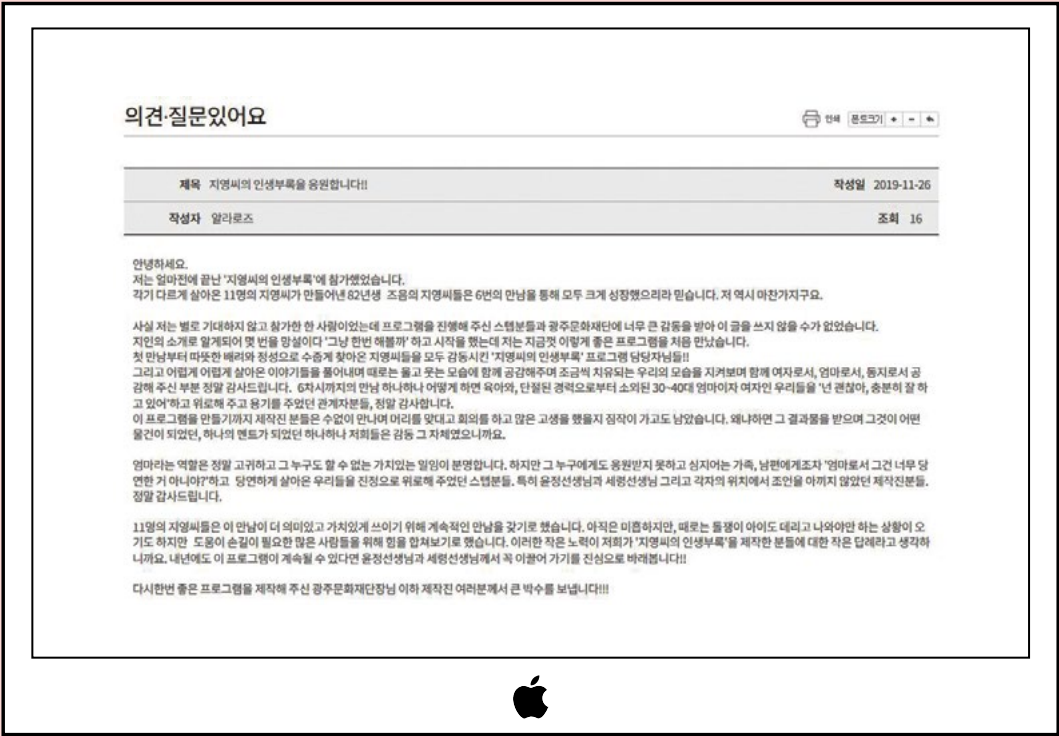
일자	제목	내용	장소
11. 5.(화)	반가워요, 지영씨	· 프로그램 안내 및 인사 · 참가자들의 일과, 주과 쓰기 · 서로의 안부묻기	빛고을아트스페이스
11. 7.(목)	82년생 김지영 - 너의 의미	· 영화 82년생 김지영'함께보기 · 감상 후 본 소감 나누기	동구 충장로
11.12.(화)	지영씨를 위한 처방전 - 나의 의미	이 시대 '지영씨'들을 위한 인생 지침서 인문학 강의_ <돌봄인문학>저자 김희진 작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11.14.(목)	나의 마음 들여다 보기	· 심리상담 워크숍 · 스스로의 마음상태를 확인하는 '마음열기'	빛고을시민문화관
11.19.(화)	이력서 쓰는 아침 - 나는 나의 매니저	· 취업을 위한 이력서가 아닌 지금까지 내 삶을 드러다 볼 수 있는 이력서 작성해 보기 · 내가 해왔던 일들,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줄 이력서 쓰기_ 특강 임아영	빛고을아트스페이스
11.21.(목)	응원해요, 지영씨	· 상장 수여식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추후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위한 의견 수렴	빛고을아트스페이스

프로그램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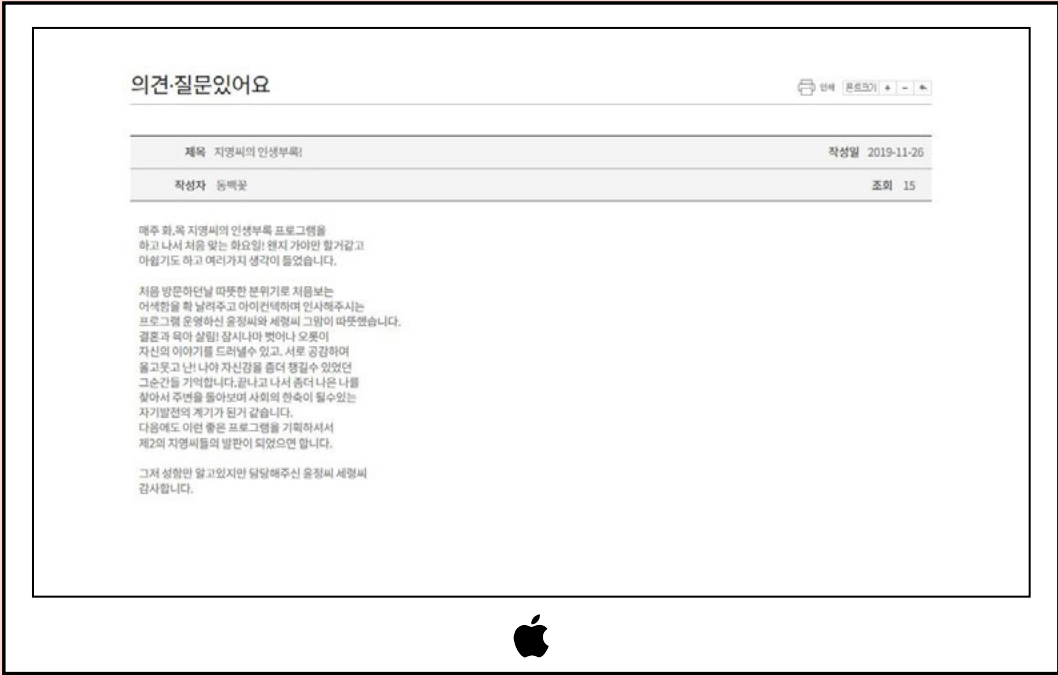
※아래 글은 프로그램 마친 후 참가자들이 광주문화재단 게시판에 남겨주신 소중한 글 모음입니다.



작성자 | 희블리님



작성자 | 알라로즈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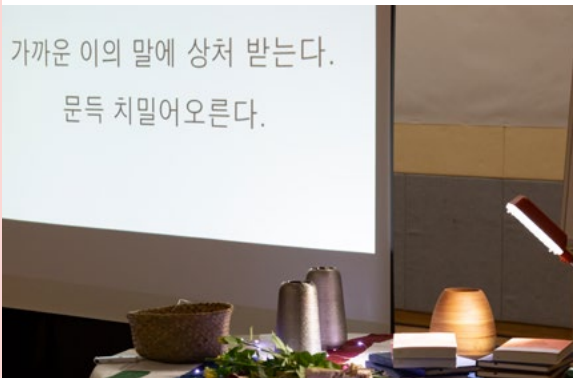


작성자 | 동백꽃님



작성자 | baramir님

프로그램 진행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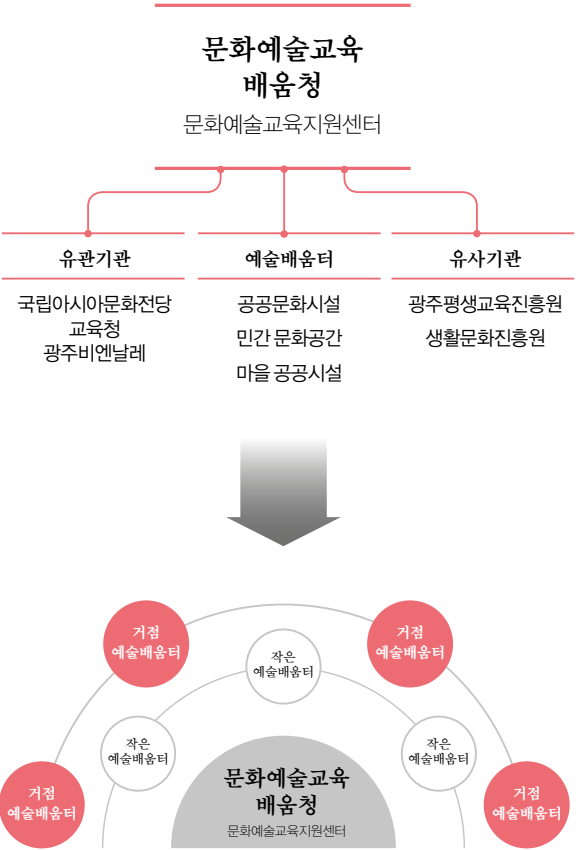


거점예술배움터 조성 예술교육 살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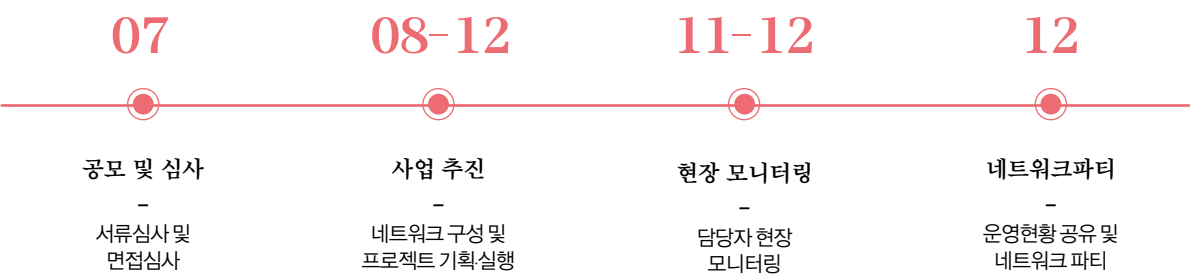
시민의 생활권역 내에 있는 지역 문화공간에서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거점배움터 조성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거점예술배움터 ‘예술교육살롱’은 광주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의 네트워크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전반에
문화예술 거점마련을 위해 ‘예술교육살롱 마담(MA談)’과
지역 활동가들이 모여 5개 자치구에 특화된 콘텐츠
를 제안하거나 자원을 발굴함으로써 그들만의 동네 문화를
발견하고 새로운 이슈를 형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명	2019 거점예술배움터 조성사업 ‘예술교육살롱’
사업기간	2019년 8-12월
사업비	70,000,000원
지원대상	거점공간이 있는 광주지역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및 기관
사업내용	우리 동네 문화예술 커뮤니티 구성 및 방향을 논의하는 살롱 운영 및 코디네이터 마담(MA談) 인력지원



추진일정



공모선정

각 자치구의 특화된 문화자원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방향을 적극 논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단체 및 기관 선정

사업추진

지역 내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 간 협력운영 형태로 지역 문화포럼,
마을축제 프로젝트, 지역별 특화 브랜드 발굴 등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추진을 위한 살롱 운영

네트워크파티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회고하는 자리와 더불어 각자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향을 제안하고 공유함

운영기관

자치구분류	기관명	사업명
광산구	테이움직업교육연구소	salon de modoo
남구	광주봉선청소년문화의집	퍼니퍼니 켄처넷
동구	문화콘텐츠그룹 (쥬잇다)	동쪽으로 떠나는 두 번째 스무 살 여행
북구	북구문화의집	예술교육아지트 ‘북구인사이드’
서구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유어플레이그라운드 Your Playground

프로그램 진행 모습



문화예술 교육축제



01

놀 때가 제일 좋아! 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

아트날라리 '놀 때가 제일 좋아!'
는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대표 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의 일환인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동네예술배움터 광주Re와
토요문화학교-주말예술배움터 사업을 운영하는 39개 단체가
함께 만들고 참여하였습니다. 운영단체 스스로 기획단을
구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 전시, 체험
등 59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문화예술교육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사업명	2019 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 '놀 때가 제일 좋아!'
일시장소	2019년 10월 5일(토),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
참여대상	39개 지원사업 운영단체 및 광주시민 1,700명
기획단	신희홍(테이움직업교육연구소) 추현경(함께크는나무협동조합) 양중희(땅콩나무문화예술협회) 김윤미(실내악단 마하나임) 이은나(여디디아)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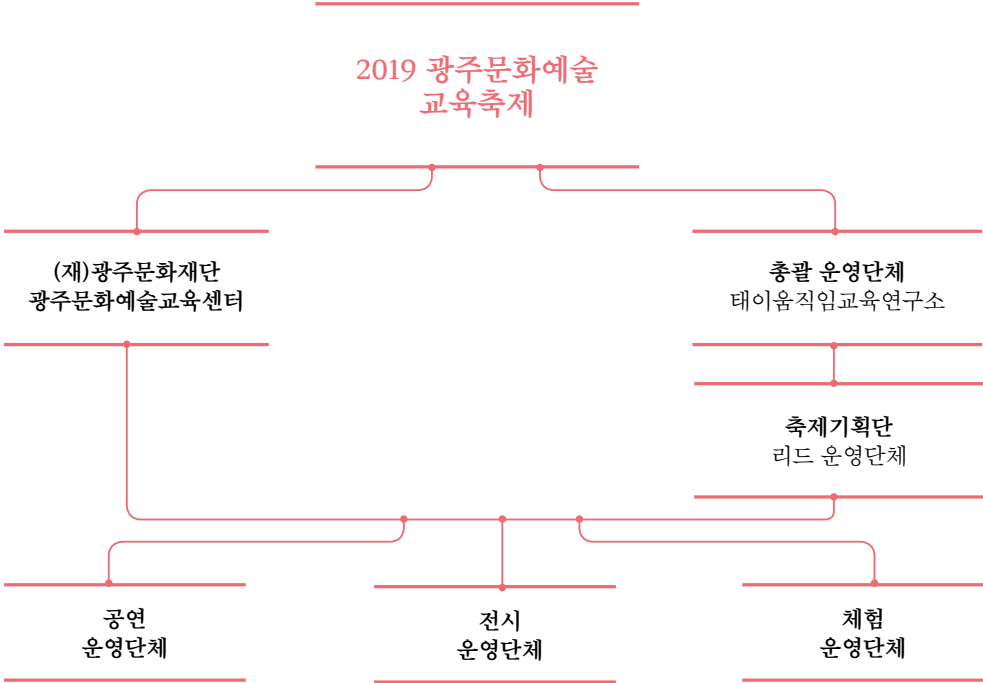
>2016	>2017	>2018
광주문화예술교육축제 모여라 아트날라리	광주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 놀 때가 제일 예뻐!	광주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 나나노!
-	-	-
2016. 10. 21(금) ~ 22(토) 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2017. 10. 21.(토) 빛고을시민문화관 앞마당	2018. 10. 20.(토) 빛고을시민문화관 앞마당

기획의도

2016년 광주문화예술교육축제 '모여라 아트날라리'
시민들의 문화예술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광주형
문화예술교육 과정 제시, 지원사업 운영단체의 활동성과 공유
및 네트워크 장 마련 자체 홍보 부스 및 전시공간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향후 비전 제시

진행

- 총괄기획
신희홍(테이움직업교육연구소)
- 기획
공연 : 김윤미(실내악단 마하나임)
전시·체험 : 추현경(함께크는나무협동조합)
양중희(땅콩나무문화예술협회)
이은나(여디디아)
- 코디네이터 : 김주완, 김태희(테이움직업교육연구소)



프로그램 진행 모습



문화예술 교육축제



02

망치와 톱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보는 3일 예술캠프
어린이목수축제

목공기술을 활용하여 일곱 명의 지역의 예술가와
함께 우리들만의 미래학교를 만들어가는 노작형
예술캠프입니다.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적정 기술 습득과정부터 해체하는 노동 경험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및 협업하는 공동작업의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똑딱똑딱
상상력의 소리가 고스란히 들리는 어린이목수축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감성을 일깨워주며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사업명	2019 어린이목수축제
사업기간	2019년 10월
사업비	60,400,000원
참여대상	광주지역 초등학교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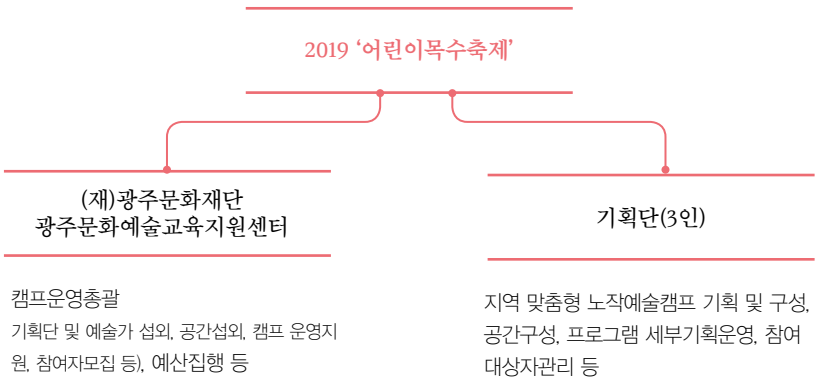
>2015	>2016	>2017~2018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시즌 10 어린이놀이터 I — 비엔날레전시장	예술캠프 어린이놀이터 II 시청이놀이터야? — 광주시청1층 시민홀	예술캠프 어린이놀이터 III, IV 어린이목수축제 — 시립미술관 앞마당

기획의도

-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캠프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위해 기획단을 구성하여 전체 콘셉트 및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맞춤형 노작예술캠프 기획
- 단순 체험캠프가 아닌 노동과 놀이의 가치를 깨달으며
스스로 고민하고 행동하고 타인과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선사함

일시장소	10월 4일(금)-6일(일), 3일 간 ※출퇴근형 캠프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 일대
참여인원	광주지역 초등학교 4-6학년 75명
기획단	정민룡(북구문화의집 관장) 이세현(지역작가) 백 민(놀이패신명)

진행



프로그램 진행 모습



프로그램 진행 모습



통신원제 및 허브사이트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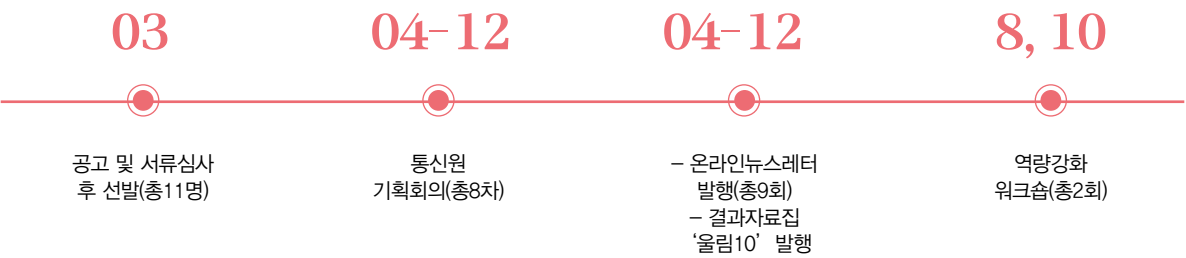
사람과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연결하다

통신원제 및 허브사이트 운영사업은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지역의 청년들을 통신원으로 선발해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해, 매월 뉴스레터 올림을 온라인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DB구축을 통해 홈페이지에 아카이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2019 통신원제 및 허브사이트 운영사업
사업기간	2019년 3-12월
사업비	30,000,000원
통신원	문화예술교육 현장 글쓰기와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광주시 거주자



추진일정



10기 통신원을 소개합니다.



사업운영

03-12 사업기간	광주시민 사업대상	광주전역 사업장소	30,000천원 사업예산
9명 통신원	104건 취재	9회 정기회의	2회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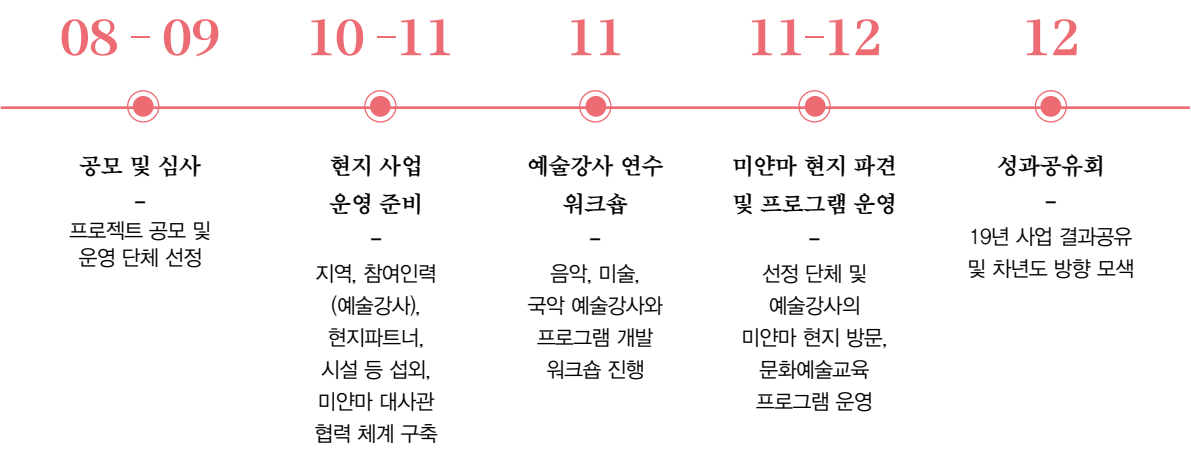
문화 예술교육 ODA

광주 정신의 가치를 담은 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ODA 프로젝트

광주문화예술교육 ODA 프로젝트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향점인 “민주” , “인권” , “평화” 의 광주 정신의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개발도상국가에 보급, 소통하고 아시아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센터는 ODA 프로젝트를 운영할 문화예술교육단체 “문화공동체 아우름” 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고, “문화공동체 아우름” 은 예술강사 워크숍을 통해 음악+미술+무용이 결합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11월 말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10 일 동안 미얀마를 방문, 만달레이시 국립문화예술대학교와 양곤시 Yellow Generation Wave 시설 대상으로 Pilot 형태의 ODA 프로젝트 운영하였고, 문화예술교육을 미얀마에 보급 · 확대하는 가능성을 모색해보았습니다. 광주문화예술교육 ODA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과 광주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기대해봅니다.

사업명	2019문화예술교육 ODA 프로젝트 “광주문화예술교육 미얀마를 가다”
사업기간	2019년 9~12월
사업비	40,000,000원
지원대상	문화예술교육 ODA 프로젝트 기획 및 진행할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추진일정



사업운영



사업대상

국 가	지 역	예술강사	현지파트너	참여자
미얀마	만달레이시, 양곤시	조서인(음악), 신희홍(무용), 김옥진(미술)	조모아(개인), SEVEN PLUS(팀)	만달레이시 국립문화예술대학교 대학생, 양곤시 Yellow Generation Wave 시설 어린이, 청소년 약 150명

프로그램 진행 모습



기반강화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동네예술배움터 광주Re
토요문화학교 주말예술배움터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2019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모음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동네예술
배움터
광주Re

삶의 터전인 지역과 삶의 주인공인 나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광주문화예술교육 자원의 결집·실험·성장을 이루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주민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명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 동네예술배움터 광주Re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업비	300,000,000원(국비)
지원대상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 · 기관 · 시설
교육대상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연령층의 광주 시민



추진일정

02-03	03	05-06	07	11	12
공모 및 심사 - 사업설명회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오리엔테이션 및 컨설팅 - 사업 운영 지침 및 「나라도움 안내 전문가 컨설팅(1차)	현장 모니터링 - 담당자 인터뷰 및 수업 진행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 문화예술교육 강연 회계교육	현장 평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 평가 전문가 컨설팅(2차)	성과공유회 및 컨설팅 - 우수사례 성과 공유 전문가 컨설팅(3차) 네트워크 모임

공모선정

· 광주 내 문화예술교육 기획·운영 역량을 갖춘 단체 및
기관으로 광주지역의 차별화된 ‘지역특성화문화예술
교육-동네예술 배움터 광주Re’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가능한 곳

기획공모
지역특성에 기반 한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및 거점단체로서의
성장을 위한 연속성이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지원(2개 단체)

일반공모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14개 단체)

컨설팅 · 모니터링
전문가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단체의 현장 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화예술교육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 고민함.

워크숍 ·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 사업 운영 지침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
나라도움 안내 워크숍 지원단체 역량강화 및 회계정산 워크숍

성과공유회
· 지원단체 우수사례 성과 공유
· 운영단체 프로그램 컨설팅을 통한 원활한 운영 체계 마련 및
방안 논의

사업운영

04-11 사업기간	광주시민 사업대상	광주광역시 내 문화기반 시설 사업장소	300,000천원 사업예산
16개 운영단체	9명 컨설팅전문가	총 35회 현장모니터링	2회 워크숍

프로그램 내용

분류	운영단체	프로그램	장르	대상	지역
기획 (2개)	광주광역시동구문화원	‘동구Re’오디세이 예술학교	융·복합	초등학생	동구
	마음놀이터	엄마꽃 마을예술학교2	예술, 공동체	중년여성	북구
일반 (14개)	함께크는나무협동조합	자화상 (자기를 그리고 지지하여 주는 상)	미술	여성	광산구
	문화집단 열혈지구	2019 흥(興)놀이 프로젝트 놀이하는 사람들 NO. 5 5월 할망	다원예술	성인	남구
	실내악단 마하나임	가족, 그리고 이웃과의 하모니를 꿈꾸는 “우리 동네 Happy Classic”	음악	가족	서구
	봉다리콘텐츠연구회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 축제	음악	주민	광산구
	사단법인 청년문화허브	우리 동네 인생 상담사 양성 “나미야 비밀상담소”	생활문화	청년	동구
	여디디야	들강달강 어린엄마 삶을 디자인하다	미술, 요리	미혼 양육모, 한부모 엄마	광산구
	책 문화공간 봄:작은도서관	무늬만 책, 일상을 기록하다 나의 삶, 나의 기록, 예술로 피어나다	인문학, 공예	주민	남구
	아이엠(IM)	백수의 세계, 예술이 되다	문화예술 복합	청년	광주전체
	극단 토박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배움터 ‘아우라지’	연극, 뮤지컬	청소년	동구
	땅콩나무문화예술협회	힐링캘리 ‘그렇게 봄날이 가고 여름이 오듯’	캘리그래피 도예	중년	서구
	푸른연극마을	낭독연극 〈내 인생 드라마를 펼쳐보이리〉	글쓰기, 연극	중년	동구
	서창맘	마~술 보따리 (마음 속 이야기를 술~술~)	통합예술	노년	서구
	청년인문공간 러브앤프리	예술-문학-삶으로 만나는 청년인문살롱	복합예술	청년	광주전체
	주식회사 필름에이지	청년과 주민이 만드는 동네예술 “간헐적 영화교실”	영상·미디어	주민	북구

[illegible][illegible]

광주광역시 동구문화원

동구Re 오디세이예술학교



교육장소	광주광역시동구문화원 강의실
교육대상	초등학생 60명
교육장르	미술 · 인문 · 탐험 융복합
문의	T 062-225-5815 E donggu5815@daum.net

단체소개
 광주광역시동구문화원은 지역문화 계승보존과 지역사회 개발 및 지역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 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

프로그램소개
 · 마을탐험(스토리텔링형, 탐구체험형)
 :지역의 문화 · 예술 · 인문자원을 탐구주제로 삶을 배우는 경험학교
 · 창의공방(실험공방형, 아이디어창작형)
 :지역의 문화자원을 소재로 생활 · 예술의 아이디어 를 실험하는 예술학교

‘동구Re’ 오디세이예술학교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문정신 자원을 토대로 삶을 경험하는 예술학교입니다. 삶 속에서의 경험과 예술체험 활동들을 통해 자유로운 사고에서부터 나오는 삶의 배움을 제공하는 학교로, 이를 배우고 경험하는 ‘마을탐험’과 생활과 예술을 융합하여 아이디어를 실험해보는 ‘창의공방’이 있습니다. 기존 장르중심의 문화예술교육에서 경험과 실험중심의 융합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다양한 교육실험을 학교라는 모델의 형태로 종합적인 교육과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지난 6월 8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마을탐험반과 오후 창의공방반이 진행되었습니다. 초등학생 40명이 함께 다양한 지역의 문화·예술·인문정신 자원을 알아가고 배우며 경험하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인물, 지명, 설화, 건축물, 거리, 공간, 문화재 등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 창출 및 실험적 공간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지역브랜드 창출을 꿈꾸며 한걸음씩 내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두 개반이 함께 일일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물놀이 등 자연의 배움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9월 7일에 마을탐험 야외수업과 창의공방 수업 시작으로 2학기 문을 열었습니다. 10월에는 아트날라리에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함께 열린 수업 형태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동구Re 오디세이예술학교’의 비전과 방향을 다시 한번 경험해보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1월 2일에는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1년여 간의 과정을 다양한 전시로 준비하였으며, 졸업증과 졸업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을탐험반은 동영상을 편집하여 미디어아트 형태의 전시를 기획하였으며, 창의공방반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문정신자원을 토대로 인물, 지명, 설화, 건축물, 거리, 공간, 문화재 등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디자인하고 제작한 150여점의 입체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졸업전 작품들이 정형화 되어 있지 않고 수많은 작품들이 모두 다르다는 학부모님의 칭찬과 올해 마을탐험반 졸업생이 내년 창의공방반에 신청하겠다는 말에 그동안 기울인 정성과 애정, 그리고 1년이란 시간을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동구Re 오디세이 예술학교’가 5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오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시간과 고민의 연속이었지만 한걸음 내딛었다는 자긍심을 갖었고, 다시금 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를 꿈꾸며 상상해봅니다.

마음놀이터

엄마꽃 마을예술학교



교육장소	양산문화사랑방
교육대상	중년여성
교육장르	마을반(생활예술),예술반(연극,인문학)
문의	T 010-3860-2096 E maumnori3355@hanmail.net

단체소개
 마음이눌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만들어 갑니다.모두가 예술가이고 무엇이든 예술이 될수 있습니다. 삶을 담는 예술활동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성장과 치유의 힘을 되찾도록 안내하고 함께 걸어갑니다.

프로그램소개
 엄마꽃 마을예술학교는 삶을 예술로 담아내고 성장과 치유의 과정을 이웃과 나누는 마을의 작은 배움터입니다. 연극과 인문공부과정인 <예술반>과순임씨,선화씨,선숙씨가 안내하는 <마을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마꽃 마을예술학교는 2015년 ‘엄마꽃이 되다’를 시작으로 ‘엄마꽃예술놀이터’, ‘엄마 함께 걷다’그리고 ‘엄마꽃 마을예술학교 1,2’로 이어지고 있다. 중년. 늘상 보던 가을이 더없이 아름답게 보이고 누군가의 짝한 마음에 더 애잔한 눈빛을 보낼 수 있는 시기다. 누군가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일상을 따뜻하고 찬찬히 보는 눈이 마음 안에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중년을 맞이하였고 그동안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했다. 그렇게 시작된 엄마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그동안 함께 걸었던 수많은 인연들이 엄마꽃 마을예술학교로 성장시켰고 우리가 가야할 길을 안내해주었다. 올해 마을반은 ‘순임씨의 인생그림학교’, ‘선숙씨의 마음뜨개학교’, ‘선화씨의 밥한그릇학교’가 진행되었다. 선배 엄마꽃들이 안내하는 마을반은 뭐든지 척척반이다. 마을축제에서는 수백 명이 참여하는 ‘동네예술가의 집’ 체험부스들을 척척 진행하였고 두 번의 ‘동네예술가의 아트마켓’을 이끌어주었다.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된다. 예술은 우리에게 마음을 전하는 도구이고 일상이며 늘 마주하는 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추말숙선생님과 함께 ‘어서와 너의 삶과 나의 삶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연극반은 각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것들을 엮어 또 한편의 연극으로 공연을 마쳤다. 올해 연극 ‘팔자를 고쳐야 쓰것네’는 팔자라는 이름으로 움아매진 지난한 삶을 박차고 나온 우리네 엄마의 이야기다. 함께 울고 웃고 다독이며 일 년을 살아온 연극반. 한 해를 지내며 또 얼마나 깊고 진해졌을까? 40대부터 70대까지 함께하는 연극반은 예술반의 든든한 기동이다. 김천웅 선생님과 함께 하는 공부반 ‘삶을 위한 읽’은 늦은 저녁에 진행되었다. 모두 각자의 일터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내 삶을 위한 공부를 위해 늦은 밤까지 함께 공부한다. 책을 읽고 에세이를 쓰고 시를 쓰고 함께 나눈다. 인생의 가을걷이를 함께 할 동지들. 엄마꽃 마을예술학교로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진 중년의 엄마꽃들은 가을 단풍처럼 곱디곱다.

함께크는 나무

자화상 자기를 그리고 지지하여 주는 상



교육장소	하남종합사회복지관.동네책방 숨
교육대상	여성
교육장르	미술
문의	T 010-3616-4254 E totorochu@hanmail.net

단체소개
건강한나무들이모여숲을 이루듯 자신을 이해하는
나들이모여 서로 공감하고 함께 행복한공동체

프로그램소개
삶과 이야기를 예술을 통해 풀어내고 일상과 예술을
가깝게 하며 즐거움을 경험한다.
다양한 예술로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타인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낀다.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자화상>을 통해 여성들을 만났다. 누구의 자녀로, 아내로, 엄마로 많은 이름들이 있는 여성들은 그 이름의 무게만큼이나 자의로 타의로 책임지고 희생하게 된다. 특히 출산을 하고 자녀를 육아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자신보다는 엄마로 살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

<자화상>은 자신의 외적인 얼굴을 그리는 것보다 <자기를 그리고 지지하여 주는 상>으로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을 그리는 시간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 좋아하는 것, 억눌린 것, 기다리는 것 등의 주제를 가지고 내면을 그리면서 자기 성찰과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또한, 다양한 미술 매체 (회화, 빛그림, 판화, 그림책, 공예)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매체에서 주는 예술의 흥미로움을 경험한다. 나를 따뜻하게 지지하고, 나와 우리간의 서로 배움으로 연결하고 타인과 함께 즐거움을 느끼며 함께 성장한다. ‘자신을 바라보는 낯선 시간’이 모두에게 필요하다.



문화집단 열혈지구

2018 흥(興)놀이 프로젝트 놀이하는 사람들 No 5. 오월 할망



교육장소	문화예술 작은 도서관
교육대상	성인
교육장르	다원 예술
문의	T 010-9893-3249 E pinipink@hanmail.net

단체소개
문학, 영상, 영화, 연극, 사진, 미술, 음악, 미디어아트 등등 다양
한분야의현장예술가들이모인단체이다.
콜라보 작업,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의 일상화>를 추구
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소개
신화를 모티브로 삼아 개개인의 신화를 발견하고 이를 바
탕으로 다양한 예술놀이와의 특별한 만남.
신화 찾기의 여정과 귀환을 통해 특별한 나와의 만남.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특별했다.
다름이 아니라 고유의 자기 것이었다.
회한하게 너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같고 더 나아가 내 주변의
이야기 같다. 내친김에 더 나아가보자~하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동시대성, 갇힌 놀이가 아니라 열린 놀이가 되기 위한 개념1
주고받는 선순환의 가치 나눔과 의미 재생산을 위한 개념2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않고 놀이의 유희성과 그 본성에 담긴 하나만
생각했다. 나를 연다는 것,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흥놀이의 참여자들은 자신을 감추지 않았다.
오히려 이야기를 절실히 원하였고 그 시간 속에서 끈끈한 연대감과
동질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주변 의식의 확장과 타인의 관계
맺기를 통해 개개인의 삶과 예술성은 공적 영역으로 넓게 확장된다.
사적인 영역에서 그치지 않고 타인과 지역과 더 나아가 이 사회와
세상까지 연결되는 흐름이 중요하다.
삶과 놀이의 유희성, 그 안의 예술의 역할은 단순한 피드백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야의 확대가 중요했다.
단체와 흥놀이 참가자들의 관계 맺기를 통해 앞서 말한 피드백의
시야 확대는 물론 단체가 지향하는 예술철학의 의미를 이번
프로그램에서 확장하며 재확인할 수 있었다. 고마움을 원동력 삼아
더욱 다양한 흥놀이를 궁리할 수 있는 시간이라 특별했다.

실내악단 마하나임

가족, 그리고 이웃과의 하모니를 꿈꾸는 우리 동네 Happy Classic



교육장소	시소센터(서구청소년문화의 집)
교육대상	가족, 이웃 전연령층
교육장르	음악(악기)
문의	T 010-5650-6322 E aimi71@hanmail.net

단체소개
실내악단 마하나임은 서양음악을 전공한 음악가들이 모인 단체로 문화예술로 행복해지는 삶을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 교육과 공연활동을 통해 지역, 그리고 지역민과 소통하고 있는 단체이다.

프로그램소개
가족과 가족이 모여 연주라는 매개를 통해 화합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프로그램화 하였다.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 가족 간, 이웃 간, 세대 간의 소통을 끌어내는 프로그램이다.

봄꽃들이 만개하며 꽃놀이를 유혹하던 4월, “우리동네 Happy Classic”이 시작되었다. 딸들의 손을 잡고 온 엄마들, 아이의 손을 잡고 온 부부, 그리고 이웃과 함께 문을 두드린 주민들, 친구와 함께 와도 되냐고 묻고 가능하다고 하자 시작한 첫 날부터 한 번도 결석 없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었던 멋진 청년들, 그렇게 정원 20명을 모집하려던 당초 계획과 다르게 모인 숫자는 35명이 훌쩍 넘어섰고 마음을 열기 위한 오리엔테이션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기대와 설렘 가득한 포부를 나누며 악기를 매개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평소 로망이었던 좋아하는 악기를 배우는 과정이 너무 좋기만 한 어른들, 엄마 아빠와 함께 앉아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순간이 행복하지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자꾸 엄마의 위치를 확인하는 아이들, 은퇴하신 어르신, 바쁜 직장인, 주부 등...

금요일 저녁이면 동네예술배움터인 시소센터의 모든 공간은 불을 환하게 비추며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가족과 가족이 만나고, 이웃이 만나고, 유년과 청년, 장년, 노년이 한 공간에서 만나서 본인의 포지션에 집중하고 함께 앙상블을 이루며 호흡을 맞춰 가는 가운데 소통의 의미를 깨달아 가기 시작했다. 간식을 나누며 소담소담 정을 나누기도 하고 현장학습을 통해서는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방법과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문화예술교육축제참여와 발표회라는 공연을 통해서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면 멋진 하모니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시작이 엇그제 같은데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계절이 되자 “우리 동네 Happy Classic”의 프로그램도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다. 하지만 열심히 동네예술배움터를 찾아 교육에 참여했던 교육생들의 가슴 속에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해 따뜻하고 행복한 2019년이었으리라...

봉다리콘텐츠 연구회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 축제



교육장소	임곡동 행복주민센터 및 임곡 인근
교육대상	임곡동 주민 30~60대
교육장르	음악밴드
문의	T 010-6643-2798 E ggomo33@hanmail.net

단체소개
오랫동안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한 이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연구, 기획하면서 만들어진 단체. 교도소, 보호관찰소, 미혼모센터, 군부대 등 사회 소외 계층과 단체들을 문화예술 분야로 교육

프로그램소개
임곡동장년층을 중심으로 기타, 건반, 베이스, 기타, 드럼, 보컬 등 밴드를 구성하여 언니밴드, 오빠밴드 만들기, 임곡에 대한 애향심 고취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작은 축제 개최

주민들을 실어 나르는 주요 교통수단이었던 기차가 KTX 열차로 대체되면서 여객 승차가 줄어든 호남선과 경전선에 더 이상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주민들이 모이고 흠어지기를 반복하며 광장의 역할을 했던 간이역들은 본연의 임무를 잃고 마을 한 가운데에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을에 들어가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곤란했던 것은 적당한 공간을 찾아내는 것이었는데, 마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넓은 공간이 비어있는 것은 몹시 아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실행해 본 것이 비어있는 역 광장을 활용하여 주민들과 즐거운 축제를 열어보는 것이었다.

축제를 열기 위해 필요한 여러 요소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음악밴드를 구성하는 것이 2019년의 목표였다. 준비된 무대를 외부인이나 프로급 음악인들에게만 내어주는 일은 몹시 아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기타, 베이스, 건반, 드럼 그리고 보컬로 구성된 음악밴드를 만들어 내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모이게 하는 일도 어려웠지만 무엇보다 함께 합주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의 부재 때문이었다. 다행히 마을 주민 가운데 컨테이너 박스에 개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던 분의 도움으로 미약하게나마 밴드 합주실을 만들고, 여름 축제와 종강 축제를 개최할 수 있었다. 6개월의 배움으로 무대에 서서 합주를 하는 일은 가슴 떨리고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일이었다는 총평을 들었다. 개별 악기를 배운 경험은 많았으나 함께 하모니를 맞추어 노래를 부를 정도까지 연주하는 합주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 광장에 음향장비로 무대를 만들고, 탁자를 준비하고, 먹을 음식들을 마련해서 주민들을 초대했다. 어제까지 옆에서 모내기하고 고추 따던 동네 사람이 무대에 서는 것을 본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올려주었다.

(사)청년문화허브

우리동네 인생상담사 양성 나미야 비밀상담소



교육장소	광주 동구 예술길 24, 3층 청년문화허브
교육대상	청소년, 청년
교육장르	생활문화
문의	T 062-415-3540 E culturehub@daum.net

단체소개
(사)청년문화허브는 2013년 2월 설립된 시민문화단체 (NGO)이자 문화기획단체로 시민들의 문화적인 삶과 문화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삶이 펼쳐질 수 있는 건강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소개
시민들이 일상 공간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편지를 통해 문턱 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상담 받을 수 있는 '우리동네 인생상담사' 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인생은 “B와 D사이의 C다.” 철학자 샤르트르의 명언입니다. 풀이하면 B는 birth, D는 death, C는 choice입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옳은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결과들이 쌓여 사연이 됩니다. 타인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담긴 사연, 공감과 위로를 원하는 사연, 누군가의 안부를 바라는 사연까지 천차만별의 사연이 <나미야 비밀상담소>로 날아왔습니다. 그동안 <나미야 비밀상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들을 통해 ‘우리동네 인생상담사’ 양성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편지로 들어오는 사연에 어떻게 답해야 하나 이야기 나누고, 깊이 생각해 답장을 써내려가는 동안 답장을 쓰는 참여자들 또한 큰 위로를 받고, 성장해 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여러 주제의 사연을 가지고 의논하는 과정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어제 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나”가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소중한 과정이 <나미야 비밀상담소>의 의의입니다. 청소년, 청년과 함께 <나미야 비밀상담소>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공감과 위로, 아픔과 성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미야 비밀상담소>는 <인간관계>, <사랑, 결혼>, <선택의 순간>, <휴식, 놀이>, <마음, 감정>, <가족>, <우정, <삶의 의미>, <돈>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하고 실제로 들어온 사연편지를 통해 참여자들과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연을 보낸 사람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면해 왔던 스스로의 내면 또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강사도 참여자들도 함께 성장하는 <나미야 비밀상담소>에서는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중점으로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반론하는 토론 속에서 참여자들의 생각은 깊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에 대해 저절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강사도 참여자들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이 확신으로부터 참여자들의 답장편지는 소곤소곤 쓰여 집니다.

여디디야

들강달강 어린엄마 삶을 디자인하다



교육장소	모자시설우리집 미혼양육모공동생활가정 편한집
교육대상	한부모엄마, 미혼양육모
교육장르	요리, 미술
문의	T 010-8600-8782 E grace8782@hanmail.net

단체소개
예술가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예술과 교육으로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예술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모인 문화예술교육공동체

프로그램소개
여성과 엄마로서 살아가는 다양한 삶에서 보다 열악한 여건에 있는 한부모, 미혼양육모를 대상으로 그녀에게 필요한 정서적 위로와 격려, 그리고 성장을 위한 요리와 공예 수업

2005년 ‘청소년미혼모를 위한 들강달강 어린엄마’를 시작으로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어린엄마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 변모하였다.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떠나보냈던 어린엄마는 이제는 당당히 아이를 혼자서도 잘 키우고 있고, 어떤 엄마는 아빠의 빈자리도 아랑곳없이 아이들과 함께 씩씩하게 살아내고 있다. 우리집은 한 부모가정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이 곳 엄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빠와 헤어져 이젠 아이하고만 산다. 살아가기 위해 생계에 매진하다 보다 보니 한 끼니, 한 끼니가 전쟁이다. 여디디야는 살얼음 같은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어린엄마에게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엄마들과 함께 한다. 어린 자녀의 귀가 시간에 맞춰 이웃과 함께 하는 저녁 식사 준비는 한 주일의 고단함을 풀어주고 뽀뽀한 인생살이에 잠시 쉽이 주어진다. 계절의 기운을 담은 계절음식과 현대인의 바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일품요리, 그리고 나를 우아하게 만들어 주는 특별요리까지 다양한 나 자신을 삶을 버무린 요리를 하면서 다시금 삶의 희망과 도전할 용기가 생긴다. 편한집 어린엄마는 애당초 남편이 없다. 아이의 생물학적 아빠는 있었지만 법적 남편은 존재하지 않는다. 쉽지 않는 선택이었지만 하는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운이 좋아 아이와 몸 누울 서너 평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지만 이 곳 생활도 2년이면 다른 어린엄마를 위해 내주어야 한다. 그 동안에 또 나는 선택해야 한다. 온전히 양육만 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 진로교육에 매진해야 할지... 여디디야는 공예수업을 통해 재료의 선택으로 인해 얻어지는 다양한 결과를 경험한다. 이런 과정이 자신의 선택과 결과, 그리고 용기와 도전을 생각하고 배우게 한다. 아이를 위한 인형 만들기, 나를 위한 파우치, 나의 작은 방을 위한 작은 쟁반 등 다양한 수공예품 제작과정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간다.

책문화공간 봄:

무늬만 책, 일상을 기록하다



교육장소	책문화공간 봄: 작은 도서관
교육대상	작은 도서관 운영자 및 봉사자, 마을주민들
교육장르	인문학과 공예
문의	T 010-6629-1055 E jeandory@hanmail.net

단체소개
책문화공간 봄:은 노대동의 작은 도서관으로 마을주민들의 사랑방이자 책문화예술 배움터이고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만 들어가는 곳이다.

프로그램소개
시민들이 일상 공간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편지를 통해 문턱 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상담 받을 수 있는 '우리동네 인생상담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마을의 작은 도서관인 책문화공간 봄:은 책과 함께 마을주민들의 책문화예술배움터로 2014년부터 책을 주제로 다양한 책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2014년 지역문화예술교육 ‘책바람 불어 봄봄’은 책 속에서 예술을 끌어내 문화로 버무려내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교육으로 지역문화예술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작은 도서관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5년 나의 글과 사진으로 한권의 에세이집을 만들어 본 ‘책에 나를 담다’, 2016년 북페스티벌 기획에서 축제 콘텐츠 개발, 실행을 함께 해보는 ‘신통방통 북세통’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책을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을 만나는 지점을 늘 고민해왔다. 그러던 중 책이 있는 공간의 기능을 확장하는 책전시기획 ‘모두를 위한 북 큐레이션’을 2018년에 진행하면서 다양한 주제의 북 큐레이션이 책과 나 사이에 거리를 좁혀주고 일상의 익숙했던 공간이 새롭게 변신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그럼 나의 이야기, 나의 삶의 여정이 문화예술작품으로 만들어 진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담기고 어떤 색이 스며들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려보고 나의 인연들의 뒷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거기에 담긴 나와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보고, 나의 꿈, 나의 삶의 색을 하나하나 예술작품 속에 칠해보는 ‘무늬만 책, 일상을 기록하다’를 통해 진짜 나와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물든 그 일상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한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결국 예술의 힘이라는 걸 마을에서 도서관에서 그리고 문화예술과 긴 여정을 함께하며 다시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길이 책문화공간 봄: 이 걸어가려는 길이자 꿈이라는 것도.

아이엠(IM)

백수의 세계, 예술이 되다



교육장소	갤러리카페 제이콥하우스
교육대상	광주지역 청년 백수, 반백수
교육장르	문화예술복합
문의	T 062 E officialim2019@gmail.net

단체소개
‘삶은 지금 여기, 나로부터’라는 슬로건으로 멤버 개개인 모두가 자기 삶의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지역의 청년들이 모여서 구성한 단체이다.

프로그램소개
청년 백수 및 반백수들이 모여서 ‘백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사유해보고, 그 사유를 바탕으로 백수에 관한 시를 쓰고, 시를 작품으로 제작해서 직접 전시까지 진행해보는 과정

청년들이 모여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시작으로 몇몇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청년’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우연히,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을 인문으로 해석한 ‘과학 없는 과학’ 전시를 하고 청년백수를 주제로 잡지를 발행하게 됐다. 그것을 계기로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탐색하는 방법의 다양성에 대해 고민하다 문화예술이 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올해, ‘백수의 세계, 예술이 되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백수 및 반백수 청년들과 함께 백수를 주제로 함께 시를 쓰고, 직접 쓴 시를 바탕으로 전시작품을 만들어 전시 진행까지 함께 해보게 되었다.

아직은 어리숙한 젊은이들이 모여서 좌충우돌하면서도 과정은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운영팀도 같은 또래이다 보니 가르치고 이끌어간다는 느낌보다는 함께 만들어 나가고,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탐색하는 시간을 보냈다. 누군가는 오랫동안 예술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직접 실행해보고 싶었고, 또 누군가는 올 한해 잠시 쉬어가면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 참여했다고도 한다. 어떤 이유이던 자신의 삶을 좀 더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인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모여서 문화예술을 통해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삶을 사는 다양한 길 중의 하나이며, 매력적인 길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예술가가 되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하는 일이 당장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문화예술이 직업이 되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삶의 길에서 언제나 접속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삶의 선택지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극단 토박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배움터 ‘아우라지’



교육장소	민들레소극장, 학교 밖 청소년 단체 (무진일음학교, 징검다리 배움터 놀음)
교육대상	청소년(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장르	연극, 뮤지컬
문의	T 062-222-6280 E kjtobaki@hanmail.net

단체소개
극단 토박이는 연극으로 대중의 삶과 함께 호흡하며 인간성의 전진, 사회와 역사의 진보를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 오월극 ‘금희의 오월’, ‘모란꽃’, ‘청실홍실’, 환경극 ‘가물치왕자날아라’, ‘나비아’, ‘토토, 투투 할머니의 이야기극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어린이연극학교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학교를 개최하여 연극의 사회적 효능을 널리 알리고 연극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소개
아우라지는 두 갈래 이상의 물이 한데 모이는 물목을 말하는 것으로 통합문화예술과 함께 모인다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배움터 아우라지는 청소년을 위한 통합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자랄 수 있게 돕고자 합니다.
○ 중학생·생기발랄 연극놀이터(연극, 뮤지컬)
○ 학교 밖 청소년·연극에 내 마음을 담자

극단 토박이의 주요한 활동의 두 축은 공연활동과 문화예술교육활동입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문화예술교육은 그동안 여러 차례 양적, 질적 변화의 시기를 가졌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한지 10여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매번 힘들지만 가슴 설레는 일기도 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배움터 ‘아우라지’는 학교 안이든 밖이든 상관없이 청소년들이 어울려 함께 생각을 나누고, 몸으로 표현해보며 자신들만의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올해로 5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중학생들과 봄학기에는 광주의 중요한 역사인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을 공부해가며 연극을 만들었고, 가을학기에는 연극을 뮤지컬로 각색해서 공연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려운 이야기라 힘들었지만 하나하나 알아가며 자신들의 몸으로 표현해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각자 처한 환경이나 조건이 다르고 욕구들도 달라 그때그때 조정하며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그들의 이야기들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배움터 “아우라지”가 내년에는 더 많은 청소년들과 더 즐겁고, 더 빼딱하게, 더 발랄하게 만날 수 있기를 기약해봅니다.



땅콩나무문화예술협회

힐링캘리 ‘그렇게 봄날이 가고 여름이 오듯’



교육장소	땅콩나무문화예술협회 교육장
교육대상	중년의남여
교육장르	도예를 접목한 캘리그래피
문의	T 010-5226-7021 E peanuttree2016@naver.com

단체소개
땅콩나무문화예술협회는 문화예술을 교육, 향유하는 매개 역할을 위한 기량과 열정을 가진 회원들로 구성되었고, 대상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 접목하여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취미 또는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프로그램소개
중년의 남성,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캘리그래피 도예과정을 함께 함으로써 성취감을 경험하고 심리적, 신체적 관계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지속적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중년의 위기를 자연스럽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2017년<힐링캘리: 이미 그래도 괜찮으니까...>를 시작으로
2018년<힐링캘리: 사랑하는 나에게...>
2019년<힐링캘리: 그렇게 봄날은 가고 여름이 오듯...>

3년째 지역의 중년여성, 중년남성들과 만나고 있다. 올해는 도자기, 플라워를 더한 캘리그래피로 더 다양해진 예술 장르와 글씨쓰기를 통해 중년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담아내었다. 힐링캘리는 흙을 만지고 꽃을 담고 글씨를 쓰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살아오면서 잊고 있었던 나의 가치와 숨겨진 에너지를 발견해 나간다. 이 과정 속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공감하며, 배움과 성장의 과정, 결과물들을 함께 나누며 마을 어느 카페에서 중년의 이야기는 마무리 된다.

첫 해 시작부터 함께 해온 분들과 이제 막 과정을 마무리한 분들은 이제 다시 서로에게 배우고 변화하며 또 다시 시작될 것이다. ‘힐링캘리’를 통해 만들어진 중년들의 시간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푸른연극마을

낭독연극 내 인생 드라마를 펼쳐보이리



교육장소	씨어터 연바람
교육대상	중년층
교육장르	글쓰기, 연극
문의	T 062-226-2446 E greentheater@naver.com

단체소개
1993년, 〈지금-여기서-인간답게〉라는 모토로 소극장 연극운동, 연극의 저변확대를 위해 몸과 마음으로 무늬를 새기고 있는 단체이다. 청소년 연기 아카데미를 통해서 미래의 예술가를 발굴, 성장시키고 있으며 시민연극프로 그램 희곡낭독, 아마추어 공연단체 교육을 통해 함께 어 우러지는 세상 연극공동체를 꿈꿉니다.

프로그램소개
찬란한 미래를 꿈꾸었던 그 시절, 눈부신 미래와 마주친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인생이라는 무대에 서 내 역할을 맡아 최고의 배우로 살아온 내 인생 스토리 텔링을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쓰고 내가 들려주는 〈읽는 연극, 듣는 연극, 낭독 연극 프로그램〉이다.

꽃 같은 내 인생,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앞만 보며 살다가 갑자기 멈춰야 하는 때가 있다.
이게 내 인생이었나?
따스한 햇볕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 천둥번개 내리치는 한 가운데로 내뿜개쳐 맨몸으로 부딪혀 내야 했던 시간, 좋은 날도 고된 아픔도 슬픈 울음도 행복했던 모든 순간이 삶의 모습으로 아로새겨진 시간들, 삶의 무늬가 그려낸 그 순간이 찬란하게 빛났지만 때로는 너무 아파서, 너무 슬퍼서 꼭꼭 숨겨둘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
‘어휴, 징글징글 말도 말아. 내 얘기는 소설 한두 권으로는 턱도 없지, 대하 드라마야 대하드라마’ 꽃 같은 인생을 살아왔을 그녀들의 진짜배기가 궁금했다.
꽃잎 한 장 한 장 들춰낸 속살 같은 이야기.
두렵고 떨리던 속엣 이야기, 쾅쾅 감춰두어야만 했던 속울음 같은 삶.
‘어휴, 속 시원히 이야기 할 때 있으믄 좋겠어. 누가 이 속을 알겠어? 남편이라고 알겠어, 자식이라고 알겠어? 몰라 암도 몰라.
고스란히 드러내서 속엣것 보여 줄 수만 있다면…알까?
에고…언제나 그럴 날이 있으려나?’
이 세상의 위대한 여성 어머니, 한때는 찬란하고 눈부시게 빛났던 생애 아니었던가! 수업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삶이 너무나 깊었다. 그 어떤 희곡보다도, 어떤 극작법으로도 이분들의 인생이야기를 따라 갈 수 없을 만큼 인생 자체가 훌륭한 희곡이고, 지금껏 살아오신 그 자체가 완벽한 극작법이었으니!봄, 여름, 가을이 오는 동안 삶의 무늬가 드러난 인생 드라마. 꽃 같은 언니들.
내 인생 2막 드라마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서창맘

마술보따리



교육장소	광주 서구 쌍촌복지관, 서창 마을
교육대상	어르신
교육장르	통합예술(미술)
문의	T 010-7755-5653 E stella830@naver.com

단체소개
서창맘은 전형적인 농촌마을 서창동 마을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찾아 함께 키우는 마을 공동체로서 삶의 터전인 지역과 마을에서 주민이 주인 되고 공동의문제를 함께 해결 하고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소개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살 아온 삶을 그림과 이야기로 만들어 보고 표현 할 기회를 가 지며 마을 예술을 배워 보며 함께 꾸며보는 소통의 기회 를 가져 본다.

우리는 매식 덕~ 영암 덕~을 찾아 나선다.
홀로 외롭게 지내는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옛날의 추억을 되살리는 회상 수업으로 서구 노인들을 위하여 예술과 문화와 함께 하는 참신한 여가 활동을 가 질수 있는 기회를 가져 봅니다.
즐거웠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하하, 호호, 웃으시는 마음의 이야기보따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동네의 문화를 즐기며 전통과 농촌체험 등 다채로움을 체험하면서 들녘 낙조가 있는 한옥의 운치와 볼거리를 더하면서 마을 예술 배움터가 삶을 공감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리기를 통하여 즐거움을 주는 어르신들의 삶을 질적 양적으로 행복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줄이는 예술적 기량과 마음의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 보따리를 만들어 봅니다.
새하얀 캔버스에 부드러운 촉감을 느껴보고 손끝으로 움직이며 생전 처음 그려나가며 마음속 가득 차 있는 하고 싶은 말, 미안한 말, 고마운 이야기를 캔버스에 그려도 보고, 옛날 떡을 만들어보는 즐거운 나들이 추억에 빠져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만들었어.”라며 서로 서로 본인이 만든 떡을 자랑을 하시며 즐거운 추억 속의 타임머신을 타신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에 새로운 문화예술 에너지 충전소가 되었으며 어르신들의 지난 세월을 떠올려보며 마음의 고향을 찾아보는 작은 보따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르신들은 풀어 놓지 못한 보따리 하나를 가지고 예술이란 타임머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청년인문공간 러브앤프리

예술-문학-삶으로 만나는 청년인문살롱



교육장소	청년인문공간 러브앤프리 (남구 천변자로 418번길 17)
교육대상	광주지역 20~30대 청년
교육장르	복합장르(문학 '시, 희곡', 미술, 영화)
문의	T 010-3682-3719 E loven_free@hanmail.net

단체소개
청년인문공간 러브앤프리는 광주지역 청년들이 나답게, 즐겁게, 지속가능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향하며 문화 예술교육과 인문학프로그램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프로그램소개
청년인문살롱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 희곡, 미술, 영화와 같은 복합장르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통해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들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사랑·일·죽음'이라는 주제로 공부하고 있다.

청년인문공간 러브앤프리는 근대역사문화와 청년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양림동에 위치한 비영리 단체다. 쉽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중심에서 있는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주목하며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이나 인문학프로그램들을 통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청년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술-문학-삶으로 만나는 청년인문살롱'은 러브앤프리에서 실천하고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청년들이 그들의 삶과 고민을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통해 사유하고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때로는 공감과 소통을, 때로는 인문학과 예술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불안과 불확실성을 오가는 상황 속에서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들끼리 쉽고 편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삶에 가장 근접해 있는 주제인 '사랑'과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다. 더 나아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렇지만 한 번은 꼭 생각해야 할, '죽음'에 대해 나누고자 했다. 청년인문살롱을 통해 청년들은 그들의 삶에 질문을 던지고 서로의 이야기로 일상을 채워나간다. 그 통로는 문화예술이다. 시를 읽고 쓰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자신과의 감정과 교류하기도 하고, 현대와 고전을 아우르는 미술작품을 감상하며, 저마다의 방법으로 작품을 구상하여 자신을 표현해낸다. 다양한 기법으로 자화상을 그릴 때면 평소에는 쉽게 지나쳤을 자신의 모습을 관찰해보기도 한다. '희곡', '연극'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려움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이 되어 감정에 이입하며 연기도 해보고, 직접 대사를 써서 또 다른 역할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청년인문살롱으로 얻은 실제적인 경험은 청년들을 보다 넓은 세상으로 성장하게 할 것이다. 또, 이와 같은 것들을 인문예술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연대하며 계속해서 새로움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년인문살롱'의 주인공은 청년이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그들의 삶에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삶에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의식을 생산해내는 청년살롱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필름에이지

청년과 주민이 만드는 동네예술 간헐골 영화교실



교육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2동
교육대상	전 연령
교육장르	영상 · 미디어
문의	T 062 - 531 - 1895 E flimage2012@hanmail.net

단체소개
필름에이지는 마을영화를 비롯한 독립 영화 및 홍보영상 제작과 다양한 영화제작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영화영상을 통한 공동체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소개
2016년부터 사회적기업 필름에이지와 중흥2동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중흥2동 주민센터와 함께 마을주민이 영화배우로 참여하는 간헐골 마을영화 프로젝트를 4년째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6개월 동안, 30명과 함께 장편마을영화 '기억저편'을 제작하였습니다.

2016년 '간헐골 사람들'을 시작으로 2017년 '춘섭아', 2018년 '봉사왕', 2019년 '기억저편' 그렇게 매해마다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2동에서는 마을영화를 제작하였습니다.

간헐골 마을영화는 영화 연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요청으로 시작하여 지역에서 영화·영상 교육 및 제작 작업을 하는 사회적기업 필름에이지, 그리고 중흥2동 주민자치위원회, 중흥2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통해 마을영화라는 독립영화를 제작하고 마을 축제 때 제작된 영화를 상영하여 마을주민들과 다 같이 관람하는 마을공동체 문화예술 프로그램입니다.

2019년 올해는, 전국 최초 장편 마을영화를 기획하여 총 12회의 연기수업을 통해 그동안 짧은 교육 시간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더욱 채워줄 수 있었고 지역의 영상 관련 취업을 희망한 청년들에게 영화제작 동안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장편영화 제작을 통해 교육 참여자에게 더욱 높아진 성취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영화답게 영화 시나리오부터 참여자들과 함께 스토리텔링을 진행하여 지역 작가와 함께 시나리오를 완성하였고, 실제 영화처럼 배역 오디션을 통해 참여자의 연기 예술 교육 목적을 분명히 했으며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촬영하여 메이킹필름 형태로 편집영상을 홍보 및 공유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마을영화, 문화예술과 결합한 중흥 2동만의 마을색깔을 더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간헐골 마을영화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해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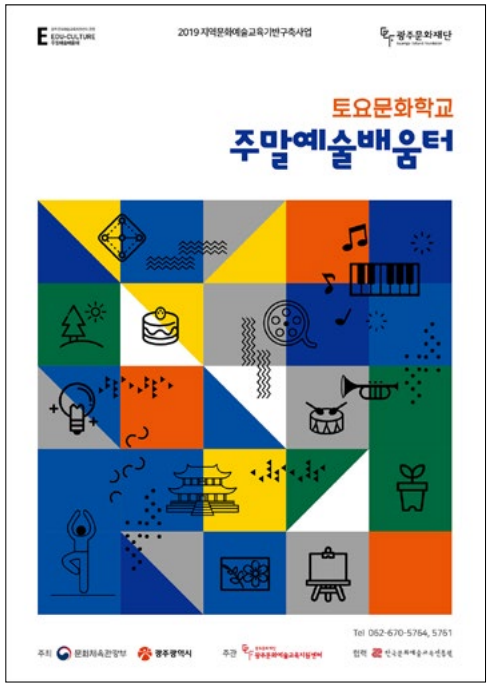
토요문화학교

주말예술배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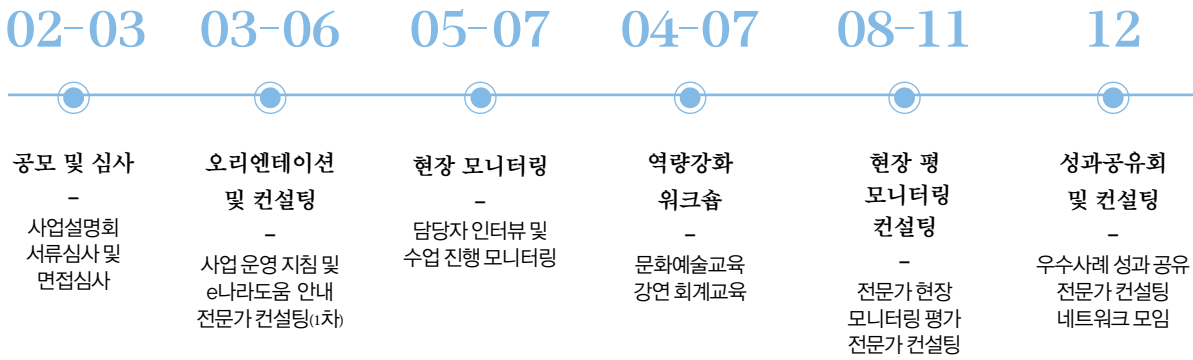
예술적 상상과 놀이를 통해 일상이 즐거워지는 주말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가족과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명	토요문화학교-주말예술배움터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업비	395,000,000원(국비)
지원대상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기관·시설
교육대상	광주 아동·청소년 및 가족



추진일정



공모선정

광주 내 문화예술교육 기획·운영 역량을 갖춘 단체 및 기관으로 광주지역의 차별화된 ‘토요문화학교-주말예술배움터’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가능한 곳

- 일반공모**
교육대상에 맞는 체험, 놀이,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18개 단체)
- 인큐베이팅 공모**
지역의 신규단체 발굴을 위한 인큐베이팅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5개 단체)
- 컨설팅·모니터링**
오리엔테이션 사업 운영 지침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안내
워크숍 지원단체 역량강화 및 회계정산 워크숍
문화예술현장답사 문화예술교육 우수단체 방문 및 문화예술공간 투어
- 성과공유회**
· 지원단체 우수사례 성과 공유
· 운영단체 프로그램 컨설팅을 통한 원활한 운영 체계 마련 및 방안 논의

사업운영

04-11 사업기간	광주시민 사업대상	광주광역시 내 문화기반 시설 사업장소	395,000천원 사업예산
23개 운영단체	9명 컨설팅전문가	총 41회 현장모니터링	12회 워크숍



분류	운영단체	프로그램	장르	대상	지역
일반 (18개)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일상	“엉망진창 오케스트라”	악기,음악	초등	광산구
	작은도서관숲	예술이 들려주는 시장 이야기	시각미술	초등	동구
	국윤미술관	편편 문화 dream	지역문화	초등	동구
	광주어린이요들합창단	즐거운 노래와 놀이가 함께하는 “토요세계문화여행~~”	악기,음악	초등	남구
	메이아이	신나는 자연탐험대 - 하나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놀이활동	초등,가족	서구
	협동조합 산림문화연구소	숲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자연미술	놀이활동	초등	서구
	은암미술관	오늘 점심은 누구누구 도시락	시각미술	초등	동구
	댄스컴퍼니베베	우리가족 ‘몸’사용 설명서	무용	초등,가족	남구
	광주시티문화예술단	세상을 향해 Do! Do! Do! Dream	악기,음악	초등,가족	남구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	BJ걸리버의 세계요리여행	요리,영상	초등,중등	남구
	오색빛협동조합	광주, 아라? 아라!	놀이활동	초등,중등	남구
	태이움직임교육연구소	나는! 춤추는 안무가	무용	초등	광산구
	한국미용박물관	놀러와! 신나는 꿈다락 놀이터로!	전통예술	초등	북구
	생활정치발전소	마을을 그리는 꼬마 웹프~	시각미술	초등,가족	서구
	사단법인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청소년 영화제 기획교실 “우리가 만드는 영화제”	영상,미 디어	중,고등	동구
	놀이요점빵	달려라, 서창이네 작은 농부	노작활동	초등	서구
	책과사람주식회사	포토북-사진으로 보는 100년의 시간 여행(양림동 근대 문화권)	사진	초등	남구
	인문정원솔	양림동 건축학교 3	건축	초등,중등	남구
인큐 베이팅 (5개)	사단법인 미래인재 UNIV	푸드 아트 놀이터 “물감주스”	시각미술	초등	광산구
	두드림평생교육원	놀이 탐험대~우리는 골목 대장!	놀이활동	초등	서구
	극단 캣츠	“이야기로 풀어보는 패러디 탈놀이, 탈춤 뮤지컬”	전통예술	초등	서구
	아르떼 창	엄마 달(DOLL) 엄니 달(DOLL)	시각미술	초등,가족	동구
	참한창작소	문학자는 언어술사	문학	중,고등	동구

[illegible]

문화예술교육 연구소 일상

영망진창 오케스트라



교육장소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교육대상	초등학생 2~6학년
교육장르	음악
문의	T 010-9431-4203 E jinog7@hanmail.net

단체소개
음악을 매개로 다양한 장르와 결합한 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단순한 기능을 전수하는 교육을 넘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나누고자 한다.

프로그램소개
“영망진창 오케스트라” 는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나 폐품을 활용한다. 나만의 특별한 악기를 만들고 연주하며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공연을 진행한다.

“영망진창 오케스트라” 3기
광산구 운남동에서 2년째 진행하고 있는 “영망진창 오케스트라”는 올해 4월, 3기 단원들을 맞이했다. 지역주민들은 고물 가지고 악기를 만드는 일에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고 뜨거운 관심을 주었으며 참여자 모집이 단기간에 마감될 수 있었다.
“영망진창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에 대해 단순한 만들기 수업쯤으로 알고 계신다면 큰 오산! 부모님에게 우리만의 특별한 소개를 전하며 아이들의 꾸준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앞부분을 모른다고 그 다음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친구들에게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만들기 수업, 일회성의 체험으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꾸준히 탐구하고 상상하는 과정을 거쳐 <악기 상상도>를 제작하고, 직접 재활용품 더미를 뒤져가며 재료를 찾아 만들고 연주하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마지막까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생각한 <악기 상상도>로 만든 악기와 연주를 응원해주세요.”

고물 악기가 보물 악기가 되는 순간!!
무엇을 만들어 볼까? 어떻게 만들어 볼까? <악기 상상도>제작은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둘러앉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상상 속 악기를 현실화시키는 작업이다. 처음 계획했던 재료, 모양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악기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예를 들자면, <굴렁쇠 윈드차임!!>

“공연은~~ 즐기자!”
공연 횟수가 거듭될수록 아이들의 연주 실력은 높아가고 여유가 묻어난다. 짧은 연습시간으로 인해 준비과정은 힘들었지만 공연의 짜릿함과 흥분감에 친구들의 얼굴에는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어느덧 구호가 되어버린 “공연은~~ 즐기자!”를 외치며 마지막 무대에 올라선다.

작은도서관 숲

예술이 들려주는 시장이야기



교육장소	문화공간 대인/ 대인시장전역
교육대상	초등1-6학년
교육장르	미술(공예,요리)
문의	T 010-2951-1708 E 68cha@hanmail.net

단체소개
작은도서관 숲은 지역교육네트워크ECO, 충장동주민센터, 충장동주민자치위원회, 충장동복지공동체, 대인시장일부 상가협력, 동구여성예비군, 아트그룹작가회 등의 협력으로 운영되는 단체

프로그램소개
· 역사와 문화예술 중심의 융·복합 프로그램
· 전통시장, 미술, 요리를 결합한 현장형 문화예술교육
· 마을문화공간과 마을주민단체 그리고 기관의 협치로 진행

올해로 6년째,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대인예술시장 안에서 잠자고 있는 전통시장의 문을 활기차게 열고 있다.
2019년 초등학생 아이들과 주변시장상인들과의 소통으로 시장화폐를 제작하여 텀으로 연기, 깎기 등의 시장 문화를 체험하고, 쿠킹클래스 활동으로 주민과의 나눔을 알고, 영상작업, 시장홍보물 제작 등으로 시장에서 시끌벅적한 토요일을 보냈다.
<예술이 들려주는 시장이야기>는 “시장 탐방, 조사→시장 화폐 디자인 및 제작→장보기, 경제 알아가기→Art Cook→시장홍보 디자인”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미술, 공예, 쿠킹클래스 수업을 통해 지역아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즐기고, 나누며 팀티칭(team-teaching) 활동으로 공동체를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시장풍경그리기, 점포의 상호와 명함 제작해 드리기, 영상작업등을 통해 아이들은 직접 전통시장의 문화를 예술로 표현하는 경험을 하였다. 따라서 함께 13차시를 보낸 아이들은 주변과 소통하며 나눔과 예절을 배우게 된다. 또한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유롭게 ‘나’를 표현하고 ‘예술의 끼’를 발산할 줄 아는 우리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 아이들은 전통시장의 새로운 원동력이다.
시장의 정을 맛보고 그 아이들을 통해 전통시장은 활력을 받아 지역경제도 살아나길 소망한다.

아이들은 즐겁기만 해도 하루가 모자란다.
아이들 덕에 나도 그때로 돌아간 듯 웃는다.

아이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빛을 내며 저마다 다른 색을 가진 도화지 같다.

국윤미술관

편편문화 Dream



교육장소	국윤미술관
교육대상	초등2~6학년
교육장르	문화예술(지역문화, 미술, 문예)
문의	T 062-232-7335 E yywol1@daum.net

단체소개
국중호 작가의 작품을 주 소장하며, 2008년 개관하였다. 관명인 ‘국윤’ 은 국중호, 윤영월 부부의 성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다.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활성화 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소개
학령기 아동들에게 문화자원인 ‘홍림교’ 에 대한, 놀이와 문화예술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창의적 표현과 자기주도적 문화예술교육 체험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배움의 장과 흥미를 유발시키고자한다.

국윤미술관 위치를 묻는 전화에 “홍림교 아세요?”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낯설어하는 반면, “무등산 중심사 근처 ‘배고픈 다리’ 아실까요?”라고 물으면 익숙한 지명에 반색을 표한다.

본 프로그램 기획은 이러한 경험에서 시작되었다. 광주광역시의 지형은 ‘어머니 품’이라 묘사되는 무등산 아래 도심부를 흐르는 광주천이 특징이다. 광주천을 사이에 두고 마을과 마을을 잇는 다리가 많으며 이 중 구도심에서 무등산을 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다리, ‘홍림교’가 있다. 2002년 확장 공사 후 정식 명칭인 ‘홍림교’는 지역민에게 익숙한 옛 이름 ‘배고픈 다리’와 혼용되어 일컬어지며 여느 콘크리트 다리처럼 평범한 건축물로서 지역적 의미가 퇴색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아동에게 문화예술교육으로 ‘홍림교’에 대한 지역문화가치와 공간적 특색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했다. 아이들에게 ‘배고픈 다리’ 콘텐츠를 바탕으로 문화자원과 놀이, 예술의 융합이라는 수업방식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편편 문화Dream>을 기획했다. 지역문화를 활용하여 처음 선보이는 교육프로그램인 만큼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두었다. 홍림교를 둘러보며 풍경 그리기, 동네 할아버지·할머니와의 인터뷰하기, 홍림교에 대한 추억, 유래 등 이야기를 모아 탐방보고서 만들기, 홍림교 주사위 게임판 제작하기, ‘홍림교 전래동화구연’의 특별한 강의, 광주천 다리 탐방으로 우리지역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나만의 ‘홍림교’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한 후 아트북 만들기를 끝으로 3기수의 아이들과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한 기수 당 8회 차에 담아낸 빠듯한 프로그램일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이 대견스러웠다. 아이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홍림교’에 대한 이야기로 왁자지껄했고 저마다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체험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9 토요문화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역문화 콘텐츠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어 뿌듯한 한 해가 되었다.

광주어린이요들합창단

즐거운 노래와 놀이가 함께하는 토요세계문화여행



교육장소	광주어린이요들합창단실
교육대상	초등.중학생
교육장르	음악
문의	T 010-7627-0438 E j1860414@hanmail.net

단체소개
2015년 9월에 창단되어, 꼭 노래를 잘하지는 않아도, 노래를 배우고 부르며 행복해 하는 아이들을 모아 함께 노래하고 뛰놀며 이웃에게 노래로 봉사하는 행복한 합창단입니다.

프로그램소개
노래를 통해 ‘나 자신이 얼마나 멋진 악기’ 인지를 알게 되고 힘 있고 멋진 목소리로 아름다운 우리 동요와, 세계각지의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배워갑니다.

2015년 9월 창단 이래 우리 합창단에서 처음 노래했던 아이들이 올해 수능을 보았다. “선생님 시험보고 연습하러 갈게요.” 덩치는 이미 선생님보다 커버린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합창단을 잊지 않고 다시 오겠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 합창단은 아이들의 유년시절 추억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어린이요들합창단>은 여느 다른 합창단과 달리 오디션이 없다. 그저 함께 노래하고 싶다면 도움이 필요한아이들도 함께 한다. 그래서일까? 자로 잰 듯 아름다운 선율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배운 대로 입을 동그랗게 열고 최선을 다해 노래한다. 노래하며 순간순간 새로운 곡으로 목소리를 내어 화음을 엉망으로 만드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또한 괜찮다. 아이들은 왁자지껄 저만의 목소리를 내다가도 스스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맞춰가는 법을 배워나갔다. 스무 명의 친구들 중 누구 하나 못난 목소리 없이 누구 하나 주눅 든 모습 없이 모두 ‘하나의 화음’이 되었다.
외동 혹은 두 자녀가 대부분인 요즘 세상에 어떻게 아이들은 처음본 형, 동생들과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며 함께 웃고, 장난하고 노래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처음 본 사람과 격의 없이 친해지는 법을 알고 있다. “ 너 몇 학년 이야” 하며 말문을 여는 아이들 수줍어서 먼저 말을 건네지 못했던 아이도 기다렸다는 듯, “난 3학년 너는?”하고 대답한다. 이 두 마디면,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 ‘절친’이 될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다. 서로의 ‘절친’이 되어버린 스무 명의 아이들은 매 주 토요일 서로 까르르 웃으며 신나게 노래하고 맛있는 간식을 나눠먹으며 재밌게 보냈다. 고아원 봉사공연과 유안근린공원 발표회를 선보이며 우리의 따뜻함을 전해주기도 했다. 먼 훗날 이 아이들이 이 시간을 생각할 때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한다.

메이아이

신나는 자연탐험대 하나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교육장소	광주광역시근린공원 일대
교육대상	초등학교생과 그 가족
교육장르	자연예술교육
문의	T 062-431-1505 E mayihi@naver.com

단체소개
자연을 중심으로 사람과 문화, 역사와 예술 등 우리 시대 다양한 시각 대상들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자연의 감성과 인성을 배우도록 더 즐거운 자연예술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소개
·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광주시 근린공원에서 활동하는 자연+놀이+예술을 결합한 문화예술교육
· 소외계층 참여유도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기회제공 및 사회성, 감수성 함양

메이아이는 자연은 ‘최고의 놀이터! 최고의 배움터’라는 취지 아래, 자연을 재료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자연에서 함께하여 지속가능한 자연교육이 이어지도록 가족모두가 참여하는 주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본 프로그램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야외에서 오감으로 느끼며 가족과 또래친구들이 함께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관계형성을 위한 준비놀이와 ‘배려 그리고 함께’의 가치를 일깨우는 자연놀이로 설계했다.

온 들녘에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봄
- 활짝 웃고 있는 꽃들과 눈을 맞추는 계절

온 세상이 초록빛으로 물들어 생생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여름
- 이 세상의 곤충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동반자임을 느낄 수 있는 계절

울긋불긋 가을빛으로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가을
- 자연의 변화를 만끽하며 다양한 열매와 씨앗을 만날 수 있는 계절

추운 겨울
- 봄을 준비하는 부지런하고 현명한 자연을 통해 시작과 준비를 배우는 계절

우리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에 감사하고 함께 소통하며 예술을 사랑하는 활동을 경험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신나는 자연탐험대>활동을 통해 맘껏 뛰어놀던 따뜻한 고향의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9년 자연과 함께했기에 더욱 특별한 한 해가 되었을 탐험가족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다. 메이아이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린이들과 더 많은 가족들이 자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실한 조력자가 되어 생기 가득한 내년을 기약해본다.

협동조합 산림문화연구소

숲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자연미술



교육장소	서구 백석산
교육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장르	통합예술(생태, 미술)
문의	T 062-371-3379 E cjsflgid67@hanmail.net

단체소개
성장주기에 따른 연령별 대상에게 숲의 다양한 가치와 숲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 환경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 전파와 생애주기 산림교육, 산림치유 등 산림문화 활동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소개
백석산에서 아이들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숲을 오감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길 지향한다. 숲을 무대삼고 도화지 삼아 그리고 만들고 전시하는 등 자연미술로 표현하는 활동과 숲을 탐험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활동을 추구한다.

숲을 자라는 아이들, 감성을 키운다.
나의 어릴 적 동네는 여름이면 아이들이 모여 집에서 가져온 찌그러진 냄비를 들고 소를 몰며 풀을 먹이러 숲으로 간다. 소는 숲에 풀어 놓고 냄비에 가재를 잡아 감자 삶아 먹으려고 피운 불에 가재를 굽는다. 어린 동생을 귀찮게 여겨 따라 오지 못하게 한 오빠도, 소를 잃어버린 일도 내 기억 속에는 희미해져 가지만 숲에서 놀이터 삼아 놀던 기억은 생생하다. 숲에 쏟아지는 햇살과 숲에서 부는 바람소리는 감성을 자극하여 지금의 나를 만들어왔듯이, 숲은 우리 아이들의 감성을 키우고 성장시킬 것이다.
금호동 백석산 작은 마을 숲, 봄이면 소나무 숲 사이로 연두 빛 나뭇잎이 돌아나고, 분홍빛 꽃잎이 날리던 숲길을 따라 아이들의 재잘거리던 소리는 숲을 놀이터로 변신시킨다. 백석산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곤충의 알록달록 등판무늬, 들꽃의 다양한 생김새 숲은 수많은 모습이 숨어있는 곳이다. 아이들은 숲의 모습을 찾아내 나만의 디자인을 만든다. 애벌레는 나뭇잎 닮아 숨바꼭질을 하고 나비는 화려한 모습으로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한다. 여름이 온 숲은 푸름을 더하고 뜨거운 날씨는 장맛비를 부른다. 숲길로 들어선 아이들은 나뭇가지를 연장삼아 흙을 파고 물길을 만든다. 여기저기 퍼내온 흙으로 물감을 만들고 까만 도화지에 ‘흙물감’ 그림을 그린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숲을 가득 채우고 후드득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커다란 우산 속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숲의 ‘애벌레’가 된다. 꽃잎이 진 자리에 초록 열매가 영글어 가고, 초록빛 짙게 머금은 풀잎에는 메뚜기들이 한창이다.
형과 동생, 언니, 누나가 되어 아이들은 숲에서 자란다. 숲에서 찾은 보물들은 아이들의 작품이 되고 감각을 회복시킨다. 숲을 담은 아이들 오감으로 나누고 감성을 키운다. 점점 도시 숲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활동했던 이곳, 백석산이 20년 후에도 보존되어 그때 만나자는 약속을 해본다. 아이들의 시간이 흐르고 기억 너머 숲 내음과 파란하늘, 나뭇잎의 바스락거림이 아이들의 미래에 작은 숨구멍 같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은암미술관

오늘 점심은 누구누구 도시락



교육장소	은암미술관
교육대상	초등학교 고학년
교육장르	시각미술, 공예, 체험
문의	T 062-226-6677 E eunam_art@hanmail.net

단체소개
은암미술관은 광주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전시와 세미나, 강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주가 문화도시로서 한 발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소개
“오늘은 어떤 재료가 모인 예술도시락을 먹어볼까?”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을 담은 ‘도시락’을 아카이브로 활용하여 여러 사람과 ‘나’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에게 “넌 꿈이 뭐야?”라고 물었을 때, 우물쭈물 대답하길 어려워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다. 분명 좋고 싫음과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자신에게 다가 온 신체적, 감정적인 혼란스러움으로 인해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오늘 점심은 누구누구 도시락〉이라는 프로그램은 ‘누구’ 속에 아이들 각자의 이름을 넣어, 가령 “오늘은 ‘은우’네 도시락을 먹어보자.”라는 취지로 매 수업시간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담은 ‘도시락’ 작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자신의 ‘도시락’에 대해 또래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진행하고자 했다. 아이들은 미술관에서 만든 ‘예술도시락’을 가지고 엄마, 아빠, 혹은 형, 언니, 선생님과 함께 소풍을 갔다. 아이들과 함께한 부모님, 형제, 자매 또는 선생님은 현장학습으로 관람한 미술작품을 보며 ‘좋고 싫음’에 대해, ‘내가 만든 예술도시락’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러한 경험은 아이의 성향, 특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초기 1~2차시를 진행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은 무언가를 보고 그저 따라 하기 바쁘거나 잘해내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게 하지 못한 모습에 주눅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강사진은 아이들에게 ‘나’에 대해 알아가는 활동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려 노력했고 점차 주눅이 들고 쭈뼛쭈뼛한 모습에서 자신감에 찬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총 2기수, 스물 네 번의 만남 동안 칸칸이 쌓아올린 ‘나의 도시락’으로 자신감을 성취하고 ‘나’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된 시간이었다. 이는 아이들에게 사춘기의 아이들에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라 자부한다.

댄스컴퍼니베베

우리가족 ‘몸’ 사용설명서



교육장소	광주 효천지구 제일 풍경채 1단지 작은 도서관
교육대상	가족
교육장르	춤(무용)
문의	T 010-8667-7799 E bebeballet@naver.com

단체소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예술강사들과 함께 단순한 기능전수 교육을 넘어서 다양한 장르와 결합한 통합형 프로그램과 함께 세대(가족)간 소통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

프로그램소개
몸을 매개로 온 가족이 함께 소통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다. 기본적인 무용 동작들은 배워 나가되, 가족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만의 창작 발레컬을 만들어 발표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가족 ‘몸’ 사용설명서〉는 지친 현대인들에게 가족 간, 세대 간에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주고자 시작되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를 마주보며
저녁에는 잦은 회식으로 뱃살이 늘어나는 아빠
육아와 가사 혹은 맞벌이 직장 생활로 쌓인
스트레스로 어깨에 곰 한 마리를 달고 사는 엄마
잦은 스마트폰 사용과 컴퓨터게임으로
거북목이 되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우리 가족의 ‘몸’은 현대화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운동부족, 소통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더불어 각자의 생활이 너무나도 바빠진 나머지 일주일 중 하루마저도 다 같이 얼굴을 보며 이야기 하는 일이 힘들어졌다. 따라서 우리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주말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자신과 가족의 ‘몸’ 상태를 들여다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 프로그램의 취지는 간단명료하다! 내 몸을 돌보지 않고 함부로 살아온 아빠, 엄마, 나의 삶에 대해 반성하는 것!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더욱 끈끈해지는 것!
〈우리가족 ‘몸’ 사용설명서〉는 단순한 무용기술 배움 수업이 아니다. 우리 몸의 다양한 구조와 쓰임을 알아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신체 ‘대화’라고 할 수 있다. 몸, 가족, 문화예술교육이 하나가 되어 가족 간의 대화를 유도한다. 그동안 있었던 부모님의 꾸중, 아이들의 회피, 소통의 단절에서 벗어나, 서로 말하고 싶었지만 쉽게 할 수 없었던 ‘대화’를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을 통해 우리 가족만의 ‘몸 사용설명서’가 탄생하고 자연스럽게 유대감과 친밀감이 향상되며 가족 간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었다. 제각각 스마트폰을 하거나 TV만 보며 누워있는 지루한 주말이 아닌 함께 몸을 부대끼며 까르르 웃음이 넘치고 신나는 주말이 되는 그날까지!

광주시티 문화예술단

세상을 향해 Do! Do! Do! Dream



교육장소	남구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교육대상	초등학교 저학년과 그 부모
교육장르	음악, 미술(융복합)
문의	T 062-955-2006 E gcag153@naver.com

단체소개
문화와 예술, 지역의 역사 등을 소재로 문화예술교육 및 공연기획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예술단체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가족이 하나가 되고 공연을 통해 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소개
꿈이 피어나는 문화예술교육!
‘난타’를 매개로 세계 각 나라와 가정문화를 배우며, 고유한 리듬을 자유롭게 연주해보는 가족 중심의 창의소통형 프로그램

2018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인큐베이팅 〈가족과 함께 뛰비뛰바〉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꿈이 피어나는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하며 각자의 꿈을 가지고 모인 가족들과 함께 수줍은 발걸음을 내딛었다. 작은 몸짓에서 손끝으로 각 가정의 상황과 저마다 가진 아픔, 힘듦을 표현해내며 울고 웃는 시간을 보냈다. 2019 〈세상을 향해 Do! Do! Do! Dream!〉은 단순한 가족 소통에서 더 나아가 세계 방방곡곡 각 나라의 문화와 음악을 주제로 진행했다. 실제로 다녀올 수 없었기에 매 차시 수업은 나라별 생활풍습, 인사법, 대표적인 음악 등을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도록 구성했다. 첫 번째, 가족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표현하여 너와 내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법을 체득했다. 타인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 우리 가족에 대한 배려, 같이 수업을 듣는 다른 가족에 대한 배려 더 나아가 공동체에 대한 배려까지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가족과 함께 몸으로 부딪히고 몇 시간 동안 왁자지껄 한바탕 웃고 이야기하며 보내는 시간은 어색했던 부자시간, 모녀시간, 부녀시간, 모자시간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스킨십만큼 단기간에 가까워질 수 있는 소통방법이 있을까!

세 번째,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호칭, 이름 대신에 별명을 지어 부르는 규칙을 정했다. 별칭을 부르며 참여하는 것은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 아빠에게 덜 의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모의 입장에서 마냥 품 안의 자식일줄 알았던 아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엄마의 품에서 살짝 벗어난 아이는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부모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믿어줄 준비를 한다.

매 차시 배워보는 다양한 나라의 다채로운 문화는 참여하는 가족 모두에게 지루함을 날리고 신선함을 주기 충분했다. 모든 순간 아이들은 자유롭게 표현하며 마음껏 상상하기 위해 Do! Do! Do! 움직인다. 그들의 찬란한 꿈을 위하여 !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

bj걸리버의 세계요리여행



교육장소	월산동 마을 청소년 공간 ‘친구네 집’
교육대상	초등 고학년 및 중등
교육장르	문화, 요리
문의	T 062-376-1328 E hwj3761328@hanmail.net

단체소개
2009년 삼성꿈장학재단의 후원으로 광주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소외지역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자 창립된 비영리단체

프로그램소개
다양한 식재료에 대한 탐색과 놀이로 요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공동요리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와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을 돕는 요리 문화 활동

월산동은 현재 재개발로 바쁘다. 마을이 온통 공사 중이라 오고가는 길목마다 먼지가 폴폴 날리고 시끄럽다. 하루가 지나면 자주 오고가던 가게가 텅 비어 있고, 또 하루가 지나면 건물이 무너져 내리기 일쑤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등, 학교 길은 변함이 없다. 그냥 가던 대로 가방을 짊어지고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간다. 점점 공사판이 되어가는 동네에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는 줄어들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있다. 설사 개발이 되어 보다 좋은 시설과 환경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지역 아이들이 혜택을 누리기에는 꽤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월산동 아이들은 방과 후, 혹은 학교가 쉬는 날 무엇을 하며 놀까. 토요문화학교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토요일마다 월산동 청소년 공간 ‘친구네 집’에 모였다. 쉽고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여러 요리를 역할을 분담하고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사라진 밥상공동체 문화를 경험했다. 입시 위주의 결과중시 사회에서 무시되어왔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호기심과 도전정신이 조금씩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또한 우리는 참여하는 친구들이 본 프로그램을 하나의 놀이로 여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 놀이야말로 아이들이 새로운 경험을 쌓고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최고의 활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요리하기’에 각자의 상상력을 더하여 새로운 ‘요리’를 탄생시켰다. 새로운 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먼저 발을 내딛고 탐색할 수 있는 용기를 길러주는 활동이 되기를 바랐다. 아이들은 매 회마다 놀이와 결합된 식재료 탐색 과정 및 조리과정을 직접 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선택과 결정을 자연스럽게 반복했고, 조별 의사소통으로 서로의 의견을 협의해보는 경험을 했다. 그렇게 아이들은 조금씩, 발을 내딛었다. 짧은 회차가 아쉬웠지만, 우리는 토요문화학교를 통해 월산동 아이들의 빛나는 눈을 목격했다. 아이들의 주말이 공사판의 회색빛과 차가움이 아닌 활기와 웃음이 넘치는 따뜻함으로 가득하길 희망한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 아이들이 빛을 잃지 않도록 경험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마을의 변화가 아이들에게도 좋은 변화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말이다.

오색빛협동조합

광주, 아라?아라!



교육장소	오색빛협동조합, 광주 문화체험지 일대
교육대상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
교육장르	체험활동 및 공예교육
문의	T 062-433-8794 E 4338794@naver.com

단체소개
광주 남구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으로 교육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청년들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을 위한 사회적 가치 환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로그램 소개
광주의 즐거운 곳을 돌아다니며 광주에 대하여 점차 ‘아라’ (알아)간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이 평소에 알지 못했던 장소나, 공동체와 함께 장소에 대한 다양한 느낌을 접하고,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릴 적 가족과의 나들이 추억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꽤 큰 영향을 끼친다. 2017~2018년 〈프레임으로 노는 세상 시즌 1,2〉를 진행하면서 ‘오색빛협동조합’과 강사진들은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놀러갈 곳을 찾아야 하고, 찾아 가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함을 알게 되었다. 이를 까닭으로 ‘오색빛협동조합’은 아동·청소년에게 우리 주변에 재밌는 즐길 거리와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인지하지 못했던 지역의 명소들을 알려주는 ‘탐험’을 시도했다.

올 한해 함께했던 탐험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은 성장했다. 수업 초반 시골의 냄새를 꺼려하거나 벌레들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무서움과 거리낌보다는 호기심과 열정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들이 탐험에서 겪은 느낌을 표현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친다. 똑같은 대상을 보고 이전과는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과 내용이 풍부해진 모습을 보였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알게 되어 인정하며, 존중하게 되는 과정을 경험했다.

〈아라아라탐험대〉는 2019년 한 해 동안, 빗고을공예창작촌, 평촌마을, 발산마을, 양림동 펭귄마을, 무등산 전통문화관, 광주 상무시민조각공원, 광주천, 푸른길 등을 탐험하면서 각 탐험지가 가지는 지역적 특징을 스스로 보고 느끼며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장소별로 받은 느낌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아라아라탐험대〉의 〈광주 지도〉는 어른들조차도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 볼 만큼 색다른 내용들로 가득했다. 이를 통하여 강사진은 아동·청소년들이 단순히 교실에서 배우는 수업보다 야외에서 받는 영감의 크기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탐험을 통해 익혔던 장소의 모습, 나의 감정 등을 지도라는 매개를 통해 표현하며 어렸을 적 경험의 폭을 조금 더 넓혀주고자 했다.

태이움직임 교육연구소

나는! 춤추는 안무가



교육장소	소촌아트팩토리
교육대상	초등 고학년
교육장르	무용
문의	T 010-2620-7938 E taei@hanmail.net

단체소개
놀이가 춤이 되는 ‘일상’이라는 무대에서 자기다움의 언어를 몸으로 표현하고, 춤으로 소통하고, 춤으로 전시 및 공연하여 가족,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춤을 선물하는 커뮤니티댄스 작업을 함.

프로그램소개
일상의 이야기를 놀이로, 춤으로 표현 및 창작, 공연, 전시하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움직임요소를 넣어 직접 안무해보는 창작무용 프로그램

“놀이가 춤이 되요~”
춤! 너무 재미있어요.
춤!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줘요.
춤! 제 몸이 이렇게 춤추고 있다는 게 신기해요.
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스토리가 있어서 좋아요.
춤! 저의 일상의 이야기가 춤이 되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어요.
- 〈나는! 춤추는 안무가〉수업 인터뷰 중

3년 동안 가족들에게 소통과 어울림의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는 초등 고학년 학생들에게 춤을 선물하고자 ‘나는! 춤추는 안무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고학년으로써 ‘일상’이라는 이야기가 서로에게 공통점이 있어 예술작업과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표현’의 즐거움을 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학교, 집 등 일상에서 만나는 방송댄스 등은 누가 원본과 똑같이 춤을 추느냐가 주목적이었던 학생들은 그 안에 어떤 스토리가 있고, 다양한 감정이 있고, 동작이 있고 등을 탐색하면서 춤이 안무되는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기본 스텝, 상상놀이, 감정표현, 등을 모듬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일상의 이야기를 주제로 자연스럽게 춤이 되는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짓과 에너지로 표현되는 ‘감정’과 소통할 수 있는 창작 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무가처럼 상상하고 창작하면서 자신의 일상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예술과 일상이 만나는 창작무용을 통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다움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춤을 연마하기보다 자율적인 표현과 창작의 즐거움을 통해 친구, 가족, 이웃들에게 소통의 도구이자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미용박물관

놀러와! 신나는 꿈다락 놀이터로!



교육장소	한국미용박물관 교육실
교육대상	초등학생
교육장르	전통문화 및 예술
문의	T 062-514-6622 E kbm6622@hanmail.net

단체소개
한국미용박물관은 전통미용유물을 통해 문화유산을 흥미롭게 접함으로써 역사학적 인식과 사고능력, 이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예술 활동을 통한 과정과 관계의 중요성에 중심을 둔 교육을 지향하는 단체이다.

프로그램소개
전통예술을 통해 또래들과 함께 탐구하며 하나가 되는 ‘놀러와! 신나는 꿈다락 놀이터로!’는 활동적·인문학적 놀이학습을 통해 자유로운 상상표현으로 나를 발견하고 성취감과 협동심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이 아닌 학교 밖 다양한 역사 이야기가 숨쉬는 박물관에서 상호 소통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놀러와! 신나는 꿈다락 놀이터로!’는 다양한 유물 콘텐츠와 전통예술을 통해 직접체험하고 새롭게 만들어보는 창의활동입니다.

박물관의 특색 있는 전통미용 유물들과 조상들 의복, 장신구, 생활모습을 엿볼 수 있는 여러 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들로 8주를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의 전통미용문화와 복식의 다양성을 쉽게 이해하며 ‘본 것’과 ‘느낀 것’의 습득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자 하였고, 아이들이 박물관을 그저 ‘관람’ 하는 것이 아닌 유물들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모습을 느끼고 현재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발상이 이어지길 바라며 매주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낯설게만 느끼던 박물관에서 어렵게 자기소개를 하던 아이들이 한 차시, 한 차시 지날수록 박물관을 편안한 공간으로 느끼며 유물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며 시작된 시간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바뀌곤 합니다. 기수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시간을 만들고자 강사진들과 고민하고 노력하던 시간들이 힘들기도 했지만 매주 새로운 작품을 탄생해 내는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을 보며 도리어 많은 점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배우기에 바쁜 아이들에게 한국의 전통미용 유물을 접하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색다른 경험을 전해주고, 즐거운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생활정치 발전소

마을을 그리는 꼬마 셰프



교육장소	서창한옥문화관
교육대상	초등학생
교육장르	통합미술, 체험
문의	T 010-7755-5653 E stella830@naver.com

단체소개
마을네트워크 연결 및 마을교육 프로그램 진행등 삶의 터전인 지역과 마을에서 주민이 주인 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 생활을 변화시키는 ‘시민직접정치’를 지향 한다.

프로그램소개
마을을 중심인 아이들이 예술교육을 통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어 마을의 문화예술교육을 직접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마을 속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진행한다.

옛날에는 밥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밖으로 나가 뛰면서 논배미가 놀이터가 되었고, 황토밭이 방바닥이 되어 뒹굴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핸드폰이 하나의 놀이세상이 되고 컴퓨터는 친구가 되어버린 아이들에게 소통과 재미, 신남, 즐거움이 가득한 ‘현실 놀이터’를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생활정치발전소는 2019년 한해를 서창이란 작은 소박한 동네~ 황토밭과 산, 들로 쌓여 있는 자연속의 자리 잡고 있는 터전에서 신나게 놀며 체험하고 아이들의 작은 이야기가 마을과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꾸며 보았습니다.

꿈지락꿈지락 아이들이 만들어 가는 아주 작은 예술품 하나가 놀잇감이 될 수 있었으며 마을을 놀러 오신 손님들과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이란 미소를 선사하였습니다.

심심하고 허전한 동네의 입구를 낭자와 도령으로 만들어 화려하게 꾸미고, 동네의 주정차 문제를 아이들의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똑딱 똑딱’ 망치질과 ‘쓱쓱 쓱쓱’ 톱질소리로 아름다운 주차 금지 화분을 만들고 골목길 나무의 이름을 찾아주며 서창이라는 작은 마을을 아이들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득 채웠습니다.

혼자 놀았던 사춘기의 예민한 아이들이 문화예술의 기회를 통하여 자존감을 회복하고 숨겨진 창의력을 발휘하며 아이들 마음속에 혼자가 아닌 ‘같이’라는 공동체 마음을 심어주는 기회가 되어 재미와 흥미를 썩 띄우며 작은 동네를 요리하고 그려보는 알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청소년 영화제 기획교실 우리가 만드는 영화제



교육장소	광주독립영화관
교육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교육장르	영상 · 미디어
문의	T 062-222-0196 E gjcinema@daum.net

단체소개

사단법인 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광주지역의 영상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창작 및 향유 문화 확산과 독립 영화 관람기회 확대를 통해 영화 · 영상문화 저변 확대 와 제작활성화 등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로그램소개

청소년 영화제 기획교실 “우리가 만드는 영화제” 는 청소년들이 영화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청소년과 그 가족이 ‘영화’ 라는 예술장르를 함께 배우고 제작, 운영하며 영화관련 직업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사단법인 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춘기 호기심과 상상력 그리고 여러 고민들을 학업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문화예술교육으로 해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청소년 영화제 기획교실“우리가 만드는 영화제”를 만들게 되었다.

이는 청소년과 그 가족이 함께 만들 수 있고, 볼 수 있고, 더욱이 영화를 통해 청소년 내면의 이야기를 담아 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청소년의 호기심, 상상력 그리고 내면 속 고민들을 영화예술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직접 영화를 제작하여 영화제를 운영함으로써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가족 간의 이해를 돕는 소통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이다. 그렇기에 학교와 학원에 하루 종일 묶여있고 가족과는 소통이 점점 단절되어가는 청소년과 그 가족을 교육대상으로 삼았다.

영화제작에 앞서 영화의 종류, 장르, 표현방식, 시나리오, 편집, 배우처럼 연기해보기 등의 제작부터 상영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제작의 기본적인 방식을 터득하여 청소년과 그 가족들은 영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더불어 영화를 만들면서 만들어진 영화를 보고 서로가 몰랐던 이야기를 꺼내보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도 마련했다. 더 나아가 나와 친구,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영화제를 기획함으로써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소통을 배우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청소년 스스로 문화기획자라는 역할체험을 할 수 있었고 세 번째, 청소년과 그 가족은 함께 영화를 제작하면 학원과 학교를 벗어난 여가문화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영화제를 운영함으로써 서로의 영화를 통해 또래, 가족과의 흔치 않은 추억을 쌓아 나갔다.

놀이요점빵

달려라, 서창이네 작은농부



교육장소	서창향토문화마을 일대
교육대상	초 · 중등
교육장르	노작활동
문의	T 010-9401-2690 E noliyo1010@naver.com

단체소개

‘놀이요점빵’ 은 놀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프로그램소개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작활동을 통해 자신이 직접 텃밭을 가꾸고 농작물을 길러 요리하는 ‘느린 먹거리’ 를 알아가고 이 과정에서 마을 어르신과 소통하며 배우는 조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실험과 도전의 삽질

‘놀이요점빵’은 2017년부터 아이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고 알아가며 함께 성장해가고 있는 단체이다. 그 시작은 우리가 생활하는 서창 마을 곳곳을 누비는 ‘마을모험가’로, 그 이듬해에는 관찰자이자 참여자로써 마을의 요소요소를 기록하는 ‘마을 신문 기자’로 활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단려있는 관계가 아닌 마을에서 함께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마음을 열고 마을 곳곳에 숨어 있는 가치들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쌓았다. 우리의 가장 큰 화두는 ‘소통’이었다.

올해의 화두는 ‘노작’이었다. 항상 주어지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스스로가 땀 흘리며 노력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고민이 있었다. 그 속에서 재미를 찾고 싶었다. 아이들은 자신만의 작은 밭을 소유하게 되었고 본인이 직접 호미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풀을 뽑으며 땀을 흘렸다.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때로는 말라버리거나 병충해 때문에 죽기도 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농작물을 보며 아이들은 신기해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큰 스승은 마을 어르신이었다. 그동안 쌓아왔던 유대감 덕분인지 밭을 일구는 과정부터 잡초는 어떻게 제거해야 하고 비료는 언제 얼마나 줘야 하는지 등 매주 아이들의 텃밭을 찾아주시며 항상 관심을 가져야만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지혜를 알려주셨다. 우리는 2019년 화두였던 ‘소통’과 ‘노작’ 모두를 온 몸으로 겪어냈다.

땀 흘리는 과정은 더디고 고단했지만 직접 기른 채소로 이런저런 요리도 해먹어보며 작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었던 올 한 해의 과정이 아이들의 성장에 작은 씨앗이 되었길...

‘놀이요점빵’ 대표 이보미

책과사람 주식회사

포토북-사진으로 보는 100년의 시간 여행 양림동 근대문화권



교육장소	사직도서관
교육대상	초등저학년 · 고학년
교육장르	시각 · 미술, 문학, 사진
문의	T 010-6612-3853 E sensemin2011@hanmail.net

단체소개
책과 사람의 소통을 통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원칙을 추구하면서 승-승적 토론을 통한 훈훈한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고 문화를 새롭게 해석하여 계승 · 발전시킨다.

프로그램소개
학습자들이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양림동 근대문화권을 직접 탐방하여 사진을 촬영 후 인화하여,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하고 문화 지도 및 그림책을 제작 · 완성한다.

책과사람주식회사는 독서토론 및 체험, 전래놀이 및 전통학습, 독서문화체험 및 진로비전 등 전문 강사를 통한 전통문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계승 발전하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남구의 문화 및 인물을 탐구하고 100년 전 양림동의 역사적 현장인 선교사 사택 탐방 및 촬영한 사진을 활용하여 역사 그림책 및 문화지도를 완성하였다. 양림동의 마스코트인 이야기배달부 ‘동개비’에 대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한 후, 새로 쓰는 ‘동개비 이야기 그림책’을 제작하였다. 또한 광주광역시 남구의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팽귤마을>을 탐방하고 스토리텔링 및 재활용품을 활용한 창작활동을 통해 미래의 양림동을 설계하고 조감도를 만들어 보았다.

광주 기독교문화 유적지를 비롯한 근현대사 현장을 직접 탐방하면서 동서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양림동을 체험하며 우리나라 및 광주의 역사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과거의 삶을 기반으로 현재의 삶의 기반을 확립하고, 창의성 및 문제해결능력을 길러 미래사회에 부흥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자신이 찍은 현장 사진을 활용하여 문화 지도 및 그림책을 제작해 보면서 자라나는 청소년인 학습자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우리 문화에 대해 서로 공유 및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사진기술 및 다양한 예술창작활동을 통해 미적 감각을 높이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여 융·복합적인 사고를 증진시켰다.

따라서 「포토북-사진으로 보는 100년의 시간 여행(양림동 근대문화권)」은 자아정체성이 확립되기 시작하는 청소년시기에 사진을 활용한 다양한 역사 · 문화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인문정원술

양림동건축학교 3



교육장소	광주 시립사직도서관 지하 세미나실
교육대상	초등 고학년 ~ 중등 저학년
교육장르	건축
문의	T 010-6899-6744 E seinee1998@hanmil.net

단체소개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 및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설립 되었다. 문화자원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인문학과 예술을 접목시킨 다양한 교육, 예술체험, 축제, 공연 콘텐츠를 기획해 수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소개
양림동 근대건축물과 사직동 한옥들을 탐방하며 ‘사람과 공간’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와 내 가족의 공간들을 설계해보고, 현대 콘크리트 건물의 기본 골조인 르 꼬르뷔제의 도미노시스템을 만든 후, 그것을 토대로 ‘나만의 모던하우스’를 디자인하고 조경까지 해보는 생생건축프로그램

‘양림동건축학교’는 3년째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양림동의 근대 건축물들과 사직동 한옥들을 탐사하며 건축의 주요 요소들에 대해 배우고 근대건축 체험을 공유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다. 올해는 ‘나’와 내 가족의 꿈에 대해 숙고하며 약식 평면도와 일점투시도로 공간을 설계해본 후 모던건축 거장 ‘르 꼬르뷔제’가 만든 도미노시스템 모형을 제작하고, 그것을 골조로 삼아 ‘나만의 모던하우스’를 만들어보는 수업을 진행했다. 다채로운 재료들로 인테리어와 내장, 외장을 해보고 조경까지 해봄으로써 종합예술인 ‘건축’을 약식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수업 목표였다. 친구들이 각자의 디자인 및 구현과정에서 어느 누구 하나 똑같지 않는 놀랍도록 개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본 골조인 도미노시스템은 똑같지만 그것을 토대로 각기 다른 용도와 디자인의 건물을 만들어가는 모습에서 열정과 창의성을 뚜렷하게 보여준 것이다. 지역 문화자산에 대해 배우고 근대건축물 골조를 기본으로 ‘나만의 건축’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 인간과 건축의 관계에 대해 숙고해보고, 인간의 위대함을 믿었던 ‘근대’의 에스프리를 접하고 감성적으로 체득해보며 진로탐색도 해볼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사)미래인재UNIV

푸드아트 놀이터 물감주스



교육장소	(사)미래인재UNIV 교육실
교육대상	초등 저학년
교육장르	미술과 요리 융합교육
문의	T 062-953-8870 E miraeuniv@naver.com

단체소개
미래인재UNIV는 청소년들이 교육, 문화, 체험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도록 하며, 혁신적인 진로, 직업활동 모델을 제시하여 젊은이들이 자신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 창의적인 도전을 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소개
“재밋게 놀면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을까?”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채소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 물감주스는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
향기롭고 다채로운 과일과 야채를 이용한 요리미술

「푸드 아트 놀이터 “물감주스”」를 하는 동안 우리 단체는 너무 행복했다. 상큼한 오이향, 싱그러운 샐러리 향, 그리고 당근, 비트의 빨간 색감, 치아씨드의 말랑말랑한 촉감까지. 어른인 우리도 자극적인 오감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에게 매주 토요일은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하면서 무료하게 보내는 날이 아닌 과일과 채소, 곡물과 견과류로 오감을 자극하며 생동감 넘치게 보내는 하루였다. 자연의 색감과 향기, 감촉, 그리고 맛의 자극들은 아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프로그램 시작과 마무리에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위해 강사들은 재료의 주문, 재료의 손질, 설거지와 음식물의 처리, 그릇 준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아이들과 만남을 최고로 준비해준 강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이 보다 더 길었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더 긴 호흡의 진행 속에서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체험 기회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가득하다.

「푸드 아트 놀이터 “물감주스”」가 끝날 무렵 엄마들과의 연결고리였던 SNS소통창구는 난리가 났다. “교육기간이 너무 짧아요.”, “아이들이 일주일 중 토요일을 가장 기다려요. 너무 좋아했어요.”, “돈을 주고라도 하고 싶어요.” 등 뜨거운 반응들은 강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크나큰 응답이 되었다. 내년에도 광산구 월곡동의 어린이들에게 올해보다 더 새롭고, 알찬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로 다시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두드림평생교육원

놀이 탐험대~ 우리는 골목 대장!!



교육장소	두드림평생교육원
교육대상	초등학교 1학년~3학년
교육장르	놀이중심의 문화예술 통합장르
문의	T 062-383-8585 E bravo9755@nate.com

단체소개
인간 중심의 인적자원 개발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교육하고 있음.

프로그램소개
또래 집단과 우리들의 놀이와 부모님들의 놀이를 해보고 익히며, 놀이를 통해 ‘같이 노는 것’의 가치를 배우고 우리들만의 창의적인 놀이를 만들어보는
창의인성놀이 프로그램.

놀이 공간과 놀이 문화의 부족, 미세먼지로 뒤덮인 하늘 등 다양한 환경 요인으로 요즘 우리 아이들은 밖에서 자유롭게 놀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점점 놀이에서 멀어지고 있고, 또 놀이가 멀어짐으로 친구들과 서로 교감하지 못하고 혼자서 놀이하는 스마트기기의 게임에 집중하고 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놀이를 통해 “같이 하는 것의 가치”를 알려주어 타인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놀이 탐험대~ 우리는 골목대장!」을 기획, 진행하게 되었다.

교육의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아이들 스스로 회의를 통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지도하고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놀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게 되었고 불만과 다툼보다는 항상 웃음꽃이 피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단순히 놀이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문화예술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관심이 적극적으로 필요함을 느꼈다. 매 회 수업 종료 후 동영상과 사진 등으로 오늘의 놀이에 대해 알려주고자 노력했다. 또한 아이들의 반응과 벌어진 상황들을 부모님들에게 전해주어 관심을 유도하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놀이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이러한 시도들 덕분에 본 프로그램은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다.

“우리 어릴 때 정말 이렇게 놀았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즐거움을 모르고 자라왔네요~”

라며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에 부모님들은 자연스레 유년시절 추억을 회상하기도 하였다. “일주일에 한번만 토요문화학교에 오는 게 아쉽다.” 고 하는 막내 꼬마친구는 매일매일 토요문화학교에 가고 싶다고 할 만큼 아이들은 놀이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고 그동안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놀이를 통하여 아이들은 싸우는 법, 화해하는 법, 배려하는 법, 양보하는 법들을 배웠으며 현재도 우리 아이들은 학교 운동장 어디선가 우리만의 놀이를 즐기며 성장하고 있을 것이란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극단 캣츠

이야기로 풀어보는 탈놀이, 탈춤 뮤지컬



교육장소	광천청소년문화의집
교육대상	초등학생
교육장르	탈춤
문의	T 010-6226-8741 E woopys@daum.net

단체소개
본 단체는 문화예술교육 강사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필요한 지역 및 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소개
아이들이 스스로 교육에 참여하여 끼와 재능을 발견하여 아이들의 장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한다. 문화예술교육을 함으로써 문화예술이란 어렵지 않고 재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교육 이후에도 아이들이 스스로 문화예술을 접하면서 문화감수성을 길러 정서 안정, 자존감의 확립을 심어 주고자 한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 우리 ‘극단 캣츠’는 아이들에게 자신만의 이야기와 재능을 찾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자 한다. 더불어 모두가 함께 이뤄가는 수업방식을 통해 소속감과 협동심을 배워 나아가 훗날 무난히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탈춤과 뮤지컬은 노래, 무용, 연극, 미술이 합쳐진 종합예술로써 다양한 예술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장르이다. 아이들에게 탈춤의 구성요소와 기본적인 동작을 선보이고 각자 하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를 대사와 춤을 통해 표현하는 법에 대해 같이 고민하며 알려준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서툰 아이들은 점차 그 방법을 알아가게 되었다. 따라서 쉽게 터놓지 못한 이야기를 토해 친구들과, 선생님과 나눔으로써 수업 초기 불안한 심리상태를 지닌 아이들이 점차 안정감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성장기의 예민하고 불안한 정서를 대인관계나 사회적 환경에서의 균형상태 유지는 물론 불안, 절망, 소외감에서 벗어나고, 적극적이며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로 전환 시키고 아이들만이 갖고 있는 스스로의 이야기를 풀어가며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교육에 임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이들이 타인과 함께 어울려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함으로써 서로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과 공동체성을 키워 나아가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성 있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성장기 아이들이 춤과 노래, 연기의 3요소를 갖춘 종합예술작품인 탈춤 뮤지컬 교육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고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탈춤’과 ‘뮤지컬’,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장르이지만, 아이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고 역할을 분배하여 밝은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잘 따라주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집중력이 부족해 잘 따라하지 못하던 친구들도 뒤로 가서는 선생님의 따뜻한 관심 속에 앞장 서 본인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정서적, 감정적으로 위축되었던 아이들이 활짝 펴나가는 모습은 올해 들어 가장 큰 뿌듯함이었다.

아르떼 창

엄마 달(DOLL) 엄니 달(DOLL)



교육장소	동구 공동 제봉로 157 2층
교육대상	청소년과 가족
교육장르	미술+연극
문의	T 010-4713-5230 E arte250@daum.net

단체소개
아르떼 창은 융합장르로서의 예술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문화예술이 지역공공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성 회복 위한 다양한 고민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단체

프로그램소개
가족과 함께 만들어보는 인형 미술프로그램.
직접 만든 인형과 대본으로 인형역할극을 시연하는 것으로 가족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을 체험해보며 내면화된 상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

청소년기를 관통하게 되는 모든 어린이와 엄마, 엄마와 가족, 엄마의 엄마, 가족 안에서 엄마의 관계성은 필연적으로 사회현상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 성인이 된 엄마와 이전 세대 엄마와의 관계, 그리고 다음세대로 이어지며 아이들과의 관계에 상호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 시점에 문화예술단체 아르떼 창은 2019년 가족과 함께 만들어보는 소통인형 미술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직접 만든 인형과 대본으로, 인형역할극을 시연하면서 엄마와의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 나아가 가족공동체 안에서의 역할모델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소통문제를 공유하며 굳어져있던 내면의 상처를 돌이켜봄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여전히 많은 가족들은 서로 간에 살갓을 맞대며 따뜻한 소통에 서투르다. 소통이 서투르면 서로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게 되고 감정의 골은 깊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형’을 매개로 하여 각자의 감정, 생각을 예술적인 표현으로 시도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소통하며 그동안 느꼈던 간극을 매워보고자 했다. 인형은 자아를 대리하기도, 상대방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는 특성이 있다. 우리는 이런 인형의 장점을 본 프로그램에 녹여내고자 했다. 단순히 가족 상담프로그램이 아닌, 인형극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세대 간 소통문제를 조금은 덜 진지한 방식으로 풀어내고자 했다. 많은 가정이 소통의 문제에 직면하여 일회성의 단발성 시도로 해결해보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관계 회복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올 하반기「엄마 달 엄니 달」의 프로그램은 이러한 일반적인 상담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참여한 가족 모두는 첫 시작의 어색한 모습에서 끈끈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변해왔다. 이렇듯 우리 단체는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내년, 내후년에도 힘쓰고자 한다.

참한창작소

문학자는 언어술사



교육장소	참한창작소
교육대상	초·중·고 청소년
교육장르	문학
문의	T 010-7442-7325 E charmhan0510@naver.com

단체소개
‘나’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 응원해주는 ‘혼자가 아닌 다 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광주청년문화활동가들의 플랫폼

프로그램소개
단어로 ‘나’를 찾고 문장으로 ‘나’를 자신 있게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갖는 예술적 표현과 매력을 알아보고, 참여자 스스로의 삶의 미적 감성을 글로 표현프로그램. 즉, 나 자신에게 ‘감성·공감’의 가치 선물 프로그램

지금 사회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표현방법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글’은 특유의 감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구식으로 여겨져 사람들에게 잊혀져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상·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직접 손으로 자신의 생각에 대해 글을 쓰는 것보다 스마트폰이나 키보드를 이용해 자신의 생각을 편리하고 빠르게 표현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종이에 글을 적는 표현은 ‘귀찮고 오래된’ 방식으로 인식되어 점점 사람들에게서 멀어졌다.

앞서 말한 현재 ‘글쓰기’가 갖는 낯섦을 극복하기 위해, 「문학자는 언어술사」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온라인과 SNS의 소통은 타인과 빠르고 편리하게 교류하지만 외로움을 동반한다. 본 프로그램은 다소 천천히 느리게 흘러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같이’ 경험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면서 따뜻함을 전하고자 한다. 친해질 수 있고 글의 다양한 묘미를 알아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스스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한다. ‘글쓰기’를 어색해하고 어려워한다면 하고자 하는 표현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새로운 인연을 쌓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문학자는 언어술사」 프로그램은 단순한 글쓰기 프로그램이 아닌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목표로 참여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독특하고 고유한 표현력을 찾아내는 ‘나의 감성 찾기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13차시의 비교적 짧은 과정이었지만, 매 회 차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나’만의 지혜를 키워보는 것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해결해 볼 수 있으며, 표현해볼 수 있는 법을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사업

지역의아마추어 예술동아리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은 시민의 자발적 예술
활동 참여와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센터는 예술동아리가 전문 예술인·예술강사의 전문
교육을 바탕으로 기획력을 키우며, 우수한 레퍼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또한
예술동아리에 참여하는 시민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영역을 확장하여 문화예술 공익 활동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명	2019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세부사업	2019년 4-12월
사업비	250,000,000원 (국비 / 시비)
지원대상	예술동아리 / 코디네이터
교육대상	예술영역을 배우고자 하는 지역시민이 활동하는 예술동아리



추진일정



공모선정

- 예술동아리 : 창작 역량강화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동아리
- 코디네이터 : 문화예술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예술동아리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의 매개자로서 소통채널 형성이 가능한 문화·예술인

워크숍 · 네트워크

- 사전워크숍 | 운영지침 안내, 예산편성 컨설팅
- 중간워크숍 | 동아리 사업 공유, 회계정산워크숍, 역량강화 워크숍
- 네트워크모임 | 운영동아리(대표, 강사, 회원) 네트워킹
- 문화예술코디네이터 간담회 | 월례회, 동아리 현장 의견 공유, 컨설팅 방향 논의

결과공유회

- 운영동아리 결과발표회
- 기획공연 및 장르별 동아리 운영 사례 공유

사업운영

04-11 사업기간	예술동아리/ 예술코디네이터 사업대상	광주광역시 내 동아리 자체 교육장소 사업장소	250,000천원 사업예산
문화예술 동아리 33개 / 5인 문화예술 코디네이터 운영단체	총 40 회 현장모니터링	5 회 워크숍	8 회 네트워크

운영단체

코디네이터	단체명	사업명	장르	지역
김윤미	스케치북	한국 "잉크"	미술	동구
	금손캘리그래피	내가 쓰는 모든 글이 감동이 되는 순간	미술	동구
	벨라중창단	목소리가하나되어 아름다운 선율을 이루는	음악	북구
	리멤버90	노래만큼 좋은세상 만들기	음악	동구
	코리안티크	한국적인 느낌과 현대적인 감성이 만나 탄생하는 글자	미술	동구
	룰루랄라	우리함께 음악으로 소통하자	음악	동구
	오픈하트	노래열공!	음악	서구
조은주	메아리하모니카	한마음으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메아리	음악	북구
	전통문화예술교육동호회 한울림	벗들과 노닐다	국악	북구
	하란방	하나의 작품 두개의 예술	공예	북구
	group 판	판의게임	공예	남구
	호동이풍물	호동이네 풍물이야기	국악	서구
	마음,공작소	y.m.d.a	공예	동구
이용화	나누우리	보컬 및 기타 화성학 기초 이론 및 실기 교육	음악	남구
	글한량	소설 창작	문학	북구
	광주의료인 합창단 나음	광주 의료인과 함께하는 합창	음악	북구
	힐링밴드	밴드 교육	음악	서구
	꿈드림(DK)색소폰동호회	신명나는 색소폰 향연	음악	북구
	아모르수채화동아리	예술을 사랑하는 창작수채화	미술	동구
	굿마당 풍물패 풍월	우리의 신명을 찾아서	국악	광산구
최진영	마마굿즈	내 안의 '흥'과 '재능'으로 '끼'를 찾다	공예	동구
	3막1장	나도 연예인 연극교실	연극	동구
	늘품사진클럽	이미지는 감동의 수단이다	기타	북구
	F.E.A.T	술, 창의예술을 빛다	기타	동구
	V&P	모두를 위한 예술을 꿈꾸다	기타	북구
	스토리를 만드는사람들	스토리로 두런두런	공예	남구
	한춤예술단	광주누비 한춤 퍼포먼스	무용	서구
한신희	빛고을클래식기타합주단	가을녘, 기타에 물들다	음악	광산구
	그림꽃	북아트	미술	광산구
	매화아낙네들	아낙네들의 색 다른 손작업놀이	공예	남구
	아뜰리에	손으로 만들어 가는 미학의 아름다움	공예	북구
	하모니카를 닮은사람들	하모니카 앙상블 합주	음악	서구
	다울	jump	음악	북구

코디네이터를 소개합니다!



예술동아리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워크숍

문화매개자 문화예술코디네이터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과 타시도 문화매개자들과 네트워크 및 사업의 추진방향 정립을 위한 워크숍

일시 | 2019. 10. 17.(목) ~ 10. 18.(금) / 1박 2일

장소 |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대림미술관, 인천문화재단 등

주요내용

공연, 전시, 체험 : 대림미술관 전시 관람 및 체험, 디큐브아트센터 공연관람
타시도 사례조사 : 서울문화재단 동아리페스타, 인천문화재단 예술동아리 코디네이터 운영 방향
전문가 컨설팅 : 임승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대표(교육진흥원 지정) 컨설팅
문화시설 탐방 : 인천아트플랫폼, 동네아지트 등 문화예술공간 탐방



나누우리

보컬 및 기타 화성학 기초 이론 및 실기 교육



교육장소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59 2층
교육대상	나누우리회원
교육장르	음악
문의	T 010-9474-3114 E smsno2@naver.com

단체소개

다양한 음악 활동으로 회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풍성한 삶을 영위하며, 재능기부 등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소개

화성학의 기본과 화음 구성 등을 이해하고 발성에 대한 기초 교육을 통해 중창에 필요한 발성법을 숙지합니다. 기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기의 조합에 대해 이해를 높이며 악기 연주 시범을 통해 성취를 높이하고자 합니다.

글한량

소설창작



교육장소	용봉작은도서관
교육대상	소설 등당 작가 및 예비 작가
교육장르	문학(소설)
문의	T 010-4732-0785 E samgi123@naver.com

단체소개

소설창작동아리 글한량은 소설 창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작과 합평을 통해 완성도 높은 소설을 완성하여 작가로서 역량을 높여 등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작가의 작품을 분석하고 소재, 주제와 인물을 탐구하여 작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소개

- 유명 작가 작품 선정: 인물, 주제, 소재 등 연구
- 신춘문에 및 젊은 작가 작품 연구
- 회원 창작물 발표
- 창작물 합평 및 개작 방향 연구
- 완성도 높은 소설 창작

광주 의료인 합창단 나음

광주 의료인과 함께하는 합창



교육장소	광주 광역실 북구 서암대로 188
교육대상	의료인 및 일반인
교육장르	합창 / 발성
문의	T 010-8846-7268 E cha-dol80@hanmail.net

단체소개

광주 의료인 합창단 “나음”은 광주, 전남지역의 보건, 의료관계 종사자들과 비의료인이 함께 하는 아마추어 합창단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전문 지휘자님에게 발성의 기초와 합창을 배우며, 연 1회 정기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소개

성악발성 교육과 합창 파트별 소리 만들기 그리고 연1회 정기공연 연습을 진행하며 이를 위해 악보암보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힐링밴드

밴드교육



교육장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동 397-2
교육대상	동아리 회원(참가 희망자 전원)
교육장르	악기연주, 악기교육
문의	T 010-7454-7204 E pjn765@hanmail.net

단체소개

저희는 학생, 직장인, 주부 등 악기연주와 교육이 필요한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주로 기타, 베이스, 건반, 드럼 등 밴드음악에 필요한 악기를 교육하고 합주를 통해 실력향상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프로그램소개

총 25차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2019년 11월 2일에 최종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동아리 내부팀과 게스트 세팀이 재밌고 유익한 공연이었습니다. 추후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함께 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마굿즈

내 안의 “흥”과 재능으로 “끼”를 찾다



교육장소	동구 두산위브1차@ 작은도서관
교육대상	동구주민 20명
교육장르	기타분야 (가족공예)
문의	T 010. 3616.5001 E babasin@naver.com

단체소개

“흥”과 “끼”가 충만한 공예에너지를 서로 공유하며 동구문화예술전문가로서 재능기부동아리로서 활동하는 자립형동아리이다. 지역내 문화예술활동가와 협업하여 지역행사 및 축제참여로 창작활동의 행복을 찾고, 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공예나눔을 실천 할 수 있는 자립형 동아리이다

프로그램소개

가족공예의 형지 만들기 기초이론과 도구 및 재료사용법을 익혀 생활소품과 희소가치를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제작해본다.

메아리 하모니카동아리

한마음으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메아리



교육장소	두암종합사회복지관
교육대상	50~70대 북구 주민
교육장르	하모니카
문의	T 010-5680-6667 E pykben@hanmail.net

단체소개

50~70대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남녀 혼성 동아리으로써 지역주민과 환자들에게는 평화와 위로를 주고 회원들에게는 자존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여 삶의 즐거움은 물론 지역사회 문화예술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하모니카 동아리입니다.

프로그램소개

매주 수요일 10시~12시 두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모니카 연주기법을 배우고 익혀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사랑과 나눔을 주제로 한 버스킹 공연, 요양병원 위문공연활동, 사회복지관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의 소통과 화합,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예술교육동호회 한울림

벗들과 노닐다



교육장소	내벗소리민족예술단 연습실
교육대상	50명(국악관현악단 43명, 해금단 7명)
교육장르	전통 음악
문의	T 010-9473-5013 E withaidle@hanmail.net

단체소개

2007년 타악 전문 동호회로 창립하여 타악 중심의 공연활동을 지속하다가 2014년 ‘국악관현악단’과 ‘타악단’으로 재편하였고, 2019년 현재는 먼저 창단한 ‘한울림국악관현악단’과 2018년 창단한 ‘한울림해금단’이 매주 1~2회 파트별 레슨 및 전체 합주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소개

‘벗들과 노닐다’는 매해에 「아름」+「다움」= 美(Me) [1회], 愛即爲眞知 知即爲眞看[2회], 생활 속 국악, 국악 속 생활 이야기[3회], 소통... 너와 나, 그리고 우리[4회]와 같이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정하여 연주하는 정기 연주회(울림) 프로그램이다.

빛고을클래식기타합주단

가을 넉, 기타에 물들다



교육장소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교육대상	합주단원
교육장르	음악-클래식기타
문의	T 010-2629-2335 E so23352@hanmail.net

단체소개

본 동아리는 음악을 사랑하고 기타의 아름다운 울림을 추구하는 클래식기타 합주단입니다. 음악은 함께하면 기쁨이 배가 되며 이웃과 나눌 때 즐거움이 더 커진다는 것을 모토로 클래식기타 정기, 비정기 연주회와 각종 초청 연주회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소개

보다 수준 높은 음악회 개최와 회원들의 개인 실력 향상을 위해서 기타 테크닉 외에 폭 넓은 음악교육을 통해서 곡의 해석과 표현능력 향상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하란방

2 in 1 하나의 작품, 두 개의 예술



교육장소	자빛
교육대상	동아리원
교육장르	도자공예
문의	T 010.5424.1372 E hahhhaha21@hanmail.net

단체소개

‘하란방’은 평소 관심은 있으나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도자공예 분야를 동아리 활동을 통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함께 향유하는 동아리입니다.

프로그램소개

이번 창의예술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기존의 일반 도자기법이 아닌 수채화를 배움으로서, 회화장르와의 콜라보를 통한 색다른 감성의 작품을 창작합니다. 이로써 동아리 원들의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며 문화예술과의 친밀성을 높입니다.

꿈드림(DK) 색소폰동호회

신명나는 색소폰 향연



교육장소	동호회 연습실 및 공연장
교육대상	동호회 회원 및 전 연령대 주민
교육장르	음악(색소폰)
문의	T 010-3603-3959 E hong34@hanmail.net

단체소개

꿈드림(DK)색소폰 동호회는 색소폰 소리에 꿈을 실어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재능기부 봉사활동 동호회다. 우리 동호회는 2018~2019년 광주문화재단 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회원들의 연주력 향상과 회원 간의 단합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프로그램소개

전문강사의 지도로 연주 실력을 배양하고, 워크숍 등을 통하여 회원간의 친목 도모와 매월 발표회로 개인 기량을 향상 시켰습니다. 또한 요양원 등의 재능기부 봉사활동과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축제 등의 행사 참여로 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 하였으며, 무돌길 협의회와 함께 민주와 평등의 무등정신을 알려 세계적인 명품길 홍보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Group 판

판의 게임



교육장소	광주실크스크린 공방
교육대상	직장인 여성 및 학생
교육장르	판화 및 실크스크린
문의	T 010. 3610. 2421 E dlfrhkd1217@naver.com

단체소개

Group 판은 5~7명의 직장맘으로 구성되어 전문 판화작가님을 모시고 판화의 기초부터 창의작품까지 표현 및 전시 발표로 시민과 소통하는 동아리입니다.

프로그램소개

- 볼록판화 (우드락, 수지판,케스팅 찍기)
- 오목판화 (동판,아크릴 드라이포인트)
- 평판화 (수성 및 유성 모노타이프)
- 실크스크린 (에코백, 티셔츠, 섬유 및 병에찍기)
- 소멸판법으로 심층적 판화 작품 구성표현하기

스케치북

한국 “잉크”



교육장소	광주 충장로 5가 96-24 3층
교육대상	주부대상, 예술에 관심 있는 모든 이
교육장르	미술
문의	T 010-9603-8081 E sketchbook000@naver.com

단체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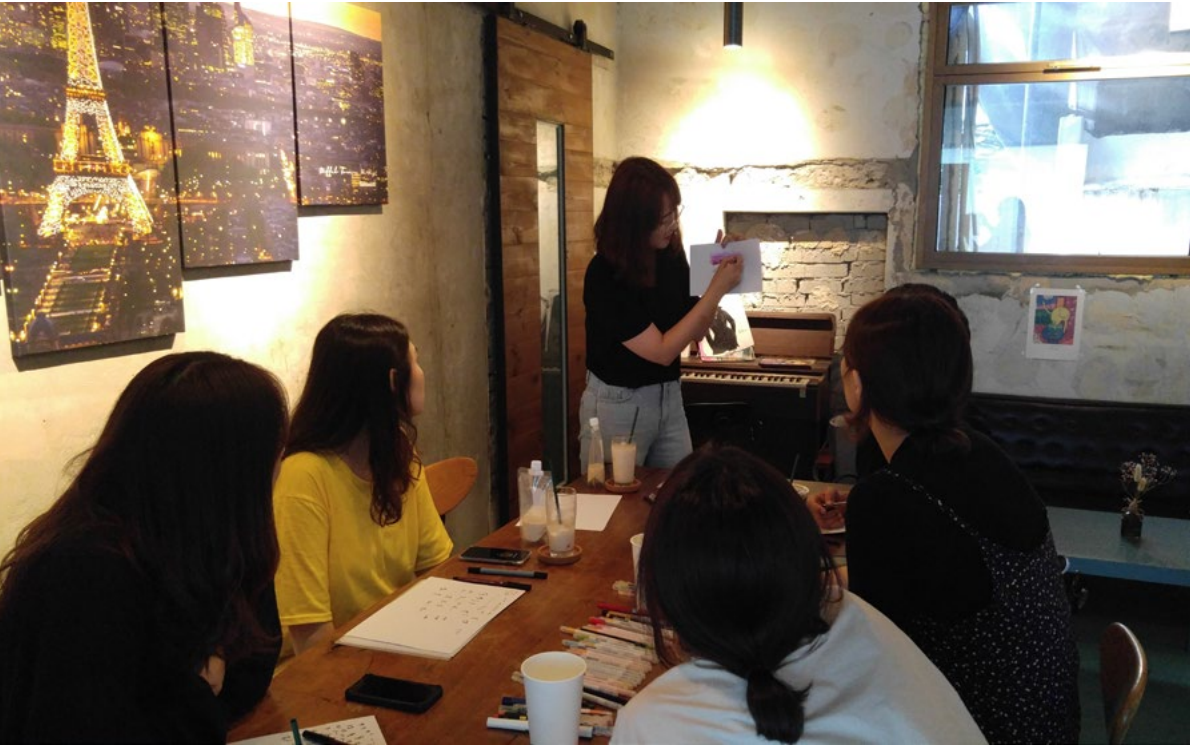
한국미술에 관심이 있는 대상의 니즈충족을 위하여 비용부담 완화와 전문미술기관의 접근성 용이를 위하여 결성하며 전통 한국화의 재료 특성의 다양성을 알리고 대중성을 이루는 목적을 둔 동아리입니다.

프로그램소개

현옷은 유행과 탈색 디자인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버리기는 아쉬워 옷장 속에 잠자고 있다. 이러한 옷들을 찾아내어 “장롱 속 잊혀진 옷 찾기”, “다시 태어난 옷” 등의 주제를 통해 스케치북 동아리의 특성에 맞는 공용미술에 의한 창의성과 예술성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금손캘리그래피

내가 쓰는 모든 글이 감동이 되는 순간



교육장소	산수커피
교육대상	광주시민 누구나 가능
교육장르	서예
문의	T 010-3272-0932 E tnalsdid@hanmail.net

단체소개

‘금손캘리그래피’는 마음을 담은글씨를 써보고 싶은분이라면 나이와 성별 실력 상관없이 모두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동아리입니다. 캘리그래피 기초부터 작품 활동까지 자신만의 색을 나타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재미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이 가능한 장입니다.

프로그램소개

자음과 모음부터 긴문장까지 기본기부터 잡아주며, 구도 잡는 방법과 간단한 붓펜 일러스트 표현법도 함께 배워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3막1장

나도 연예인 연극교실



교육장소	마루아트컴퍼니연습실
교육대상	30대 부터 60대
교육장르	연극
문의	T 010.9626.9926 E maruart1976@gmail.com

단체소개

연극동아리 3막1장은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시민 순수 예술 연극동아리로 감상뿐 아니라 직접 연극공연에 참여하여 체험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실천하는 연극동아리로 2016년에 결성된 동아리입니다.

프로그램소개

본 프로그램은 즐기는 연기, 나를 찾는 연극, 풍요로운 삶을 위한 연극을 목표로 연극 제작과정 뿐 아니라 연극을 통한 삶의 주인되기과 나를 찾고 나를 통한 작품세상 보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작품을 제작 공연함으로써 성취감을 얻는 프로그램입니다.

늘품 사진클럽

image는 감동의 수단이다



교육장소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210호
교육대상	늘품 사진클럽 회원
교육장르	사진
문의	T 062-526-1646 E gs6363@hanmail.net

단체소개

늘품 사진클럽은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사진을 수강한 원우들이 만든 클럽입니다. ‘늘품’이란 단어는 나날이 배워나가며 성장한다는 순 우리말로써 사진에 대한 열정과 사진예술을 통해 나의 생각과 철학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나가는 훈련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정기적인 출사/교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소개

이미지를 카메라라는 도구를 통해 효과적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기계적 메커니즘은 물론 인문학관련 소양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를 객관적, 주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 실습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축제 문화기획 그룹 F.E.A.T

술, 창의예술을 빛다



교육장소	광주 북구 무등로 190, 여그 402호
교육대상	대학생 7인
교육장르	축제, 문화
문의	T 010.2103.6031 E planih@daum.net

단체소개

축제 및 문화기획을 주 활동으로 지역 내 신생축제 기획 및 운영, 문화 공간 구성 활동 등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일을 운영하는 팀입니다.

프로그램소개

술, 창의예술을 빛다 프로그램은 지역 내 음주축제 기획으로 과음이 아닌 술 한 잔이 주는 진심을 나누는 축제 기획 및 운영 프로그램입니다.제 2회 광주맥주축제 “비어고를 광주”를 기획 및 운영하였으며 2일간 10,000여명이 방문한 축제입니다.

아모르수채화동아리

예술을 사랑하는 창작 수채화



교육장소	드 영 미술관 교육실
교육대상	수채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누구나
교육장르	수채화
문의	T 010-5815-1801 E gdy9618@hanmail.net

단체소개

아모르 수채화 동아리는 전문수채화 작가의 지도하에 매주 1회 2시간씩 예술을 사랑하는 문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친목 동아리 모임으로 여가 선용에 따른 상호간의 친밀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아리입니다.

프로그램소개

2019.5월에 시작으로 아모르 수채화 동아리는 수채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통한 결과물 전시와 토론회 및 자신만의 창작 수채화 발표회와 더불어 결과물 전시회(2019.10월 25~26일)를 하며 그로 인해 배움의 실천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V&P

Do Dream: 모두를 위한 예술을 꿈꾸다



교육장소	광주 일곡동 스튜디오
교육대상	사진·영상을 배우고 싶은 20대 대학생들
교육장르	사진·영상 촬영 및 편집 기술
문의	T 010-4620-4028 E ss52s@naver.com

단체소개

우리 V&P는 사진과 영상 촬영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 “좋은 추억”을 만들고자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사회에 전달하는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동아리의 목표입니다.

프로그램소개

V&P는 초보자의 수준을 넘어 전문적인 기술 습득과 실력 향상을 도모하여 동아리 내의 자체 발전과 지역 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재능 기부를 시작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스토리를만드는 사람들

스토리로 두런두런



교육장소	이야기가 있는 공간 교육장
교육대상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들 회원
교육장르	목공예— 공예
문의	T 062-670-0221 E ksmh2000@hanmail.net

단체소개

문화예술을 통한 동아리 사회공헌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모인 동아리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의 사회공헌 계획을 통한 문화예술 대표 민간동아리로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그램소개

기존에 한정된 공예 동아리 활동에서 벗어나 실용성과 사회공헌 활동에 적합한 목공을 접목하고자 하였고 동아리 회원들은 실제로 2019년의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하여, 여러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연말 행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호동이풍물패

호동이네 풍물이야기



교육장소	금부초등학교 강당
교육대상	금호동 인근 주민
교육장르	풍물
문의	T 010 - 3968 - 5770

단체소개

금호동 청년회가 주체가 되어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취미동아리를 꾸리고 이를 발전시켜 동네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진작 시키고자 만들어진 동아리입니다.

프로그램소개

지역 문화유산인 광산농악의 이해와 습득을 기본목표로 하되 재능기부의 개념으로 마을 축제 및 봉사공연의 활동을 목적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목표와 목적달성을 위해 개개인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동아리의 수준을 발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좀 더 격조 높은 국악공연으로 지역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 1회 토요일에 모여 2시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림꽃

북아트



교육장소	이룸
교육대상	그림책교육 이수자
교육장르	문학, 미술
문의	T 010-9977-1897 E art9627@hanmail.net

단체소개

그림책 교육지도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림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감과 배려, 나눔과 소통의 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문화운동으로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를 통한 개인의 역량강화 및 다양한 사회활동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동아리를 결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소개

북아트는 다양한 북의 형태와 형식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예술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책 만들기 프로그램으로써 생각하고 글쓰고 꾸미면서 창의성과 다양한 색을 이용하기 때문에 컬러테라피 및 감각을 키울수 있고 결과물을 만지고 감상하고 놀 수 있어 오감발달에도 도움을 주는 창조적인 종합예술활동입니다.

한춤예술단

광주누비 한춤퍼포먼스



교육장소	서구문화센터 동아리실
교육대상	서구관내 여성 7명
교육장르	전통무용 - 부채춤, 태평무, 태극무, 성주풀이
문의	T 010-3625-5410 E kiju6124@daum.net

단체소개

서구문화센터를 근거지로 7인의 여성들이 함께 수년간 전통춤을 익혀 왔으며, 근래에는 기량을 인정받아 광주 곳곳에서 공연활동을 펼치면서 한춤의 아름다움과 예술성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통춤 단체입니다.

프로그램소개

한국무용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부채춤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태평무,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무, 한국적 정서가 잘 담겨있는 성주풀이는 그 춤사위가 부드러운 곡선과 음양의 조화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한국적 정서를 풍부하게 우리나라에 하는 아름다운 춤으로, 이를 광주 곳곳에서 퍼포먼스하고 있습니다.

마음공작소

Y M D A you may do art



교육장소	광주 동구 남동 141-3 비앤에드
교육대상	예술활동에 관심있는 모든 인원
교육장르	예술
문의	T 010 E @hanmail.net

단체소개

전문분야를 다루는 단체는 아니지만 예술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각자의 생각과, 드로잉을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이란 장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폭넓게 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방향을 넓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소개

예술지망생 관심은 있지만,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술을 해도 좋다(YOU MAY DO ART)’라는 뜻입니다 격려와 , 환영의 긍정적인 메시지와 희망적인 주제를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장르에 구분 없이 자유롭고 솔직한 작품 만들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 합니다.

벨라중창단

목소리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선율을



교육장소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연습실
교육대상	벨라중창단회원
교육장르	음악(성악중창)
문의	T 010-3473-5569 E tnsdnd123@naver.com

단체소개

대학 졸업 후 음악 활동이 정체된 선후배 및 성악에 관심 있는 지인들로 구성된 중창단입니다. 전공자들의 활동으로 개개인의 움츠려있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발산하고, 가사를 노래로 전달하는 분야인 만큼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을 하고자 결성되었습니다.

프로그램소개

광주 지역 내에서 음악 활동을 통해 지역 예술사업 향상에 기여하고, 대중들에게 성악의 매력을 전달하여 클래식이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가 아닌 친근하고 접하기 쉬운 분야임을 알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리멤버90

노래만큼 좋은세상 만들기



교육장소	동명동 천칭자리
교육대상	누구나
교육장르	음악
문의	T 010 -2223-0488 E nacl3777@naver.com

단체소개

90년대 청춘을 보낸 일반인들이 노래하는 팀으로 대중가요나 민중 가요 중 긍정적이고 노랫말이 아름다운 가사들을 팀의 특성에 맞게 편곡하여 우쿨렐레, 기타, 카혼, 멜로디언 등으로 어느 곳에서나 쉽게 공연 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프로그램소개

리멤버90 회원들이 전문 강사에게 보컬트레이닝을 받고 회원증가 및 팀 자작곡을 직접 만들어 녹음제작 함으로 팀의 수준을 높이고 노래봉사로 환원하며 나아가 광주지역민들과 소통하며 노래만큼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합니다.

코리아앤티크

순우리말 캘리그래피 엽서만들기



교육장소	스스튜디오 (광주 동구 동계로 12-13)
교육대상	직장인 및 주부
교육장르	캘리그래피 (예술)
문의	T 010-7656-1311 E koreanique_@naver.com

단체소개

순우리말을 사랑하고 서루 나누고 소통함으로써 한글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한 모임입니다. 좋은 글귀와 문구를 통해 바쁜 일상생활 속 지친 사람들을 위한 힐링타임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그램소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낱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적는 엽서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기존 캘리그래피와 다르게 붓펜이 아닌 땀펜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엽서를 제작합니다.

오픈하트

열공보컬!



교육장소	벤엘뮤직스튜디오
교육대상	보컬을 배우고 싶은 누구나
교육장르	실용음악 보컬
문의	T 010-9655-8614 E oicmlhe@hanmail.net

단체소개

보컬로만 이루어진 오픈하트(Open Heart)는 동아리 이름처럼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멤버로 받아들이며, 각자의 개성에 맞는 노래를 통해 멤버 개개인의 삶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노래하고자 결성된 동아리입니다.

프로그램소개

‘열공보컬!’은 노래 부르기는 좋아하지만 마음만 앞선 보컬들에게 바른 발성방법을 알려주며, 연습곡을 통해서 재미있고 실제적인 적용을 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굿마당 풍물패 풍월

잊혀진 우리의 신명을 찾아서



교육장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과기로 89
교육대상	남녀노소 풍월 동아리회원
교육장르	풍물(국악)
문의	T 062-973-7999 / 010-2650-7999 E rntakekd@hanmail.net

단체소개

저희 동아리는 해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축제를 개최하며 이 지역에서 소멸해버린 민속을 발굴하여 무대화함으로써 대중과 함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전국, 광주광역시, 구청에서 추진하는 행사를 적극 참여하여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2년마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활동적인 단체입니다.

프로그램소개

잊혀진 우리의 신명을 찾아서 작품은 한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정월달에 벼가릿대를 모시고 가가호호 복을 키우고 액을 막는 광주산월농악으로써 학교 교수님 그리고 마을 어르신님의 고증을 토대로 원형 그대로 복원 무대화하여 구성된 가락과 멋진 진법 다양한 연희 등 구정놀이를 복원 발굴하여 우리의 신명을 대중과 함께하고 합니다.

매화아낙네들

아낙네들의 “색(色)” 다른 손작업놀이



교육장소	창작공예디자인협회 사무실
교육대상	광주 매곡동 일대 아낙네들
교육장르	미술가죽공예
문의	T 010-2478-9919 E sya-76@hanmail.net

단체소개

매곡동 일대에서 공예에 관심이 많은 여성분들 위주의 모임이면서 소외계층의 소통을 돕기 위한 모임이기도 합니다. 생활소품을 구입하지 않고 직접 소품에 그림도 그리고 만들어 보는 실용적인 활동 동아리입니다.

프로그램소개

가죽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도입해 다양한 소재를 만들어 냄으로서 작은 작품부터 큰 작품까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소외계층에게 재능기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룰루랄라

우리 함께 음악으로 소통하자



교육장소	청소년삶디자인센터
교육대상	동구지역 주변 직장인들, 음악으로 삶을 디자인하고픈 인근 주민
교육장르	밴드
문의	T 010.6629.7900 E ymca1997@hanmail.net

단체소개

회원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지역공동체 문화에 기여하는데 그 가치를 두면서 지역 내 아마추어동아리로 활동하는 가운데 문화예술전문가 매칭을 통해 동아리의 창작과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축제참여로 네트워크 강화 및 시민 공익활동 의욕에 부합한 참여를 증진하고자 노력하는 동아리입니다.

프로그램소개

악기를 연주할 때 연주 실력이 뛰어나야만 음악연주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닌, 누구나 간단하고 편안하며 쉽게 연주 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쉬운 실용악기로부터 시작하여 심화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아뜰리에

손으로 만들어 가는 미학의 아름다움



교육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 87,1층 문화카페
교육대상	공예에 관심 있는 분
교육장르	미술, 공예
문의	T 010. 4159. 4606 E 47enddl@naver.com

단체소개

아뜰리에에는 리폼공예를 통해 새로움과 재창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리폼공예를 통해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문화 활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주민간의 상호교류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데 의미를 둡니다.

프로그램소개

청바지 업사이클링. 안 입고 버려지는 청바지를 모아서 주머니, 단추, 가죽라벨, 허리 벨트, 고리 등을 분리해서 파우치, 주방장갑, 클러치백, 에코백, 숄더백, 다용도 바구니 등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하모니카를 닦은사람들(하닦)

하모니카 앙상블



교육장소	서구문화센터 2층 커뮤니티실
교육대상	하달 동아리 회원
교육장르	음악(하모니카)
문의	T 010-6274-1609 E mygggh@hanmail.net

단체소개

하모니카를닦은사람들은 광주전남 하모니카 동호인모임으로 매년 영호남 하모니카 교류 연주회를 주최하여 동서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특수하모니카를 활용 앙상블합주단으로 다양한 음악 장르를 가지고 지역 내 축제와 병원 및 요양 기관 등에 사회봉사와 재능 기부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소개

현재는 트레몰로 하모니카와 크로매틱 하모니카로 연주활동을 하고 있어 다양한 장르의 음악 활동을 전개하기에 부족함이 있지만 특수하모니카를 배워, 다양한 하모니카 소리가 모여 앙상블의 매력적인 하모니를 만들 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올

Jump



교육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5-5 2층
교육대상	
교육장르	음악
문의	T 010. 4159. 4606 E 47enddl@naver.com

단체소개

노래를 좋아하고 버스킹을 좋아하는 학생들끼리 모여 음악적인 소통과 정기적인 음악 활동, 정보 공유 및 실력 향상을 위한 동아리입니다. 지역사회 내 문화 발전 및 음악인들간의 네트워킹에 도움이 되고, 오래 기억되는 노래를 할 수 있는 팀이 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소개

개인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곡 및 단체곡 연습을 통해 서로 간 화음과 소리 밸런스 등 보컬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무대의 질을 향상하여 아마추어가 아닌 그 이상으로 나아가 많은 활동을 해나가려 합니다.

유아문화 예술교육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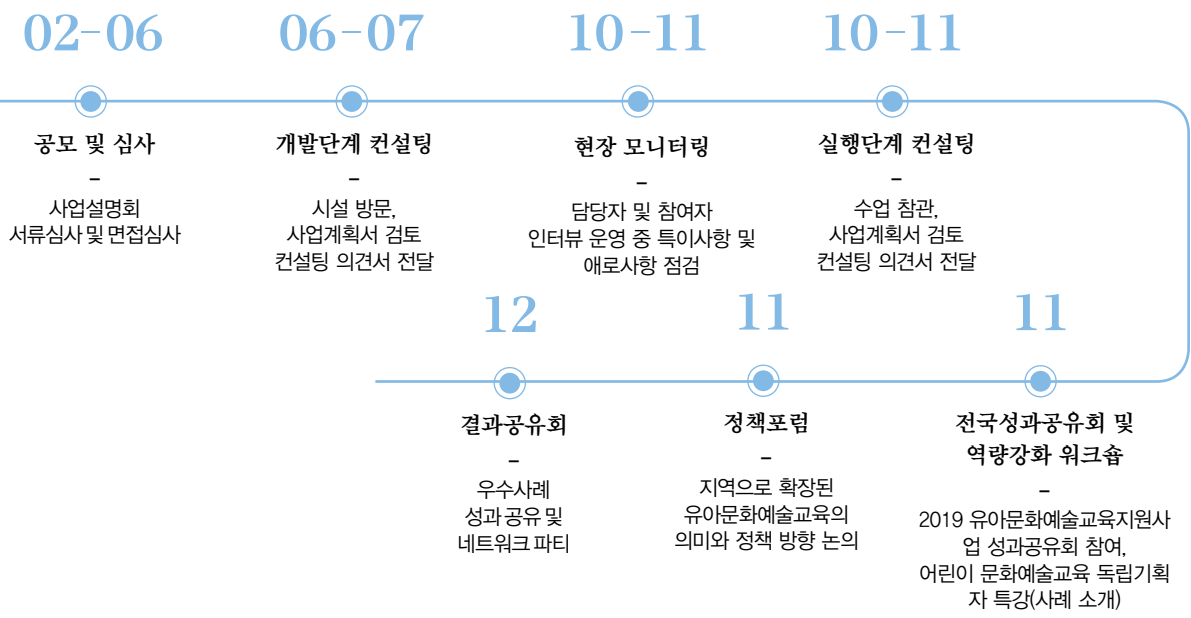
생애 초기 유아단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2019 광주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광주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생애초기 유아 단계의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여 보편적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계획되었습니다. 유아의 신체 및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 ‘놀이’를 매개로 설계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광주지역 문화시설의 고유콘텐츠를 연계한 유아문화예술 교수법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2019 광주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9년 1~12월
사업비	300,000,000원 (국비 / 시비)
공모자격	광주지역 문화예술기반시설 · 광주소재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광주지역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화시설 · 광주형 문화예술교육, 특화된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문화시설
공모신청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지원규모	문화시설 3개소
사업내용	지역문화기반시설 대상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시행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대상 유아문화예술교육 교수법 지원
지원내용	유아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광주지역 문화시설의 고유콘텐츠를 활용한 유아 문화예술교육과 유아의 신체 및 정서 발달과정에 부합한 ‘놀이’를 매개로 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아교사 대상 연수 지원 : 지역 문화시설의 고유콘텐츠를 연계한 교수법 연수를 지원합니다.



추진일정



공모선정
광주광역시 내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시설(또는 상주단체)
총 3개소를 공모선정함

개발단계, 컨설팅(진흥원) · 모니터링(재단)
컨설팅 지표를 기준으로 컨설팅 의견을 제시했으며, 추후 컨설팅
내용이 문화시설에 환류될 수 있도록 컨설팅 의견서를 전달함

역량강화 워크숍 및 성과공유회(진흥원)
· 진흥원 성과공유회 참석과 더불어 3개 운영기관과 연구진의
역량강화를 위해 리드기관인 광산구청소년수련관과 협업하여
워크숍 추진
· 18년도 유아문화예술교육 우수사례 특강 및 우수 공연, 전시
관람을 통해 역량강화를 돕고 다양한 유아문화예술교육 모델 탐색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정책포럼
2019 유아문화예술교육 첫 시행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한
유아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추후 사업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정책
포럼을 추진

2019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운영기관 교육 프로그램

분류	운영기관	프로그램	장르	대상	지역
운영기관	광산구청소년수련관	알록달록 놀이터! 마음이 간지러워~	융합과정	유아	광산구
	서구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사계절 자연예술놀이터	융합과정	유아	서구
	용봉청소년문화의집	동화 바이올린	융합과정	유아	북구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알록달록 놀이터! 마음이 간지러워~

교육문의 | 062-971-5533 / fkffk2019@naver.com

- **교육기간**
2019년 9월~11월
- **교육대상**
유치원, 어린이집 만 5세 유아
- **교육장르**
음악, 미술, 신체표현 융합과정

음악, 미술, 신체 움직임을 통해 오감을 깨우고 상상력과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을 확장시키는 예술 활동을 경험합니다.

- **교육내용**
 - 그림책 키트를 활용하여 놀이와 움직임, 마음의 색과 음악 탐색하기
 - 마음을 표현하고, 전시하고, 공연함으로써 다름의 즐거움 경험하기
 - 다양한 모습이 인정되고,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놀이로 만나 경험하기
 - 다양한 예술을 통한 표현력과 감수성 만나기

- **키트개발**
 - 물감과 주사기, OHP필름: 다양한 마음을 색으로 표현해 보는 도구
 - 색 그림책: 다양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QR코드 음악·그림책
 - 모양 스티커: 다양한 모양을 선택해 구체적 형태를 표현
 - 스카프: 다양한 색, 크기, 질감의 천들을 이용하여 신체 활동에 활용
 - 활동지 등



서구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사계절 자연예술놀이터

교육문의 | 062-350-4586 / sjy0331@korea.kr

- **교육기간**
2019년 9월~12월
- **교육대상**
유치원, 어린이집 6~7세 유아
- **교육장르**
생태교육, 창의미술, 자연놀이,
그림책인문학 융합과정

광주광역시 어린이생태도서관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자연놀이와
도서관 그림책 읽기를 연계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연과 그림책이 함께 하는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정서를 함양합니다.

- **교육내용**
 - 참여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나뭇잎과 자연을 소개
 - 나뭇잎 보물지도를 갖고 공원에서 서로 다른 나뭇잎을 찾으며 관찰력 높이기
 - 다양한 나뭇잎, 열매 등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예술 감수성 키우기
 - 나뭇잎, 낙엽, 열매를 이용한 자연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깨우고
자연이 최고의 장난감이자 놀이터임을 느끼도록 안내

- **키트개발**
 -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과 풍암생활체육공원 생태자원을 연계한 나뭇잎 교구
(생강나무, 이나무,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벚나무, 자귀나무, 단풍나무 등)
나뭇잎 창의미술 연계활동으로 나뭇잎에 그림그리기, 가렌더 만들기, 왕관 만들기 등
다양하게 확장해서 활용 가능 하도록 안내서 포함
 -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과 풍암생활체육공원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대표적인
생태 자원을 스탬프로 제작한 자연교구 (가을-도토리, 코스모스, 단풍, 은행 등)
종이에 찍어서 가위로 오린 후 다양한 작업 활동
(엽서, 카드, 편지지, 편지봉투, 손수건, 예코백 등)이 가능하도록 구성



용봉청소년 문화의집

동화 바이올린

교육문의 | 062-710-0924 / ybyouth0924hanmail.net

- 교육기간
2019년 9월~10월
- 교육대상
유치원, 어린이집 만 5세 유아
- 교육장르
음악, 미술, 이야기 융합과정

전문적인 연주가와 교육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창의예술교육을 경험합니다. 재미있는 동화와 함께 바이올린 연주원리를 이해하고, 탐색·감상·표현 등의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유아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교육내용
 - 바이올린 요정 이야기를 통해 즐거운 바이올린의 세계 상상하기
 - 4개의 줄로 이루어진 바이올린의 현을 튕겨보고 소리듣기
 - 바이올린 음악을 듣고 즐겁게 몸으로 표현하기
 - 2마디로 이루어진 바이올린 곡을 튕겨서 연주하기

- 키트개발
 - 키트는 모형 바이올린과 케이스(가방), 그리고 연주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미니북으로 구성
 - 배낭처럼 등에 메는 동화바이올린 키트와 함께 3개의 테마로 구성된 방을 여행하며 음악 원리 이해를 위한 교구로 활용



교사대상 연수 프로그램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교사대상 연수 프로그램

유아시기 문화·예술적 경험을 중요성을 토대로 교육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유아 문화예술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하고, 유아문화예술교육이란 무엇인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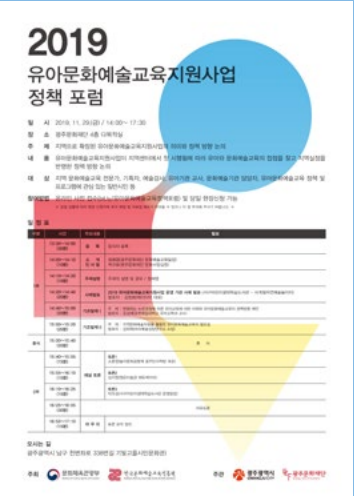
행사일시	2019년 12월 14일 (토) 09:30~18:30
행사장소	광산구청소년수련관
참여대상	유아교육기관 교사 및 예술강사 (총 100여명)

* 유아문화예술교육 정책포럼

행사일시 | 2019년 11월 29일(금) 14:00~18:00
행사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
참여대상 |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기획자, 예술강사, 유아기관 교사, 문화예술기관 담당자, 유아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 등 60여명

행사내용

구분	시간	주요내용	발 표
1부	14:00~13:30	등록	참석자 등록
	14:10~14:00	사 회 인사말	정혜영(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이요숙(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14:20~14:10	주제설명	주제의 설명 및 공유 / 정혜영
	14:40~14:20	사례발표	2019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운영 기관 중 사례 발표 '서구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 사계절자연예술놀이터' 발표자 : 김정화(메이아이 대표)
	15:00~14:40	기조발제 I	주 제 : 개정 누리과정에 따른 유아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방향 발표자 : 김성재(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부	15:20~15:00	기조발제 II	주 제 : 지역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유아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발표자 : 김태희(바리예술성장연구소 소장)
	15:40~15:20	휴 식	
	15:55~15:40		토론1 소윤정(놀이문화공동체 꿈꾸는다락방 대표)
	16:10~15:55	패널 토론	토론2 김지원(영은미술관 에듀케이터)
	16:25~16:10		토론3 박미성(서구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팀장)
	17:10~16:25	자유토론	
	17:40~17:10	마 무 리	토론 요약 정리



문화예술 교육사인턴십 지원사업

청년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

2019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 지원사업은 지역의 청년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현장 경험을 제공하여 전문 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2019년 사업 운영 시설로 서구농성문화의집, 각화문화의집,

동구문화원 등 총 5개 시설이 선정되었으며, 공개 채용된

문화예술교육사가 시설별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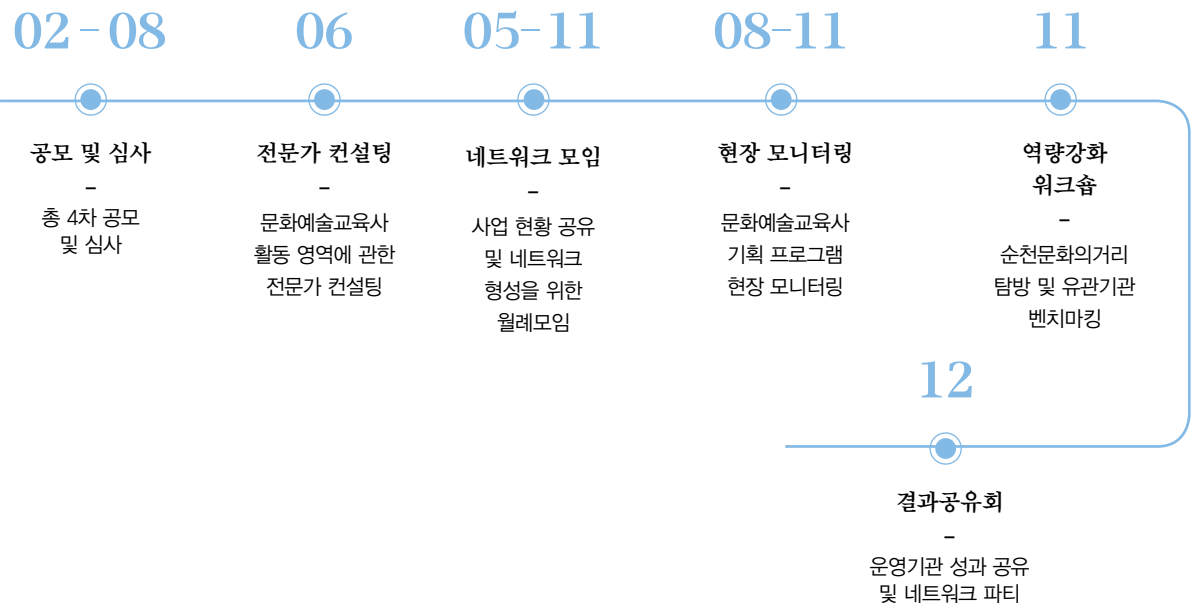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습니다.

사업명	2019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9년 1월 - 2020년 2월
사업비	240,000,000원 (국비 / 시비)
대상 및 자격	· 문화기반시설(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 20조에 해당하는 시설) 공모 · 선정된 문화기반시설에서 공개 채용을 통해 청년문화예술교육사 선발
지원내용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인건비 지원 · 10차시 내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획 · 운영비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가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갖춘 전문 인력을 의미하며, 이를 국가제도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제5항에 의거하여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추진일정



공모선정

- 추진시기: 2월 ~ 8월
- 추진내용: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운영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시민의 생활권역 내에 있는 공공적 문화기반시설 공모 및 선정(5개 시설)

문화예술교육사 네트워크 모임

- 추진시기: 5월~12월(월 1회)
- 추진내용: 인턴십 사업 참여 중인 문화예술교육사의 프로그램 추진 현황 및 정보 공유

현장 모니터링

- 추진시기: 8월, 11월
- 추진내용: 문화예술교육사 근무 환경 점검 및 기획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

운영기관 및 프로그램

분류	운영기관	프로그램	장르	대상	지역
운영기관	서구농성문화의집	오밀조밀 생각대로 오브제 팩토리	환경인문학, 시각예술	초등학생	서구
	각화문화의집	그림찍고, 마음찍고	판화, 실크스크린	지역주민	북구
	서구문화원	사진으로 오늘을 기록하기	사진	지역주민	서구
	동구문화원	용기종이 예술공방	미술, 문학	일반성인	동구
	용봉청소년문화의집	소소하게 확실하게 행복을 위한 뮤직 Q	음악(트로트)	청소년	북구

어린이 환경미술 프로그램 - 오밀조밀 생각대로 오브제 팩토리

서구농성문화의집

김건희 문화예술교육사

교육문의 | 062-362-2072 / nsmunhwa@hanmail.net

- **교육기간**
2019년 7월 ~ 2020년 2월
- **교육대상**
초등학생 (전학년)
- **교육장르**
환경인문학 · 시각예술

교육사 소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부터 실행까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너무나 값진 시간들이었고 더불어 많은 변수들을 통해 더 배워가고 알아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참여한 어린이들이 환경 그리고 미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즐거워할지, 일상 속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작은 행동의 변화들을 구축해 나아가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함을 느끼지만 앞으로 더 다듬어 간다면 저에게도, 참여 어린이에게도 자연스럽게 물들어 가는 그런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성장 과정의 일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아직 잘 하고 있는지 저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만 많은 선생님들의 조언아래 앞으로 한발 한발 나아갈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사가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농성문화의집은 2004년도 개관하여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린 곳입니다. 그러나 구도심이라는 농성2동의 지역적 특성으로 주 이용자층 및 프로그램이 노인과 성인으로 국한되어 왔습니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어린이가 접근하기에는 프로그램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교육내용 <자연, 일상, 나(자신)의 팩토리>

- ① **자연 팩토리**
사서가 들려주는 환경 이야기를 접하고 생각 공유하기.
인근 공원을 탐방하여 자연(생태)을 만끽하고 자신만의 오브제를 탐색하기. 자연을 접목시킨 미술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생각과 상상력을 표현하기.
- ② **일상 팩토리**
사서와 함께 책을 통해 일상 속 환경과 마주하며 의견 공유하기. 헌옷, 폐품 등 무심코 버려지는 것을 다시 활용하여 새롭게 구성하고 가치를 재발견하기
- ③ **나의 팩토리**
나를 구성하는 환경(인적)에 대해 들여다보기.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하여 나만의 자화상을 표현, 실천 가능한 환경보호 훈적남기기



그림찍고, 마음찍고

각화문화의집

이혜원 문화예교육사

교육문의 | 062-265-9336/ haru1881@nate.com

- **교육기간**
2019년 7월 ~ 2020년 2월
- **교육대상**
지역주민
- **교육장르**
판화 & 실크스크린

교육사 소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면서 첫 발자국을 내딛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던 한해 였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판화라는 장르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다보니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즐겁게 참여해주신 참여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곁에 있지만 자주 보지 못한, 가장 소중하지만 가장 소홀하기도 했던, 나의 가족. 그런 가족들의 마음속에 담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모두에게 남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인턴 기간 동안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문화예술교육사로서 성장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열정을 다해 진행해주신 강사님들, 인턴의 기간 동안 아낌없는 배려와 격려를 해주신 각화문화의집 정관용 팀장님과 배선영 과장님, 그리고 광주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가족과 함께 작품창작 활동으로 가족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가족과 함께 교감 하며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마음으로 느끼고 가족의 사랑을 더욱 돈독히 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활동을 통한 가족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 **교육내용**
 - 민화이미지를 이용한 볼록 판화 창작활동
 - 자유시, 가족 시 짓기, 즉흥시를 이용한 판화작업
 - 가족 공동작품 창작활동(참여가족 전체 공동작업)
 - 무등산의 소재로 나만의 무등산 그리기
 - 우리가족 사진을 이용한 가족달력 만들기
 -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기



사진으로 오늘을 기록하기

서구문화원

김하영 문화예술교육사
교육문의 | 062-681-4174/ sg4174@hanmail.net

- 교육기간
2019년 7월 ~ 10월
- 교육대상
마을 기록화에 관심 있는 주민
- 교육장르
사진

교육사 소감
우리가 속해있는 마을에는 반복되는 일상과 매일 지나치는 장소 그리고 세월의 흐름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마을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빛의 눈으로 담는다면 또 다른 시각으로 마을 공간 속에 새로운 이야기가 생겨날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서구문화원은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13명의 교육생과 함께 사진기 작동법을 배우고, 현장답사를 통해 사진기로 우리 마을을 담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마을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와 현장답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진정성 있는 강사님의 가르침, 동일한 현장답사임에도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진지하게 임하는 강사님과 13명의 눈빛을 보며, 진정한 빛의 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기술과 지역 역사를 연계하여 거주지역의 역사·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습니다. 주민의 지역 정체성, 자긍심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 교육내용
 - 마을의 문화자원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방법(카메라 작동과 촬영법)을 교육
 - 서구 6개동을 선별하여 5개월간 서구의 현재 모습과 주민의 삶을 사진으로 기록
 - 현장견학 사진결과물을 모아 결과 화보집을 발간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다_ “웅기종이 예술공방”

동구문화원

안지영 문화예술교육사
교육문의 | 062-225-5815/ donggu5815@hanmail.net

- 교육기간
2019년 11월 ~ 2020년 2월
- 교육대상 일반성인
- 교육장르 미술, 문학

교육사 소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을 통해 제가 교육사로서 직접 기획해 볼 수 있고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참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턴십 사업을 수행하며 제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에 대해 굉장히 뿌듯하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원한 광주광역시동구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동구의 문화, 예술, 역사를 알아가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그리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웅기종이 예술공방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직접 경험하고, 강사 섭외 및 수강생 관리, 정산, 행정 시스템 업무 등 여러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배울 수 있어서 저에게 참 유익하고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양성 프로그램이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민의 삶과 생활을 전통예술(채색공방)과 문학(동화만들기)이라는 종합예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통해 다양한 생각과 창의적 사고의 폭을 넓히며 프로그램 참여자의 예술적 소양과 문화적 감성, 협동심을 확립시켜 이를 토대로 지역의 문화자원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교육내용
 - 우리 생활 속 예술로 친근하게 다가가는 ‘전통채색공방’
 - 민화 작품 감상 (화조도, 어해도, 심장생도, 호작도, 산수도, 풍속도 등)
 - 다산, 행복, 풍요, 평화 등을 상징하는 연화도 채색
 - 부귀영화, 행복, 성실, 안락 등을 상징하는 모란도 채색
 - 사회를 풍자하는 이야기, 까치와 호랑이 채색
 - 그동안 작품들을 전시하며 소통하는 시간

- 나만의 동화만들기
 - 주제를 가지고 뼈대를 만들기
 - 내용 구성 및 스토리텔링
 - 핵심 내용 스케치하기
 - 완성된 동화를 전시하며 소통하는 시간



소소하게 확실하게 행복을 위한 뮤직 Q

용봉청소년문화의집

김다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문의 | 062-710-0924/ ybyouth0924@hanmail.net

- **교육기간**
2019년 11월 ~ 2020년 2월
- **교육대상** 청소년
- **교육장르** 음악(트로트)

교육사 소감
청소년들과 우리의 악기인 창구, 서양악 기인 기타, 카혼을 콜라보하여 서로 다른 악기들이 만나 조화를 이루워 아름다운 음색 표현을 하고 리듬감을 익히며 잠재되었던 흥과 끼를 표출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참여자들끼리의 단합과 시간이 지날수록 돈돈해지는 관계성 또한 아주 좋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음악을 표현하는 창의성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자유의 공간이 잘 진행되어진거 같아 매우 만족하는 바입니다.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 발굴을 위해 노래와 악기 연주의 배움 과정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음악으로 또래와 소통하는 기틀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용봉청소년문화의집이 마을 안에서 주민과 청소년이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 **교육내용**
 - 편곡된 곡 악기 리듬 연주 및 노래와 안무 창작
 - 1) 천태만상, 사랑의 트위스트, 짬짜라
 - 2) 내나이가 어때서, 백세인생, 진도아리랑
 - 전통과 퓨전의 만남 연말 콜라보 공연
 - “희희樂락 소확행 뮤직Q”



문화예술교육사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지역 내 청년문화예술교육사 역량 제고,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인큐베이팅 과정

- 대상** | 광주에서 활동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획 능력을 갖춘 청년 문화예술교육사(2급 자격증 소지자)
- 지원내용** | 문화예술교육 연구비,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비, 결과발표회
- 연구분야** | 인문학과 예술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활동기간** | 선정 후 3개월
- 추진내용**
 - ① 모임별 주제 선정 → 사례조사 → 토론 등의 학습
 - ② 학습내용을 프로그램으로 기획, 사업계획서 수립
 - ③ 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공간 섭외, 프로그램 실행, 정산
 - ④ 문화예술교육사 콜로키움 결과 발표

추진절차

10월 3주 ~ 11월 2주 - 학습동아리 공모	▶	11월 3주 - 학습동아리 선정 심의	▶	11월 2주 - 학습동아리 선정 및 통보	▶	11월 4주 - 지원금 신청 및 교부	▶	12월~3월 (3개월) - 학습동아리 운영	▶	1월~2월 - 콜로키움 발표
----------------------------------	---	-------------------------	---	---------------------------	---	-------------------------	---	-------------------------------	---	--------------------

선정단체

동아리명(대표성명)	회원수	연구방향/주제
문화울림(박성희)	4	생애주기형콘텐츠(노년) ‘눈부신 그대 발자국’
아미노리(박정경)	3	생애주기형콘텐츠(유아) ‘판소리와 놀이’



정책기반사업

문화예술교육기관 협의회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전문가 TF운영



2019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모음

문화예술교육 정책기반사업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사업

정책기반사업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스스로의 성장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기관 협의회, 실태조사 연구용역, TF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광주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수립(2018-2022)에 따라 지역 연구기관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긴밀한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토대로 지역적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내실 있게 전개하기 위한 정례적인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문화예술교육 정책기반사업
사업기간	2019년 1-12월
사업분류	① 문화예술교육기관 협의회운영 ②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③ 꿈꾸는 예술터 조성을 위한 전문가 TF운영

01

문화예술교육기관협의회

추진내용

추진배경
광역센터와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기관, 단체, 문화예술교육 인력 간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요업무 협의 등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한 협력망 구축 및 원활한 소통 창구 마련
추진방향
·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및 구현방안 모색 ·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협의 및 공동사업기획 ·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추진사업에 대한 조언 · 자문 ·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 · 물적 자원 및 지식 정보 교류 · 센터사업 전반 및 문화예술교육배움터 조성에 참여 · 협력 등

주요안건
· 2019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요사업현황 및 상반기 성과공유 · 문체부 지역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의견 나눔 · 광주문화예술교육배움터조성에 대한 의견 나눔 ·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0년 협력방안협의 및 공동사업기획 ·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 · 물적 자원 및 지식 정보 교류

협의회구성
유관기관 (광주시주무부서, 광주시교육청), 문화예술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대표 및 담당부서장), 지역 문화예술교육전문가 등

추진일정

04

05-12

- 협의회 실행계획안 수립
· 2019년 협의회 위원명단 확정 및 위촉
- 기관협의회 추진(3회)
· 2020년 교육센터 추진방향 및 사업제안 등

협의회 진행모습



문화예술교육 정책기반사업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사업

02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추진내용

추진배경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2~2018)」과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 계획(2022~2019)」 수립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사업 실행 타당성 확보 필요

- 추진방향**
-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현황 파악 및 분석
 - 정책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통계자료의 확보
 - 광주 문화예술교육 기초 실태조사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트렌드 및 공급·수요 현황 파악
 - 광주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방향 도출

연구내용

기초실태조사
광주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공급 추이 조사(인프라 현황, 단체 현황, 수요 현황, 프로그램성격, 가동률/이용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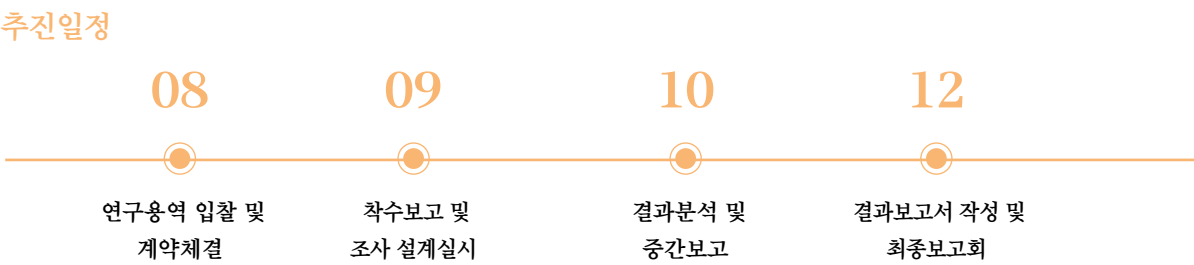
시설별 문화예술교육 실태분석
문화예술교육 공급시설(공공기관, 민간시설, 상업시설 등)특성에 따라 비교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실태분석

문화예술교육의 트렌드 조사
문화예술교육의 공급 및 수요 트렌드 조사 및 분석에 따른 쟁점 도출

문화예술교육 대상 향유 조사
수해도, 만족도, 요구 사항 등 조사하여 교육사업의 공급 방향 마련

정책 방향 도출
광주의 문화예술교육의 대표 기관으로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연구용역
주식회사 풀인사이트



연구결과

*** 기관, 단체 현황**
* 조사대상: 공연·전시·도서·문화복지·문화보급 시설, 문화예술 단체 등 100개 대상

11년	3,000만원	14개	특징
운영기간	예산평균	프로그램	생활문화영역(취미, 여가) 중심 프로그램, 복합 장르, 중년 대상이 많음

*** 문화예술교육 종사자 현황** * 종사자(강사, 기획자, 행정가) 204명 대상

분야	급여(평균)	시간당
복합장르	회차별	
예술영역	15.5만원	5.1만원
체험 프로그램	월소득 109만원	

*** 일반시민(문화예술교육 미참여자)의 특성**

문화예술 관심도 62 점

일상생활 중 문화예술 비중 45.8 점

-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정보 부족
- 기타 주요의견
일반시민의 85% 이상은 향후 교육을 희망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 평가

*** 조사 응답자 현황**

성인	청소년	초등학생
500명	100명	100명
체험 프로그램 음악, 생활문화, 체험형 WHY? 일상생활이 즐거워짐	80점 공예, 생활문화, 체험형 WHY? 학교 교과과정 이외의 내용을 배울 수 있음	77점 체험형 WHY? 프로그램이 재미 있음
만족도(100점)		

그 외 지역 여건 평가, 교육 수요, 참여를 위한 개선 방안,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분석하고 광주문화예술교육의 지향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지원 방향 등에 대해 정책 도출함

문화예술교육 정책기반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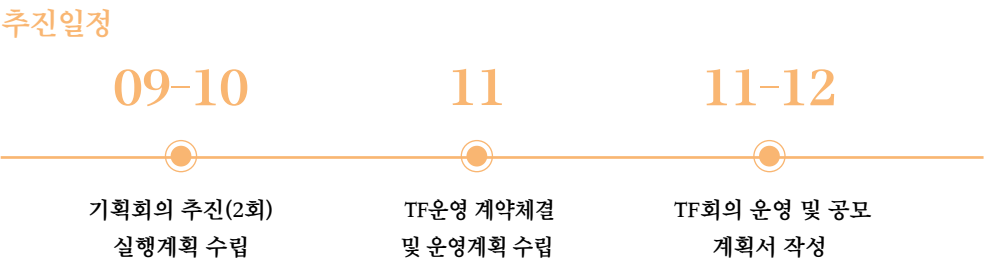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사업

03

꿈꾸는 예술터 조성을 위한 전문가 TF운영

추진배경
2020 ‘꿈꾸는 예술터’ 사업공모의 일환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 및 운영 지원
추진방향
– 광주형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모델 조성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T/F팀 구성 운영
– 광주형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세부 추진체계 및 세부프로그램 운영 논의를 위한 T/F회의 추진
– 광주형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꿈꾸는 예술터’ 사업 공모 계획 제안(안) 도출

주요내용
방향 지역 생활권 단위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제안
운영 아동 · 청소년에서 지역주민까지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안
추진체계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기획 및 운영인력 추진 체계 제안
공간 조성 운영방향에 맞추어 유희공간, 창작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공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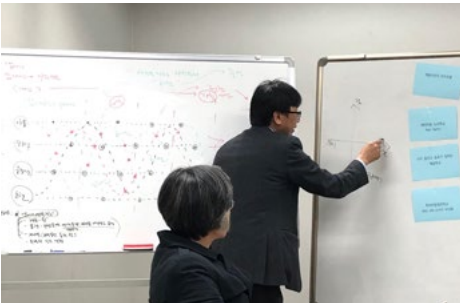


*참고 2018년 문체부 꿈꾸는 예술터 선정 현황

팔복예술 공장	<div>· 위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div> <div>· 규모 1,411㎡</div> <div>· 특징 2016년 문화적도시재생사업 공장 리모델링후 꿈터 공모 참여</div> <div>· 운영 전주문화재단</div> <div>· 사업비 20억 (국10, 시10)</div> <div>· 공간구성<div>– 예술활동관(유아와 청소년 특화공간)</div><div>– 다목적예술관(단체예술활동, 공연, 전시)</div><div>– 자료보관소(아카이브)</div></div>
성남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div>·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86 구)영성여자중학교</div> <div>· 규모 연면적 5,005㎡, 지상5층(본관건물) 토지 14,195㎡(운동장포함)</div> <div>· 연혁 18년 8월 공모선정(국30억)</div> <div>· 운영 성남시문화재단</div> <div>· 사업비 60억(국30, 시30)</div> <div>· 공간구성<div>– 미술9개, 음악13개, 무용/연극2개, 미디어10개, 커뮤니티6개, 공감5, 운영15개 등</div><div>– 공간의 가변성과 유연성을 포함하며 무장애, 평등한 접근 보장</div></div> <div>※ 교육청과 업무추진에 따른 문제 발생에 따라 사업지연 (2020.1월 리모델링 공사 시작)</div>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협의회 참석 및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 꿈꾸는 예술터 1~4차 TF회의

닫다

2019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모음

일상이 행복해지는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팀장

정혜영

“나는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프로그램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그램을 참석하는 날은 설레었어요. 왜냐면 내가 대접받는 느낌이랄까...”

-경자씨와 재봉틀

“나만의 시간으로 온전히 나로 돌아오는 시간”, “신청할 때는 부담스러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해요.”

-지영씨의 인생부록

“내년에도 또 올거예요!”, “목수축제 참여하고 집에 오면 엄청 빨리 자요. 게임을 못해요. 호호호”, “아이들이 3일 만에 이렇게 만들다니, 이런 능력이 있었다니 놀라워요.”

-어린이목수축제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바라는 문화예술교육은 세대를 아우르고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누구나 즐기는 그래서 삶이 행복해 지는 때 순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개인이 전인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생애통합적, 세대통합적, 계층통합적, 장르통합적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 해 동안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함께 해주신 전문가 선생님들, 유관기관 담당자님들, 통신헌원님들, 팀원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직원들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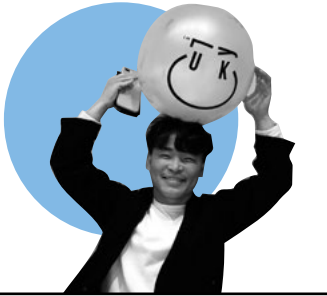
김세령

개인이 업무 또는 일에 마주할 땐 책무에 매여 새로운 배움에서 오는 즐거움의 약빨은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교육팀에 입사한지 스무 개월을 맞았고 사람을 만나는 일, 새로운 기회를 얻는 일, 일로 만나는 즐거움의 자극은 제게 또 다른 모습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었습니다. 어린이목수축제에 참가한 한 어린이의 '위험해도 도전하는 일이 재밌어요!' 라 하던 힘찬 말처럼 도전하는 재미를 알게 해주 귀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아

2019년도 문화예술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예술 정보를 정형화하는 통신원제 및 문화예술교육의 플랫폼인 허브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생생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취재·정리, 지원사업의 통합 결과자료집을 제작하여 공유할 수 있어 의미 있는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고해 주신 프로그램 감사님, 통신원들, 문화예술교육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원

시작은 지금처럼 비슷한 공기냄새가 날 때 즈음이었던 것 같다. 같은 계절의 2월과 12월은 무척 닮아있어 지금이 시작점인지 마침표인지 아른거리게 한다. 다만 지나온 뜨거웠던 시간이 나에게 아직 남아있어 두 시간의 차이를 같음하게 한다. 밖은 여전히 춥고 옷을 여미며 웅크리게 하지만 따뜻했던 분위기와 마음을 열고 함께했던 이곳의 추억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사회초년의 시작이 이곳이라 너무 감사하다. 문화예술교육을 배우고 경험 해 볼 수 있어 값진 기회를 얻었다. 아쉽고 애똥한 마음 한 가득안고 마무리하려 한다.



김유정

올해도 어김없이 시간은 잘도 흘러갑니다. 연말에 사업 정리, 마음 정리할 수 있는 여유는 언제쯤 오런 지요. 매년 한해, 한해를 보내면서 바쁜 일상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광주센터는 의지 한가득 안고 2019년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술교육살롱, 연구모임 등 다양한 네트워크사업을 시도를 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자주 듣고 싶었지만 넘쳐나는 행정업무에 현장과 많이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15년 멋모르게 시작했던 교육팀 업무를 지금까지 맘나게 하고 있는 것은 특유의 문화예술교육팀이 주는 팀장님과 팀원들의 따뜻한 팀워크 때문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느꼈던 한해였습니다. 광주지역 곳곳에서 문화예술교육으로 만나는 마음 따뜻한 쌤들, 계속적으로 함께해요!!



한영주

문화예술교육현장에서 꾸준히 활동해 주신 단체 선생님들과 문화예술교육팀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올 한해 같이 할 수 있어 행복했고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오지향

처음 해보는 일투성이라 실수도 많았고, 주변의 도움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11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때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실수도 하고, 여전히 팀원들 이름을 하루에 열두 번씩 부릅니다. 팀원들과 단체 선생님들, 통신원 선생님들 이 일을 통해 만난 모든 분들과 부대끼며 지낸 시간들이 각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두를 만나 가는 시간들에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냈고,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조가연

2019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면 나에게 좋을지를 고민했고, 문화예술교육팀에 지원했다. 문화+예술+교육, 익숙한 이름이어서 괜찮겠다 싶었다. 내가 무언가 알고 있을거란 막연한 생각을 했었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배워야했던 나의 10개월, 마지막이라니! 한발 더 다가서고 한번 더 눈맞추는 순간들이 뚜렷하다. 그 순간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비로소 이해했던 것 같다. 그 시간들에 함께 했던 교육팀 선생님들! 본보기로 오래 기억해 두어야지 했던 분들도 만났다. 문화예술교육이 흘러가는 과정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을진 잘 모르겠다. 뭐 하나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받아만 가는 것 같아서 여운이 크게 남는다. 애써주셨던 선생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민아

제가 첫 직장에서 처음 사업을 맡아 본 것이 시민 참여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었는데, 몇 년이 흘러 또 이렇게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맡아 보았어요. 그래서인지 2019년은 옛 생각과 그리고 지금의 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지나온 시간만큼 더 성장되어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그리고 워킹맘으로 일하면서 욕심껏 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 그래도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의미 있는 사업에 단추를 끼었다는 뿌듯함이 공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좋은 사람들과 또 한 걸음 걸어 나가는 문화예술교육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윤정

내 그릇은 작다. 그런데 이 작은 그릇에 차고 넘치게 사람이 들고 일이 든다. 맨 모르는 사람들 만나고, 맨 모르는 일 하고, 올해는 그렇게 자꾸 그릇에 사람과 일이 채워졌다. 일단 작은 그릇에 담고 본다. 채하면 뱉어내더라도 일단 한번 담아본다. 그릇에 담고 덜어내기를 반복하며 올해를 버텼다. 안 될 것 같던 일들이 어떻게든 다 되어 왔다. 그리고 주어진 일들을 성심껏 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교육팀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희

2019년은 “희노애락”의 시간이었습니다. 토요문화학교 사업을 보조 진행하면서 23개 단체 선생님들과 만나 뵈던 즐거운 순간들, 처음 겪어보는 업무들이 힘에 부쳐 슬펐던 순간들 모두 다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며 마무리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토요문화학교 담당선생님들께 전화를 드리던 때에도 코끝에 찬바람이 생기고 스치던 날이었는데, 벌써 다시 살갗에 추위가 스며드는 계절이 왔습니다. 팀장님과 아홉 분의 교육팀 선생님들, 토요문화학교를 일 년 동안 무사히 이끌어주셨던 단체 선생님들 2020년은 “희희낙락” 되시길 바랍니다!

2019 사업일정표

	01/JAN	02/FEB	03/MAR	04 /APR	05/MAY
창의 예술학교	운영계획 수립	사업신청 안내	공모 심의/선정 및 전문가 컨설팅	1차 정기회의 현장모니터링	2차 정기회의 공동행사_봄소풍
창의예술교육 연구소			운영계획수립		연구모임 <서로배움> 공모 심의/선정(1차)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운영계획수립		경자씨와 재봉틀Ⅵ 기획회의
거점예술 배움터조성 예술교육살롱					
문화예술교육 축제					
문화예술교육 ODA 프로젝트					
동네예술배움터 & 주말예술배움터	운영계획 수립	사업 설명회	공모 심의/선정 1차 전문가 컨설팅		담당자 현장 모니터링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운영계획수립		· 선정동아리 1차워크숍 · 코디네이터 1차 간담회	동아리 컨설팅	· 현장모니터링 · 코디네이터 2차 간담회
유아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운영계획 수립	유아문화예술교육 공모 심의/선정(1차)		유아문화예술교육 공모 심의/선정(2차)	· 선정기관 1차 워크숍 · 추진관련 간담회 개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지원사업	운영계획수립		운영기관 공모 심의/선정(1,2차)	선정기관 워크숍	1차 월례회의
문화예술교육 기관 협의회	운영계획수립				기관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06/JUN	07/JUL	08/ AUG	09/SEP	10/OCT	11/ NOV	12/DEC
3차 정기회의	4차 정기회의 운영진 워크숍		5차 정기회의 공동행사_가을 운동회	6차 정기회의	공동행사_ 졸업식 네트워크포럼	
· 연구모임 <서로배움> 공모 심의/선정(2차) ·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인생라운드#> 실행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 <아이 엠 쌤> 실행				· 결과자료집 제작 및 배포 · 결과공유회
· 경자씨와 재봉틀Ⅵ 1-2차시 운영 · 청장년인생설계학교 기획회의	· 경자씨와 재봉틀Ⅵ 3-6차시 운영 · 청장년인생설계학교 1-3차시 운영	· 경자씨와 재봉틀Ⅵ 7-11차시 운영 · 청장년인생설계학교 4-7차시 운영	청장년인생설계학교 8-10차시 운영	지영씨의 인생부록 기획회의	지영씨의 인생부록 1-6차시 운영	결과자료집 제작 및 배포
운영계획수립	예술교육살롱 공모 심의/선정(1차)	예술교육살롱 공모 심의/선정(2차)		현장모니터링		· 결과자료집 제작 및 배포 · 결과공유회
	운영계획수립		· 어린이목수축제 (3일간) · 아트날라리(1일간)	평가회의		결과자료집 제작 및 배포
	운영계획수립		프로젝트 공모 심의/선정	기획회의	프로젝트 실행 (10일간)_ 파트너 국가: 미얀마)	결과보고서 작성
담당자 현장 모니터링	운영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			성과 공유워크숍
· 현장모니터링 · 코디네이터 3차 간담회	현장 모니터링	코디네이터 4차 간담회	코디네이터 5차 간담회	코디네이터 6차 간담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	코디네이터 7차 간담회	성과 공유워크숍
선정기관 2차 워크숍				현장 모니터링		정책포럼 개최
· 전문가 컨설팅 · 운영기관 공모 심의/선정(3차) · 2차 월례회의		· 3차 월례회의 · 운영기관 공모 심의/선정(4차) · 현장 모니터링	전문가 컨설팅	4차 월례회의	· 역량강화 워크숍 · 학습동아리 워크숍	
		· 기관협의회 추진 ·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		· 실태조사 연구실행 · 꿈꾸는예술터 TF회의		· 결과보고서 작성 · 기관협의회 추진

사업별 참여자 만족도 평가

참여 인원 총계 *37개 단체

562명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16개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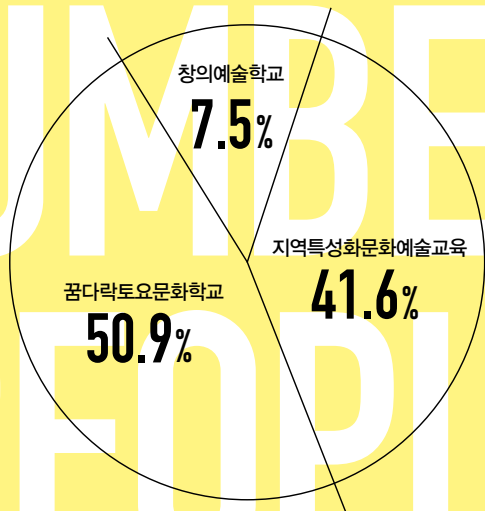
234명

꿈다락토요문화학교 *18개 단체

286명

창의예술학교 *3개 단체

4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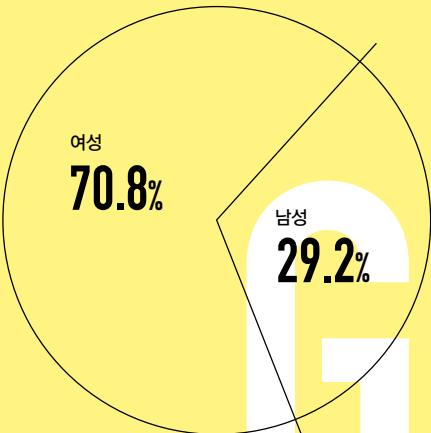


사업별 참여자 만족도 평가 성별

참여 성별 *빈도(명)

164명

398명



빈도(명)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16개 단체

169명

65명

꿈다락토요문화학교 *18개 단체

195명

91명

창의예술학교 *3개 단체

34명

8명

비율(%)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16개 단체

27.8%

72.2%

꿈다락토요문화학교 *18개 단체

31.8%

68.2%

창의예술학교 *3개 단체

19.0%

81.0%

사업별 참여자 만족도 평가 연령

만12세 이하

81.0%

만13세~19세

4.2%

20대

5.4%

30대

6.9%

40대

11.1%

50대

7.2%

60대 이상

9.6%

사업별 참여자 만족도 평가 거주지

광주

547명

광주 이외

11명

광주

98.0%

광주 이외

2.0%

광산구

91명

16.3%

서구

133명

23.8%

남구

172명

30.8%

북구

116명

20.8%

동구

35명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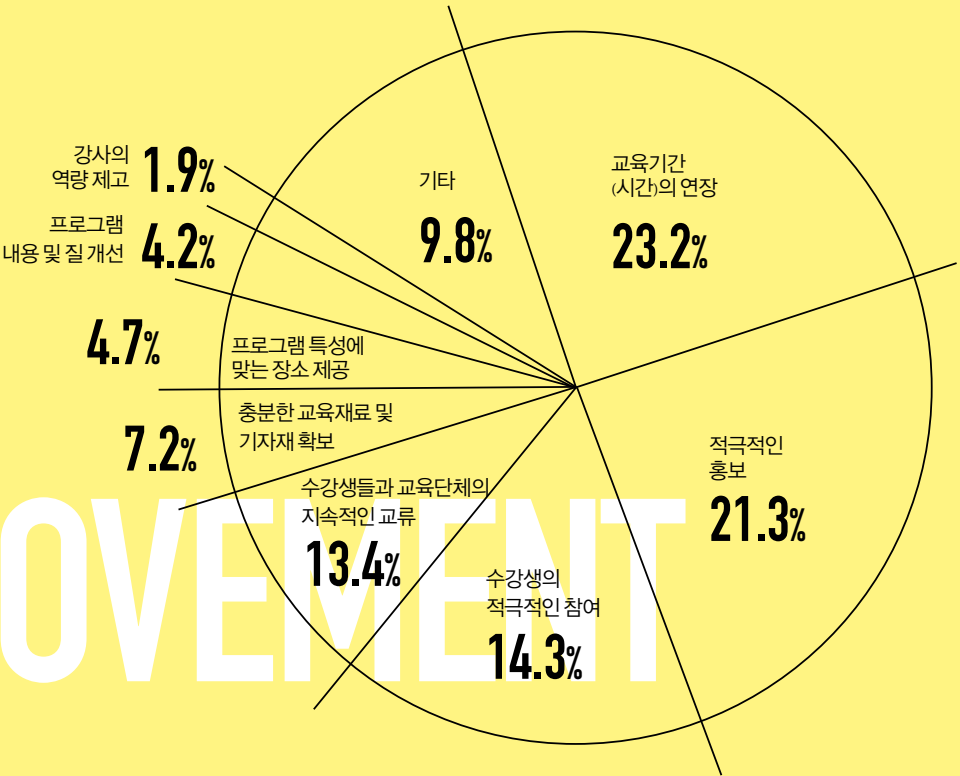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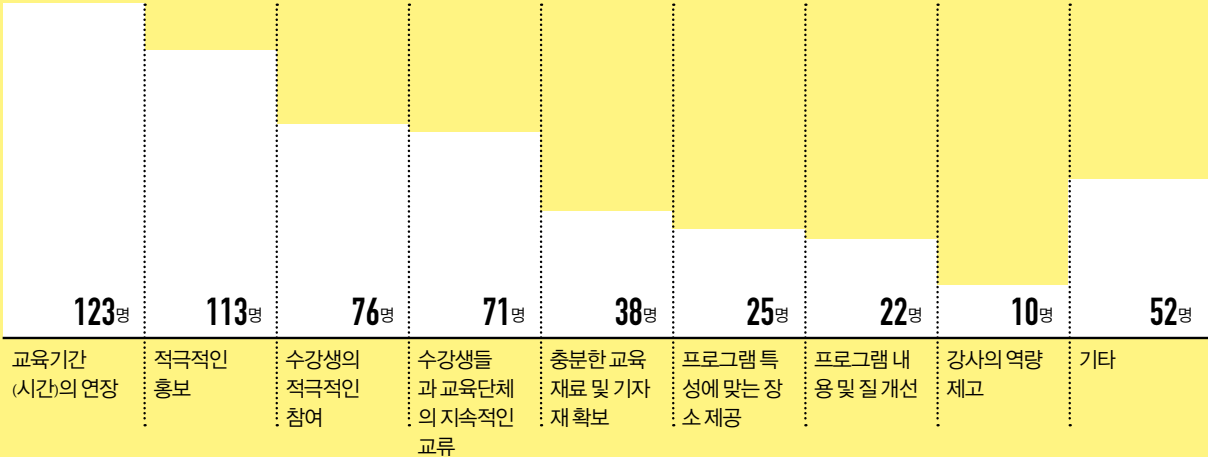


사업별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결과

① 프로그램 내용이 참신하고 재미있다.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창의예술학교
YES 91.8%	91.8%	93.4%	86.6%
② 프로그램 구성이 알차게 구성되었다.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창의예술학교
YES 91.8%	90.4%	93.4%	87.6%
③ 프로그램이 교육적으로 유익하다.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창의예술학교
YES 91.8%	91.8%	93.0%	88.0%
④ 프로그램 진행 시간에 만족한다.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창의예술학교
YES 89.6%	88.2%	91.6%	83.4%
⑤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참신하다.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창의예술학교
YES 93.2%	92.2%	94.6%	89.2%
⑥ 강사나 스텝들과의 친밀도가 참여에 도움이 된다.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창의예술학교
YES 92.6%	92.4%	93.8%	85.8%
⑦ 주변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해주고 싶다.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창의예술학교
YES 92.4%	90.6%	93.4%	86.6%
⑧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창의예술학교
YES 92.2%	91.4%	93.8%	84.8%
⑨ 프로그램이 다시 기획되면 또 참여할 의향이 있다.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창의예술학교
YES 93.0%	92.4%	94.0%	91.0%
⑩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다.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창의예술학교
YES 93.8%	92.2%	95.4%	92.0%

향후 프로그램
개선과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참여 인원 총계
530명



SATISFACTION

IMPROVEMENT

Blank writing area on page 194, consisting of horizontal dotted lines.

Blank writing area on page 195, consisting of horizontal dotted lines.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결과자료집 1

모음

발행처	광주문화재단
발행인	김윤기
발행일	2019년 12월
기획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구성	정혜영, 송선아, 김세령
주소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구동 12번길)
전화	062) 670-5763
팩스	062) 670-5769
이메일	gjarte@hanmail.net
홈페이지	www.gjarte.or.kr
디자인	씨몬디자인
인쇄	맥스타